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한국 대학교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안

2025. 4. 17.(목) 10:00~18: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공동주관

 **KOSS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

공동주최(가나다순)

 **한국경영학회**
Leading Future Agents of Business & Society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사)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한국행정학회**

후 원 

심포지엄 식순

10:00-10:30	개회 및 축사 사회: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환영사 장원호(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개회사 신동천(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0:30-11:00	기조 발표 • 고등교육 개혁의 회고와 전망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1:00-12:00	제1세션 사회: 김흥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교육 혁신 방향 김범수(한국정치학회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대학 재정 위기와 개선 방안 채희율(경기대학교 명예교수 • 전 경기대학교 부총장) • 고등교육 혁신과 정부의 역할 배상훈(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토론] • 김지하(한국교육개발원 고등연구교육 실장) • 박진(KDI 정책대학원 교수) • 박광국(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2:00-13:00	제2세션 사회: 김연성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대학 국제화 필요성 대두에 따른 현황과 전망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학 국제 서열화 서의호(aSSIST/포스텍 교수) • 대학 국제화의 패러다임 전환: 질적 성장과 다층적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중화(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론] • 채준(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강낙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 •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 센터장)
13:00-14:30	오찬
14:30-16:00	제3세션 사회: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 지방대학과 지방,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성경룡(상지대학교 총장) • 미래사회 변화와 대학의 발전방향 이향숙(이화여자대학교 총장) • 대학원 중심 대학의 현황과 과제 문휘창(서울과학종합대학원총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 지병근(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상만(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한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6:00-16:20	휴식
16:20-17:30	[종합토론: 한국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 사회: 장원호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양희동 (한국경영학회장·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석학교수) • 임운택 (한국사회학회장·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7:30-17:40	폐회

환영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23대 회장 장원호입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1975년 설립된 이래, 국내 15개 주요 사회과학 학회들과 협력하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학제 간 융합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사회과학 5대 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융합 심포지엄으로, “한국 대학교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문적 통찰과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논의의 장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등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 재정 위기, 국제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과도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고등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변화된 사회에 걸맞은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교육, 경제, 경영, 정치, 행정,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이 모여 고등교육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종합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각 세션에서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대학 재정과 정부 지원, 대학의 국제화와 지역 균형 발전, 미래사회와 대학의 역할 등 핵심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5대 학회장님들과 함께 각 학문분야의 통합적 관점을 공유하며,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앞으로도 저출산, 지역소멸, 사회갈등과 같은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며, 회원 학회들과 함께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입니다. 오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원호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이주호 부총리님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국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안」입니다. 현재 대학이 직면한 상황들은 교육기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는 지식생산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이며,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할 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대학 재정과 규제, 국제화, 지역 균형발전, 연구 생태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사회과학 각 분야의 주요 학회가 모여 통합적인 시각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2년부터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함께 학술과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연구와 학술연구 간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1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교육 혁신 방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교육 혁신 방향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한국정치학회 회장

발표자 약력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1992), 석사(1997)
-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석사(2000), 박사(2006)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2010~현재)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2023~현재)
- 한국정치학회 회장(2025~현재)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2023~2025)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컨설팅위원,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컨설팅위원, 프라임사업 평가위원, 대학특성화사업 경인지역 평가위원장 등(2015~2017)
- 연구 분야: 정의론, 인권론, 평화론, 민족주의론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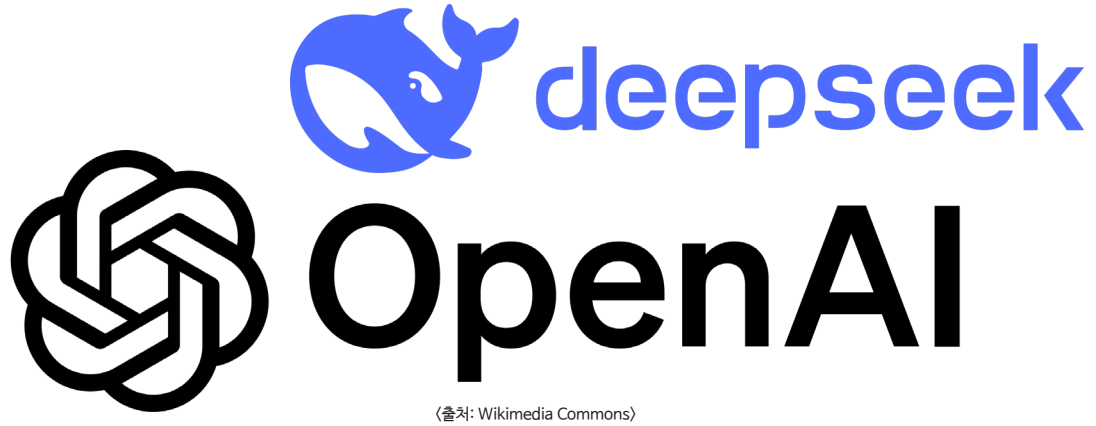
-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 ‘느리게’ 변하는 대학
-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
- 전공자유선택제도
-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

1.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1)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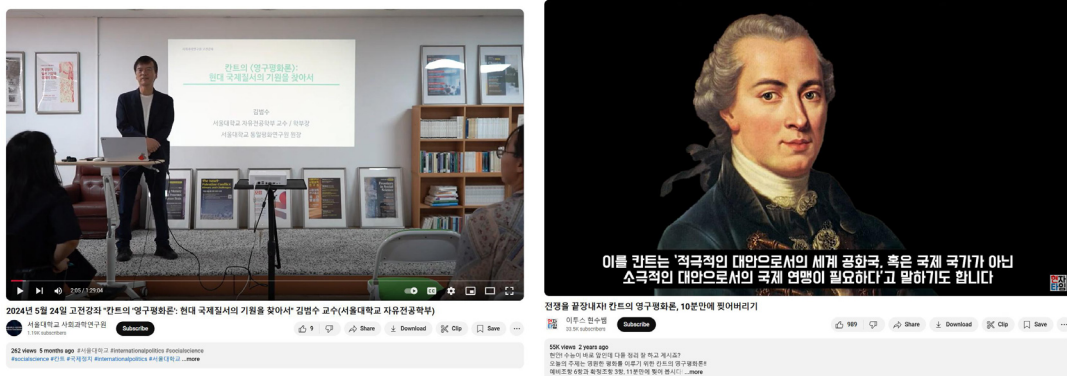
💡 생성형 인공지능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2) 뉴미디어의 발전

💡 YouTube를 중심으로 넘쳐나는 강의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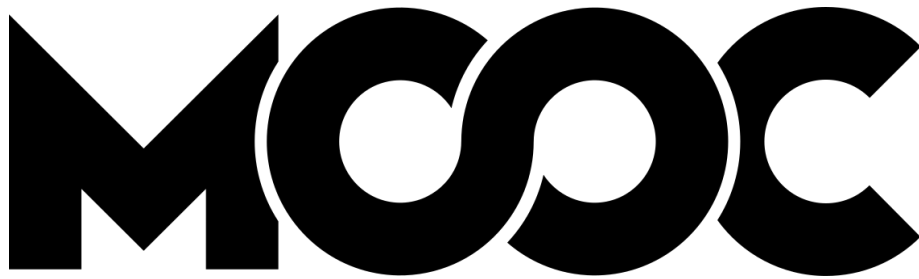


〈출처: YouTube〉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3)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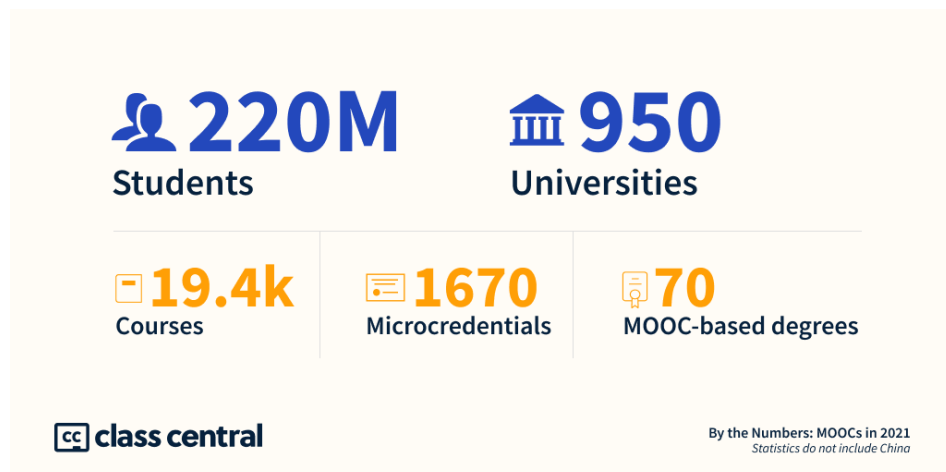
- 💡 MOOCs (Massive Open Online Courses)
 - Coursera, edX, FutureLearn, Swayam 등



〈출처: Wikimedia Comm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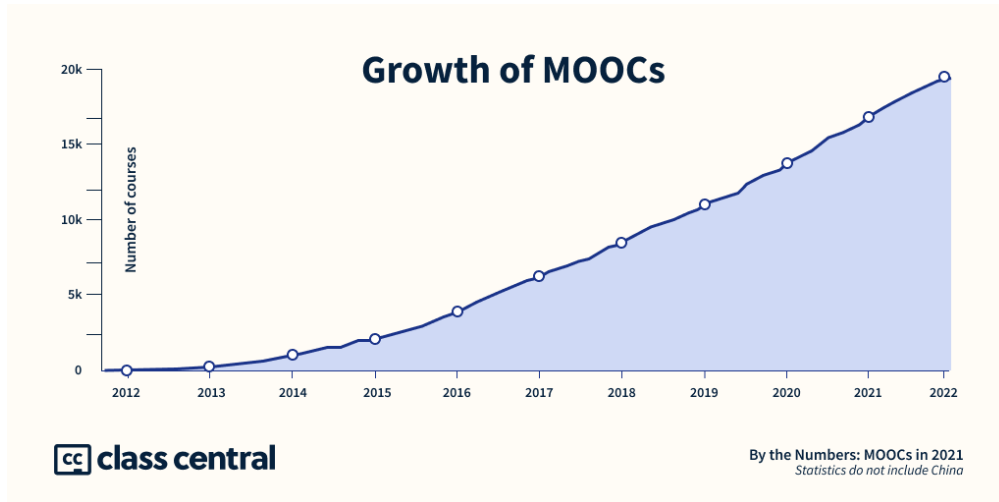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 💡 MOOCs 현황(2021년 기준)



〈출처: Class Central〉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출처: Class Central〉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Search Top Online Courses by Subject

MOOCs provide an affordable and flexible way to learn new skills, advance your career and deliver quality online learning to anyone, anywhere. Use the filter below to browse from over 3,000 online courses offered on edX.org

Filter by Subject:

- ☐ Architecture
- ☐ Art & Culture
- ☐ Biology & Life Sciences
- ☐ Business & Management
- ☐ Chemistry
- ☐ Communication
- ☒ Computer Science
- ☒ Data Science
- ☐ Design
- ☐ Economics & Finance
- ☐ Education & Teacher Training
- ☐ Electronics
- ☒ Energy & Earth Sciences
- ☒ Engineering
- ☐ Environmental Studies
- ☐ Ethics

Computer Science Manage the cyber threat for finance professionals	Computer Science Machine learning with Python for finance professionals	Computer Science Robotic process and intelligent automation for finance
Medicine Managing Addiction: A Framework for Successful Treatment	Computer Science Big Data Analytics	Humanities Shakespeare Matters

〈출처: www.mooc.org〉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HarvardX: Justice

★★★★★ 4.8 stars 190 ratings

This introduction to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is one of the most popular courses taught at Harvard College.



 **12 weeks**
3-6 hours per week
  **Self-paced**
Progress at your own speed
  **Free**
Optional upgrade available

There is one session available:

195,890 already enrolled! After a course session ends, it will be [archived](#).

Starts Nov 3

Enr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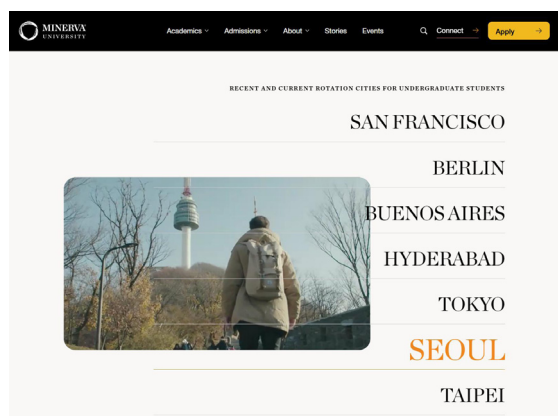
☐ I would like to receive email from HarvardX and learn about other offerings related to Justice.

〈출처: www.edx.org〉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4) 새로운 형태의 대학 등장

💡 미네르바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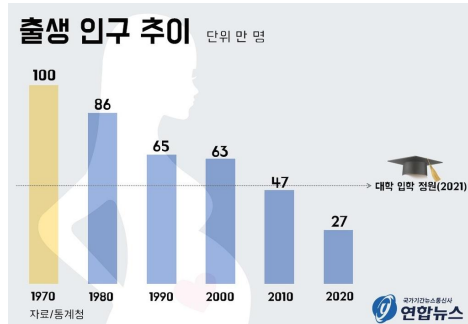


〈출처: Minerv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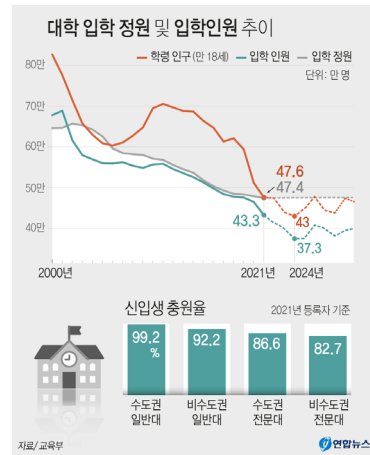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5)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 전국 동시다발로 망할 것”



(출처: 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0210520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loney.kr/leN1

2. ‘느리게’ 변하는 대학

‘느리게’ 변하는 대학

1)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vs. ‘느리게’ 변하는 대학

💡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출처: Adobe Stock〉

‘느리게’ 변하는 대학

2) 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 증가

💡 “대학 학위가 쓸모 없다”

“In the past decade, the share of Americans expressing high confidence in the value of higher education fell sharply, from 57% to 36%.”
—Gallup

Figure 2

Public skepticism about the real value of higher education continues to rise, including among college graduates

Two in five bachelor's
graduates regret their degree attainment



Source: Strada Education Foundation, *Value beyond the degree: Alumni perspectives on how college experiences improve their lives*, November 16, 2022.

Deloitte | deloitte.com/us/en/insights/research-centers/center-for-government-insights.html

〈출처: Deloitte〉

3.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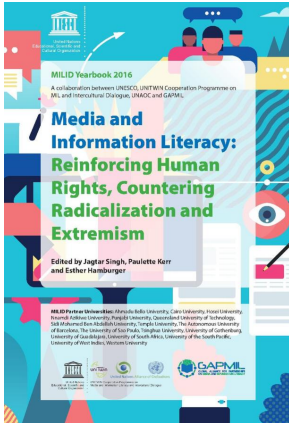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

1)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 💡 사회 변화보다 ‘반보 빠르게’ & ‘반보 느리게’
 - 응용: 혁신 기업만큼 빠르게 변화할 수는 없지만 사회 변화보다 ‘반보 빠르게’ 변화해야
 - 기초: ‘학문의 수호자’로 전통을 지키며 사회 변화보다 ‘반보 느리게’ 변화해야
- 💡 교육과정의 변화
- 💡 교수학습법의 변화
- 💡 전인 교육 강화
-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공교육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

2) Digital Literacy



(출처: Wikimedia Commons)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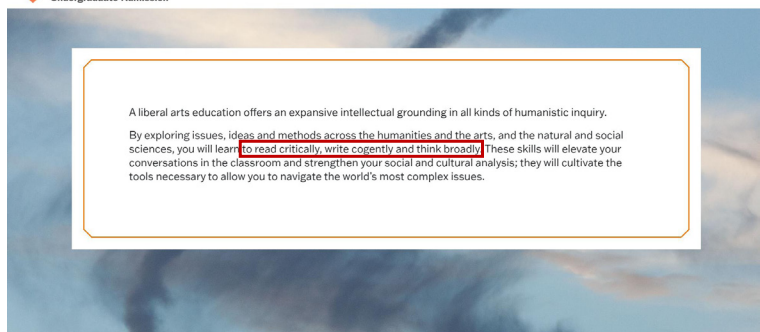
3) Liberal Arts

📖 읽고 쓰고 생각하는 기술

- ‘자유시민으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기술’
- 단순히 문제 푸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교육

PRINCETON UNIVERSITY
Undergraduate Admission

Search Select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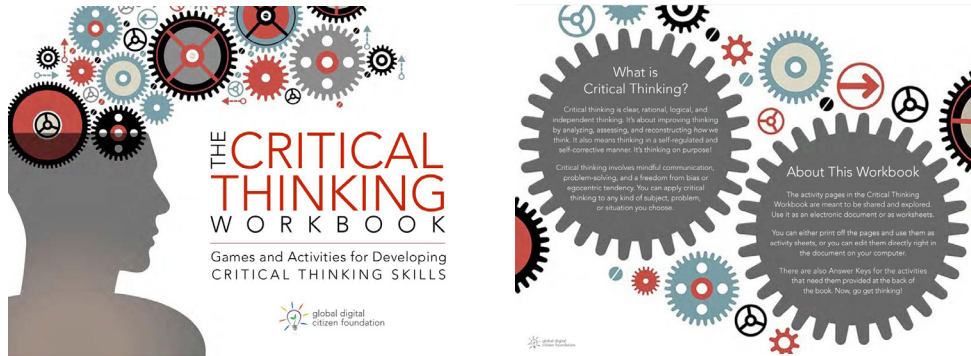


A liberal arts education challenges you to consider not only how to solve problems but also trains you to ask which problems to solve and why, preparing you for positions of leadership and a life of service to the nation and all of humanity. We provide a liberal arts education to all of our undergraduates, including those who major in engineering.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

4) Liberal Arts

- 비판적 사고: 질문하는 능력 (한강: “질문들을 견디면 사는 삶”)
 - Not finding answers but making ques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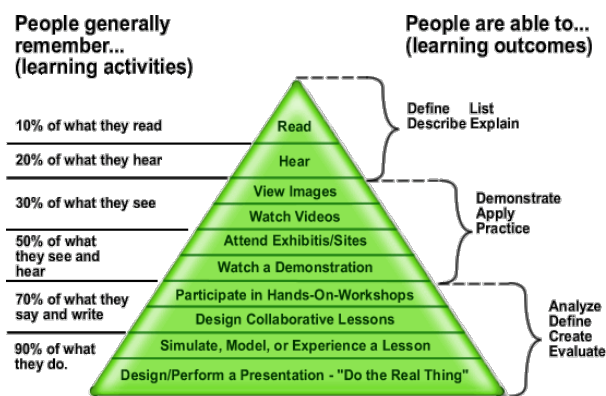


〈출처: Global Digital Citizen Foundation〉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

5) Active Learning

- 활동에 기반한 능동적 학습: 오프라인 교육의 차별점



〈출처: Edgar Dale's Cone of Experience (1968), Wikimedia Commons〉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

6) Communication

- 💡 대화와 토론을 통한 동료와의 소통



〈출처: www.digits.co.uk, Wikimedia Commons〉



〈출처: www.blackmousedesign.com.au〉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

7) Collaboration

- 💡 팀프로젝트 등을 통한 동료와의 협업



〈출처: Wikimedia Commons〉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

8)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공 교육

💡 학사제도 유연화

- 복수전공·다전공 + 마이크로디그리(2022.12.)
- 융합전공제: 원 소속 전공 이수 없이 융합전공 이수만으로 졸업 가능(2016.12.)
- 전과(부) 1학년부터 허용 (2024.2.)

💡 ‘자율적인’ 학과 구조조정

- 신입생 충원율(입학), 재학생 등록유지율(재학), 졸업생 취업률(졸업)
- 학과 폐지·통합·신설

💡 전공자율선택제도

4. 전공자율선택제도

전공자율선택제도

1) 전공자율선택제도 확대

📍 교육부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방안 발표(2024.1.)

- 교육부는 2024년 1월 30일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입학 정원을 전체 모집인원(보건의료 및 사범계열 제외)의 25% 이상으로 늘리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천명함

📍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2024.5.)

- 교육부가 2024년 5월 30일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도권 대학 51곳은 2만5648명(29.5), 국립대 22곳은 1만 2287명(26.8%), 합계 3만7935명(28.6%)을 ‘무전공’으로 선발할 계획임
- 2024년 9924명(6.6%)을 선발한 것과 비교할 때 약 2만8000명 정도 확대 선발

전공자율선택제도

2) 주요 대학 전공자율선택 무전공 선발 비율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건국대	0%	28.8%
경희대	4.4	10
고려대	0	6.2
국민대	0	41.9
서강대	21.9	29.9
서울시립대	1.7	5.1
성균관대	0	10.1
연세대	15.1	18.3
이화여대	21.6	26.1
중앙대	11	14.4
한국외대	3.3	26.1

	2024학년도	2025학년도
한양대(서울)	0	10.5
강원대	0	7.9
경북대	0	25.4
경상국립대	0	26.3
부산대	0	5.1
서울대	20.1	20.9
전남대	22.1	35.5
전북대	0	5.2
제주대	0	5.4
충남대	0	29.1
충북대	0	20

〈출처: 조선일보 2024.5.31.〉

전공자율선택제도

3) 전공자율선택제도의 장점

- 학생의 전공선택권 확대
 - 기존 학사제도의 '경직성'을 넘어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
 -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 학과 간 경쟁 촉진
- 융합 인재 양성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 혁명 등으로 인한 융합 인재 양성 필요성
 - 기존의 '학과(부)·전공 중심주의'를 넘어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연한 대학 구조 조정
 -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 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학 구조 조정에 기여

전공자율선택제도

4) 전공자율선택제도의 부작용

- '전공 쏠림'
 - 학과 간 또는 전공 간 입학 성적 서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위권 학과' 또는 '상위권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기초 학문 분야의 위축 또는 고사
- '고등학교 4학년'
 - 전공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제한할 경우(ex. 전공별 상한선 설정) 인기 전공으로 진입하기 위해 '학점에 목매는 고등학교 4학년 현상' 발생 가능
- '서자' 취급
 - 학과(부)·전공으로 입학한 학생과 무전공 입학 후 전공 진입한 학생 간 정체성 차이
 - 무전공 입학 학생의 소속감 및 정체성 모호 (상대적으로 높은 중도 탈락율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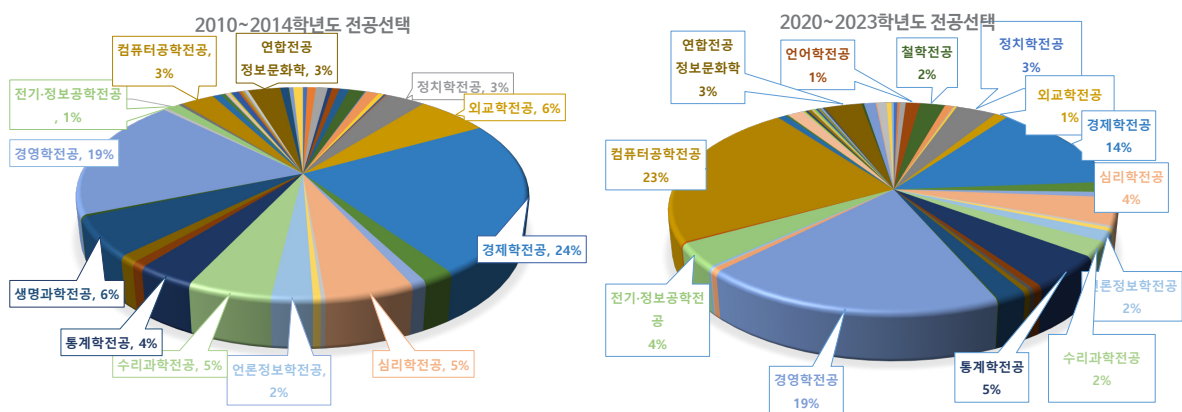
전공자율선택제도

5)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사례

- ❶ 학생 소속 자유전공학부로 유지
 - 학과(부)·전공 간 입시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공 선택 가능 → ‘쓸림’ 완화
 -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의 소속감 및 정체성 유지 → ‘상대적’으로 낮은 중도 탈락율
- ❷ 학점 제한 없는 자유로운 전공 선택
 - ‘고등학교 4학년 현상’ 발생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음
 -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전공 탐색 가능
- ❸ 독자적인 전공 교과과정 운영 및 다양한 비교과과정 운영
 - 소규모 토론 중심 수업(20명 내외) + 기초교육 + 팀프로젝트
 - 다양한 교과과정(융합, 자율연구/논문, 체험형 현장학습 교과목) 운영
 - 현장학습+스타트업 인턴십→타 단과대학에 비해 스타트업 창업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전공자율선택제도

- ❶ 서울대 자전 전공선택 현황: 컴퓨터공학·전기정보공학↑ 경제학·외교학·생명과학↓



전공자율선택제도

● 서울대 자전 전공선택 경향(2020~2024)

신청대학	2020		2021		2022		2023		2024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경영대학	52	14.9	59	18.6	56	19.6	35	18.3	13	16.5
공과대학	76	21.7	88	27.7	108	37.9	83	43.5	47	59.5
농업생명과학대학	7	2.0	2	0.6	1	0.4	-	-	-	-
미술대학	7	2.0	5	1.6	1	0.4	3	1.6	-	-
사범대학	1	0.3	-	-	-	-	-	-	-	-
사회과학대학	127	36.3	93	29.2	80	28.1	42	22.0	12	15.2
생활과학대학	3	0.9	-	-	3	1.1	1	0.5	-	-
음악대학	-	-	1	0.3	-	-	1	0.5	-	-
인문대학	21	6.0	15	4.7	4	1.4	6	3.1	2	2.5
자연과학대학	43	12.3	51	16.0	30	10.5	19	9.9	5	6.3
자유전공학부	13	3.7	4	1.3	2	0.7	1	0.5	-	-
전체	350	100.0	318	100.0	285	100.0	191	100.0	79	100.0

5.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

1) 환경 변화에 맞춰 고등교육도 변해야

- 📍 교과과정의 변화
 -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digital literacy'
 - 기초교양 및 'liberal arts' 교육의 강화
- 📍 교수학습법의 변화
 - '능동학습(active learning)',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 📍 전인 교육 강화
 - 소통 능력 + 협업 능력
-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공 교육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

2) 고등교육 예산 지원 확대 필요

- 📍 정부 재정지원 현황
 -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총 규모는 최근 5년간 13.7조원(2018년)에서 17.7조원(2022년)으로 연 평균 7.4% 지속 증가 추세
 - 그러나 국가 GDP 대비 **정부 고등교육 지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GDP 대비 1.0%)보다 낮은 수준 지속**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OECD 교육지표, '24) > (단위: %)

기준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2021년	한국	3.4	0.2	3.6	0.7	0.9	1.5	4.1	1.1	5.2
	OECD 평균	3.2	0.3	3.4	1.0	0.5	1.5	4.2	0.8	4.9

(자료 출처: 교육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2025~2029」)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

3) 고등교육 예산 지원 확대 필요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1년 기준)는 \$13,573으로 OECD 평균(\$20,499)의 66.2%에 불과함
- 반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1년 기준)는 각각 \$14,873과 \$19,299로 OECD 평균(\$11,902, \$13,324)을 넘어섬
 -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학생 공교육비가 초등학생 공교육비보다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 교육 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단위 : \$(PPP))

기준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2021년	한국	14,873	19,299	13,573	15,858
	OECD 평균	11,902	13,324	20,499	14,209

※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1년) 827.27원/\$

(자료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 결과발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

4) 고등교육 예산 지원 확대 필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2023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시도교육청을 통해 초·중·고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재정 중 일부를 대학에 지원
- 23년 9.7조원 규모로 신설되어 24년 15.3조원, 25년 16.7조원 규모로 확대
 -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등
- 장기적으로 일몰 조항 폐지하고 규모 확대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

- 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재 20.79%)을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배정하여 유·초·중·고 교육지원에 활용
- 대학에 교부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

마치며

질의 응답

마치며

감사합니다

발표 2

대학 재정 위기와 개선 방안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 전 경기대학교 부총장

대학재정 위기와 개선방안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심포지엄 발표자료
2025. 4. 17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채희울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한수

I. 서론

발표의 배경

대학 재정난 심화

재학생 수 감소
반값 등록금, 입학금 폐지
대학 재정지원 미흡
자율적 재정 확충 어려움



국가경쟁력 위축

대학사회 양극화 초래

발표의 주제

대학 재정 현황과 전망 개관
대학재정 개선방안 모색

목차

- I. 서론
- II. 대학재정 현황
- III. 대학재정 전망
- IV. 대학 구조조정 방안
- V. 대학재정지원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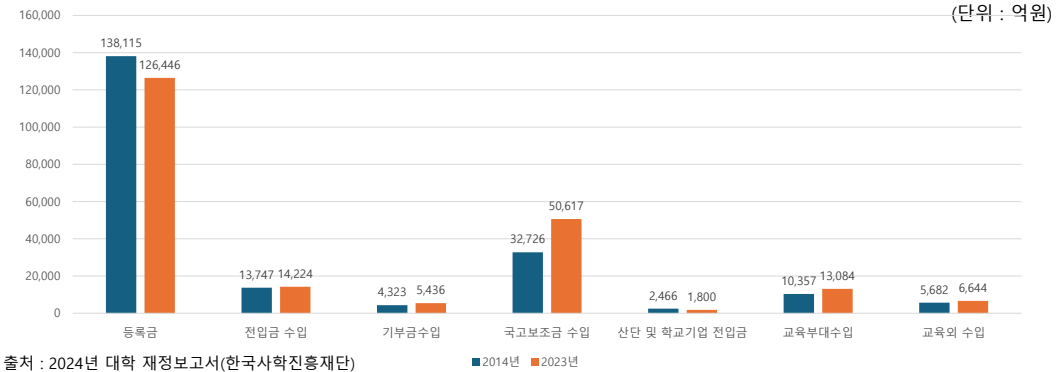
II. 대학재정 현황

2023회계연도 운영이익(손실) 현황						
(단위 : 학교 수)						
학교급	지역	구분	학교 규모			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운영이익	22	20	22	64
		운영손실	2	0	0	2
	비수도권	운영이익	27	32	16	75
		운영손실	12	2	0	11
전문	수도권	운영이익	3	13	17	33
		운영손실	3	5	1	9
	비수도권	운영이익	28	24	12	64
		운영손실	10	6	1	17
(주) 학교 규모						
일반대학 : 소규모 5,000명 미만, 중규모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대규모 10,000명 이상						
전문대학 : 소규모 2,000명 미만, 중규모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 대규모 4,000명 이상						
출처 : 2023회계연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2024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의 지표 산식에 따라 계산(이하 표는 별도의 연도 표시 없는 경우 2023 회계연도)						

-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 일반대학이 전문대학보다
- 대규모 대학이 중소규모대학보다 재정이 건전

II. 대학재정 현황

항목별 운영수입(2014년과 비교)



- 등록금수입 : 수입 중 가장 큰 비중, 2014년 대비 **8.4% 감소**
- 국고보조금수입 : 두번째로 큰 항목, 2014년 대비 **54.7% 증가**. 국가장학금 증가에 기인

II. 대학재정 현황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의존율

(단위: %)

학교급	지역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53.62	58.56	62.49
	비수도권	48.29	52.98	55.46
	차이	5.33	5.58	7.03
전문	수도권	58.32	61.27	61.83
	비수도권	53.06	57.79	58.62
	차이	5.26	3.48	3.21

(㉞) 의존율 : 등록금 / 운영수입 (영역별 합계 비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 등록금수입 의존율 : 수도권 > 비수도권,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등록금수입 의존율 최소 : 비수도권 소재 소규모 일반대학(48.29%)
- 등록금수입 의존율 최대 : 수도권 소재 대규모 일반대학(62.49%)

II. 대학재정 현황

대학원수입(대학별 평균)

(단위: 백만원)

학교급	지역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4,078 (24%)	11,787 (18%)	61,745 (30%)
	비수도권	1,937 (12%)	4,890 (9%)	12,513 (11%)
	차이	2,141	6,897	49,242

(주) 비율 : 대학원수입 / 등록금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 시사점

- 등록금 인상 제한 ⇒ 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적극적인 대학원생 유치로 수입 증대 가능
- 대학원생 수도권 쏠림 현상 발생 ⇒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여건 악화**

II. 대학재정 현황

기부금수입(대학별 평균)

(단위: 백만원)

학교급	지역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1,751	1,862	13,211
	비수도권	985	1,079	3,381
	차이	766	783	9,830
전문	수도권	1,012	375	425
	비수도권	110	189	300
	차이	902	186	25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 기부금수입 :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지 않으나 대학간 편차 큼. 규모 클수록, 수도권 대학일수록 많음
- 대규모 일반대학의 기업체 기부금 : 수도권 7,030백만원, 비수도권 816백만원
- 대규모 일반대학의 개인 기부금 : 수도권 3,761백만원, 비수도권 623백만원

II. 대학재정 현황

주요 항목별 운영지출 (2014년과 비교)

(단위: 억원, %)

항목	2014년	2023년	14년 대비 증감률
교원보수	70,785	71,156	0.5%
직원보수	20,364	23,846	17.1%
관리운영비	25,564	29,177	14.1%
운영비	7,479	7,727	3.3%
연구비	5,037	4,724	△6.2%
교외장학금	30,219	36,795	21.8%
교내장학금	26,272	23,765	△9.5%
고정자산매입지출	21,382	12,567	△41.2%

출처 : 2024년 대학 재정보고서(한국사학진흥재단)

- 교원보수 : 371억원(0.5%) 증가 ⇒ 교원 증가(전임 ↑, 비전임 ↓) + 보수 동결 ⇒ **우수 인력 유치 ↓**
- 연구비 : 313억원(6.2%) 감소 ⇒ **대학 연구 역량 약화**
- 고정자산매입지출 : 8,815억원(41.2%) 감소 ⇒ **전산 및 기자재 노후화**

II. 대학재정 현황

등록금 대비 필수 지출(보수, 일반관리비 및 시설관리비) 비중

(단위: %)

학교급	지역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108.82	95.99	89.07
	비수도권	108.91	94.76	95.74
	차이	(0.09)	1.23	(6.67)
전문	수도권	124.43	88.75	77.31
	비수도권	92.53	80.88	80.49
	차이	31.90	7.87	(3.18)

(※ 비중 : (보수 + 일반관리비 + 시설관리비) / 등록금수입)

- **100% 초과** (등록금수입으로 필수 지출 보전도 할 수 없음을 의미)
67개교로 주로 소규모 일반대학(수도권, 비수도권)
- **대학규모 클수록 비율 낮음** ⇒ 대학 운영에 규모의 경제 존재함을 드러냄.
대학 간 통합합 필요성 시사

II. 대학재정 현황

연구비

(단위: 백만원)

학교급	지역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일반	수도권	308	1,918	11,561
	비수도권	626	1,929	3,867
	차이	(318)	(11)	7,694
전문	수도권	11	116	220
	비수도권	12	32	47
	차이	(1)	84	173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 대규모 일반대학 연구비 비중(국가장학금 제외 운영지출 대비)

수도권(4.74%) > 비수도권(2.70%) : 비수도권대학 연구 경쟁력 저하 시사

II. 대학재정 현황

이월금 잔액이 없는 대학 수

(단위: %)

학교급	지역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합계
일반	수도권	5	0	1	6
	비수도권	7	1	0	8
	소계	12	2	1	14
전문	수도권	2	3	0	5
	비수도권	7	2	1	10
	소계	9	5	1	15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 29개교 : 등록금수입 감소 ⇒ 경영위기 발생이 유력

- 적지 않은 대학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 시사

II. 대학 재정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 구성 : 토지(63.4%) > 건물(17.2%) > 신탁예금(10.0%) > 유가증권(9.1%)
- 수익률 : 건물(10.5%) > 유가증권(3.7%) > 신탁예금(1.7%) > 토지(0.8%)

[일반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구성 및 수익률(2023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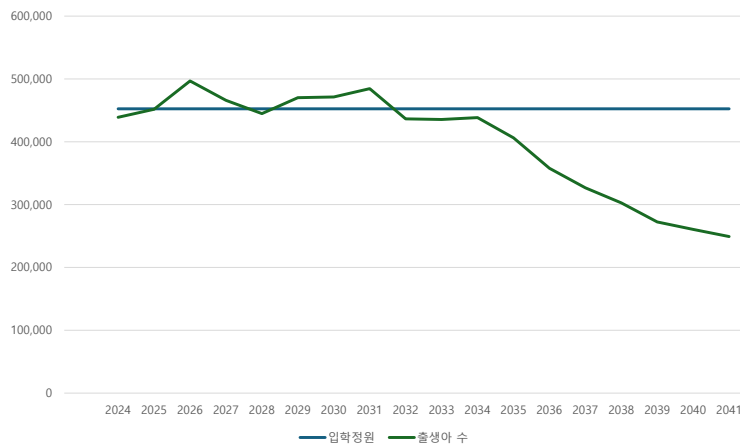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토지	63.2	0.20	63.6	2.21
건물	17.2	10.23	17.2	10.99
유가증권	10.7	3.12	5.7	5.93
신탁예금	8.4	1.69	13.3	1.83
계	100.0	2.37 (평균)	100.0	3.98 (평균)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저수익률 토지로부터 건물 등 고수익률 재산으로 전환 필요성 시사

III. 대학재정 전망

전체 대학 연도별 미충원 인원 변화: 2023년 입학정원과 19년전 출생아 수 차이



출처 : 대학알리미

III. 대학재정 전망

미충원비율에 따른 운영손익의 추정 방법

추정 운영이익(손실) = 2023년 운영이익(손실) - ① 운영수입 감소 + ② 운영지출 감소

① 운영수입 감소 = (학부생수업료+국가장학금+예금이자수입)×미충원비율

② 운영지출 감소 = (교외 및 교내장학금 + 실험실습비 + 학생지원비 + 기타학생경비)×미충원비율

- 미충원비율은 기준년도(2023년) 재학생 대비 미충원 인원의 비율

가정

- ①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학교법인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수입(국가장학금 제외) 변동 없음
- ② 구조조정을 통한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없음
- ③ 구조조정을 통한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비의 변동은 없음

III. 대학재정 전망

[미충원비율 증가에 따른 운영손익 추정]

(단위 : 학교 수)

구분	지역	2023년		5% 증가		10% 증가		15% 증가	
		운영이익	운영손실	운영이익	운영손실	운영이익	운영손실	운영이익	운영손실
일반대학	수도권	64	2	51	15	31	35	22	44
	비수도권	75	14	68	21	53	36	32	57
전문대학	수도권	33	9	24	18	15	27	5	37
	비수도권	64	17	44	37	27	54	15	66
계		236 (85%)	42 (15%)	187 (68%)	91 (32%)	126 (45%)	152 (55%)	74 (27%)	204 (73%)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 효과가 비수도권에 집중한다면 손실 보고 대학이 비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IV. 대학 구조조정 방안

대학 구조조정의 골든 타임은 향후 5년 이내

① 5년 이내 퇴직 교원 다수 발생 :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 원활

② 자유전공제 확대 : 학과 또는 전공의 구조조정 원활

1.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도입

① 회생 가능 경영위기대학: 적립금 활용 및 재산 처분 기준 완화

② 통폐합 또는 폐교 직면 대학 :

잔여재산 중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장려금으로 지급(부정/비리 발생 시 제외).

학교법인 청산으로 잔여재산 국고귀속 시 사학진흥기금으로 편입해 사립대학 발전 용도로 사용

IV. 대학 구조조정 방안

2. 대학 간 학부 단위 양도·양수 허용

• 분할매각의 허용

- 경쟁력 없는 학과(전공)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폐과보다는 다른 대학에 양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책
-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은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추진할 필요

• 일본사례 참고

- 일본의 경우 2019년 5월 「사립학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부 설치자 변경 절차”만으로도 사립대학 간 학부 단위 양도를 통한 통폐합을 허용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 학령인구 급감, 지방 중소 사립대의 경영위기 심화 등 현상이 일본 대학 구조개혁의 배경 -> 한국과 유사

V. 대학 재정지원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1. 대학 재정지원의 현황(1)

연도별 정부 총 예산 대비 교육예산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	64.3 (15.0)	70.5 (14.9)	70.9 (12.9)	77.4 (12.9)	95.0 (14.2)	96.3 (15.1)	89.8 (13.7)
전체	427.5 (100.0)	473.9 (100.0)	549.5 (100.0)	598.5 (100.0)	670.8 (100.0)	638.7 (100.0)	656.6 (100.0)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 2024년 예산

출처: 한국재정정보원 2024 주요 재정통계

V. 대학 재정지원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1. 대학 재정지원의 현황(2) - 고등교육예산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초·중등교육	453,423 (81.9)	489,373 (82.7)	537,358 (83.5)	593,827 (84.2)	588,358 (83.0)	650,776 (84.1)	815,891 (85.9)	809,120 (84.0)	737,290 (82.1)
고등교육	92,712 (16.7)	94,534 (16.0)	96,978 (15.1)	101,404 (14.4)	109,142 (15.4)	110,743 (14.3)	120,757 (12.7)	137,045 (14.2)	146,713 (16.3)
평생·직업교육	6,543 (1.2)	6,936 (1.2)	7,805 (1.2)	8,778 (1.2)	10,139 (1.4)	11,435 (1.5)	11,707 (1.2)	15,032 (1.6)	12,636 (1.4)
교육 일반	1,038 (0.2)	1,078 (0.2)	1,270 (0.2)	1,291 (0.2)	1,258 (0.2)	1,307 (0.2)	1,333 (0.1)	1,533 (0.2)	1,578 (0.2)
합계	553,716 (100.0)	591,921 (100.0)	643,411 (100.0)	705,300 (100.0)	708,898 (100.0)	774,260 (100.0)	949,688 (100.0)	962,730 (100.0)	898,217 (100.0)

주: 2016년도~2022년도의 경우 결산 기준, 2023년, 2024년도 본예산 기준

출처: 한국재정정보원 2024 주요 재정통계.

V. 대학 재정지원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1. 대학 재정지원의 현황(3)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과거와 현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연구	연구역량 강화 •BK21 (1,851억/438개단)	•1단계 BK (2,810억/569개단)	•2단계 BK (2,031억/500개단)	•BK21 플러스 (2,725억/545개단)	•4단계 BK21 (4,080억/578개단)	•4단계 BK21(5,287억) •대학혁신지원(8,852억)
교육	특성화 •대학다양화 특성화지원 (630억/33개교)	•수도권NURI (600억/30개교) •지방대NURI (2,594억/131개단)	•수도권교육역량강화 (570억/35개교) •지방대교육역량강화 (1,241억/62개교)	•수도권CK (542억/79개단) •지방대CK (1,925억/258개단) •ACE (594억/32개교) •PRIME (2,012억/21개교) •CORE (600억/19개교) •We-Up (50억/10개교) •평생교육단과대학 (300억/97개교)	•대학혁신지원 (6,951억/143개교) •평생교육체제지원(241억/30개교) •국립대학육성(1,500억/39개교) •RIS(1,710억/3개 플랫폼) •디지털혁신공유대학(832억/48개교)	•지방대 활성화(2,375억) •LIFE(510억), HIVE(900억) RISE 통합 •국립대학육성(5,722억) •RIS(3,420억) •LINC+(3,025억)
사회수요			•ACE (600억/25개교)			
산학	산학협력 •산학협력 중심대학 (300억/23개교)	•LINC (1,800억/81개교)	•LINC (2,240억/57개교)	•LINC+ (2,557억/75개교)		

V. 대학 재정지원 개선 방안

2. 대학 재정지원의 문제점(1) - 열악한 일인당 대학교육비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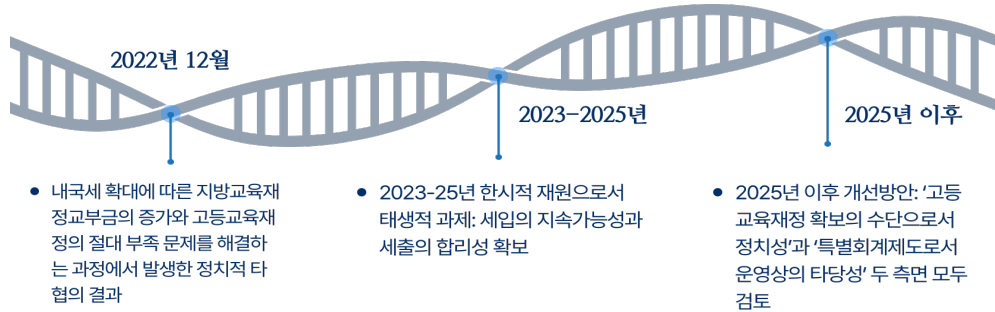
학생 1인당 교육비 (11,287USD/PPP) - OECD 평균(17,559USD/PPP)의 64.3% 수준 - G7 평균의 50.4%, 30위(36개국)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26.2%) - OECD 평균의 70.2%, 34위(36개국)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교육비 - 고등교육(84.6) < 초등교육(100.0) < 중등교육 (128.0) * OECD 국가: 초등교육(100.0) < 중등교육(114.9) < 고등교육 (177.0)	10년 전에도 같은 고민, - 2008년 = 2018년 66.2% 수준, 2019년 64.3% - 경제수준 대비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2008년 10%p 이상 낮아짐

V. 대학 재정지원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2. 대학 재정지원의 문제점(2) - 한시적 재원으로서는 고등교육특별회계의 한계

[국가재정법 제14조의 특별회계 설치 요건]

- ①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 ②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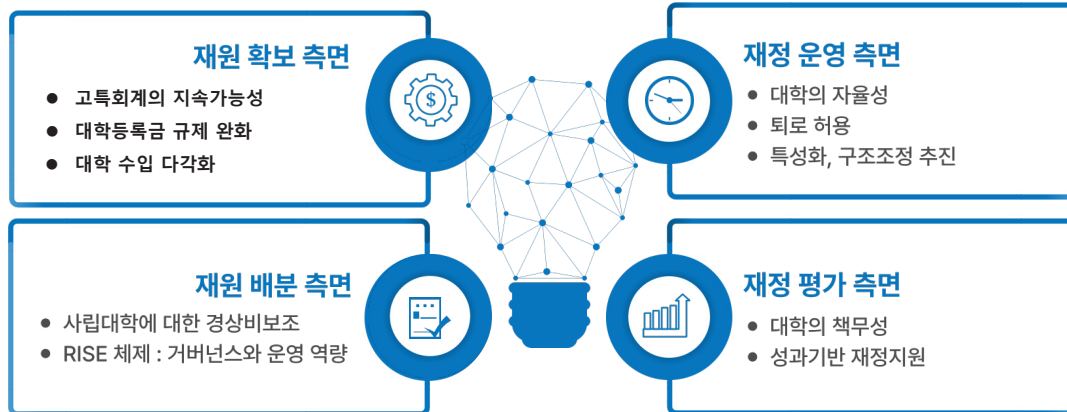
V. 대학 재정지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2. 대학 재정지원의 문제점(3) - 재정지원사업

-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자율집행 권한 미흡
 - 일반재정지원제도는 재정집행 관리제도에 의해서 경상비 등에 대한 자율집행 권한에 제약을 두고 있어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재정 부족 완화에 한계
-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미흡
 - 고등교육 질 관리 및 성과관리를 위한 인프라 미흡
 - 행재정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미비
 - 종합적 성과지표 미비
- 중앙집중적 재정지원사업 거버넌스의 한계
 - 재정지원사업의 성격과 지원 요건 등이 획일화

V. 대학 재정지원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3. 대학 재정지원의 개선방안(1) - 개요



V. 대학 재정지원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3. 대학 재정지원의 개선방안(2) - 고등교육특별회계 개선

-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특회계법 개정은 물론이고, 고등교육법도 개정해서 고특회계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
- 추가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초중등예산의 일부를 끌어 오는 것이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20.79%)의 일정 부분을 고특회계로 전입
 - 국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액 제외한 금액의 50%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점차 100%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출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은 부적절
 -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상황이 중장기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V. 대학 재정지원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3. 대학 재정지원의 개선방안(3) - 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 대학에 일정 기준에 따라 경상비를 지원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후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
 - 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 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경상비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 시장을 능가하는 급여 제공 가능해져야 대학이 인재를 교수로 초빙 가능
- 해외 사례
 - 일본의 경우 법인화된 국립대 **운영비교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도 경상비 보조금과 사립학교 시설정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용도를 각 **대학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
 - 다만 일정 주기의 대학평가에 경상비 보조금 지원을 연계
 - 핀란드는 국립대학 체제인데 정부가 대학에 대해 **경상비에 해당하는 핵심예산을 지원하며**, 이것이 대학들의 운영예산의 50% ~ 70%를 차지
 - '핵심예산' 지원금 규모는 대학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 성과를 기준으로 결정
 - 총액으로 지원되는 핵심예산에 대해 개별 대학들은 자유롭게 지출항목이나 규모를 결정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1. 대학 조세제도의 현황(1) - 조세 원칙

- 학교법인은 사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 주체이며 사립대학이 보유한 재산의 권리 주체임.
- 대학법인을 포함한 학교법인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됨.
 - 원칙적으로 대학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의 납부의무를 지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됨.
- 국공립학교는 법인이 아니며 대표자가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도 아니고, 단지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기에 행위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부 등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 대학법인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되며 각 회계별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2. 대학 조세제도의 문제점 - 상대적으로 미미한 조세지출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일반지방행정	2.3	2.9	3.2	4.6	5.4	6	6.5	12.2
통일외교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2.4
국방	0.7	0.03	0.03	0.03	0.03	0.02	0.02	△31.1
교육	1.3	1.4	1.4	1.0	1.0	1.0	1.1	△1.9
문화관광	0.01	0.04	0.04	0.03	0.04	0.1	0.1	27.4
환경	0.7	1.3	1.3	1.5	1.8	1.8	1.9	11.3
사회복지	9.4	17.4	18.7	20	21.1	22.9	24.7	11.3
보건	4.1	6.8	7.5	7.9	9.1	10.6	11.1	11.6
농림수산	5.4	5.7	5.9	6.4	6.2	6.1	6.4	1.9
산업중소기업	10.7	12.4	13.3	14	17.1	19.2	23.6	9.2
교통및물류	0.6	0.5	0.5	0.5	0.6	0.6	0.6	0.8
국토지역개발	0.7	1.2	1.1	1.1	1.2	1	1.1	5.1
과학기술	0.004	0.003	0.01	0.01	0.01	0.01	0.01	12.5
전체	35.9	49.6	52.9	57	63.5	69.5	77.1	8.9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5~2024년)

조세지출이란?
특정분야의
조세 우대 또는
감면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조세지출예산분석, p.10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3. 대학 조세제도 개선방안(1)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에게도 토지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함.
 - 저수익 자산을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비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
 - ▶ 학교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을 학교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용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비가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양도차액을 교비회계에 전출하지 않고 법인회계 내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
- ✓ 양도차액을 교비회계에 전출하지 않고 법인회계 내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 ✓ 교육부는 추가로 이러한 변경을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제고 도모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3. 대학 조세제도의 개선방안(2) - 기부금 비과세

- 기업 및 영리법인(학교법인 전액출자)의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 유인이 감소하게 됨.
- 기업의 대학에 대한 법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을 100% 인정하던 조세특례법상의 한시적 특례규정이 폐지되고, 2011년 1월부터 기업 및 영리법인의 법정기부금 손금 인정이 50%로 대폭 축소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감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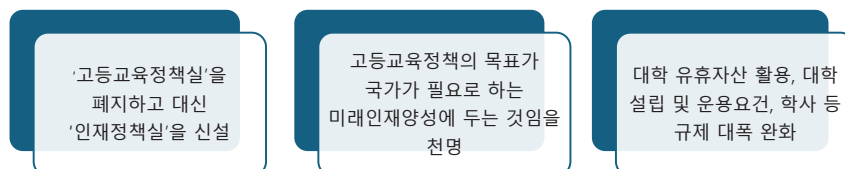
➡ ✓ 2011년 이전과 같이 사립대학에 대한 법정기부금 손금 인정을 100%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4. 대학규제의 패러다임 변화

대학의 역할 및 교육의 성격 변화	대학교육에 대한 국제적 경쟁 심화	한국 대학이 처한 현실
AI 등 새로운 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 등으로 지식 생산 및 전달 방식의 변화	지나친 규제는 대학의 역량 낭비를 초래하고 자율적인 변화를 도모하는데 부적합	대학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이 스스로 재정을 효율화·확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성 증중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 대학규제 완화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5. 반값 등록금 정책(1)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사립대학 수입구조 및 지출구조의 주요 변화

연도	자금수입 총계	운영수 입	등록금수입(a)	국가장학금(b)	부담 경감률(b/a)
2011	177,127	149,664	111,313	74.40%	4.59%
2012	181,020	156,275	108,570	69.50%	11.63%
2013	183,191	159,530	108,166	67.80%	16.92%
2014	189,707	163,863	108,815	66.40%	17.97%
2015	188,874	166,558	108,098	64.90%	19.79%
2016	187,316	167,407	106,266	63.50%	20.24%
2017	188,110	167,440	105,498	63.00%	20.58%
2018	185,133	166,953	105,228	63.00%	20.67%
2019	186,132	166,769	105,106	63.00%	19.87%
2020	186,132	166,769	105,106	63.00%	19.87%
2021	183,801	163,165	102,007	62.50%	20.74%
2022	189,583	170,248	101,520	59.60%	23.26%
2023	197,063	179,547	98,837	55.05%	22.59%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연도	자금지 출총계	운영지 출	보수	연구비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2011	177,128	126,682	67,079	53.00%	5,402
2012	181,021	137,282	70,102	51.10%	5,350
2013	183,191	145,211	72,597	50.00%	5,148
2014	190,733	151,724	74,374	49.00%	4,863
2015	188,874	155,026	76,199	49.20%	4,669
2016	187,316	155,928	76,588	49.10%	4,617
2017	188,110	158,133	77,978	49.30%	4,472
2018	185,133	158,063	78,645	49.80%	4,261
2019	186,132	155,363	77,418	49.80%	4,111
2020	186,132	155,363	77,418	49.80%	4,111
2021	183,801	153,456	77,813	50.70%	4,212
2022	189,583	159,362	78,426	49.20%	4,429
2023	197,063	164,128	79,379	48.38%	4,632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었으나 대학 교직원들의 보수, 연구비 비중을 축소하여 대학경쟁력을 약화

5. 반값 등록금 정책(2) - 정책방안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에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자체노력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연계하는 한국장학재단의 기존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을 수정

-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두고 있는 i) 정보공시 상 평균등록금 전년 대비 인하 또는 동결 ii) 전년 대비 1인당 교내 장학금의 유지 또는 확충 등 두 가지 조건 중 ii) 조건만 유지하도록 개선
- 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자체를 폐지하고 I 유형과 통합

- 다만 아직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포함한 등록금 책정 방식에 관한 규정은 당분간 유지

OECD 국가별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 (단위: \$ (PPP))

연도 (발표연도)	발표국	등록금 추정치 0인 국가 제외 평균	한국	호주	칠레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2011 (2013)	11개국	7,681	7,681	9,383	10,110	6,230	5,322	-	4,406
2019 ³⁾ (2022)	17개국	7,309	8,875 ⁰⁾	8,621	9,239 ²⁾	7,203	9,281	4,228	7,237
증감	-	△372	1,194	△762	△871	973	3,959	-	2,831

연도 (발표연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멕시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2011 (2013)	8,039	-	-	-	5,868	-	17,163	5,684	1,242	11,040
2019 (2022)	8,741	5,185	3,747	4,411	5,620	10,344	31,875	-	-	-
증감	702	-	-	-	△248	-	14,712	-	-	-

출처: 최해인, 「고등교육재정지원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11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6. 교지, 교사 및 대학 자산 규제(1)

최근의 규제완화
① 2023.09.12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② 2016.05.03 산업체 이용 교사면적의 허용범위 확대 ③ 2020.08.09 분리된 교지의 동일 교지 인정 확대 ④ 2023.07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한 서울시 소재 대학 건축규제 완화 ⑤ 2022.06.15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의 개정을 통해 대학 자산활용 규제 완화 ⑥ 2023.06.13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과 9월 1일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고시」를 통해 유 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또는 담보 제공) 허용
남아 있는 문제점
①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부터의 수익률 제고 필요성 ② 대학 설립자의 자발적 구조조정 인센티브 취약 ③ 학교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업종 제한 논거 취약 ④ 대학교지가 자연녹지, 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 겪는 경 우 다수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6. 교지, 교사 및 대학 자산 규제(2)- 정책방안

- 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부터의 수익률 제고
- ②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③ 대학 내 설치 가능한 업종 규제 완화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를 원칙 허용, 일부 불허 방식의 규제 (Negative 방식)로 전환
- ④ 대학교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재고
 - 교육당국은 대학교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에 관하여 전수조사한 후 개발제한 지역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 지정 해제를 추진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7. 국제화 관련 규제(1)

규제 현황
①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서는 2011년 신입생부터 외국인 유학생(한국어연수기관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은 제외)의 국내 대학 입학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을 요구 ② 2019년부터 국제화역량인증제를 통해 기본요건 및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 ③ 유학생 비자 유지를 위한 재무적 요건 엄격 ④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국내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대학법인에 한정
문제점
① 유학생 비자제도의 경직성 ② 국제화역량인증제 기준 재검토 필요성 ③ 해외 유학생 유치에 필요한 홍보, 입학 지원과 사정, 학사제도 등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법과 제도가 미흡 ④ 국외분교 설치 여력이 있는 대학법인은 소수 ⑤ 국외분교 설립에 비해 재원조달의 제약이 덜 까다로운 국외캠퍼스 설치에 관련 법령이 미비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7. 국제화 관련 규제(2) - 정책방안

①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

-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 완화를 지속
 - 교육국제화인증제를 합리적으로 개편
 - 비자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비자제도 도입
-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
 - 현지에서 한국어학당을 확대 운영하고 유학생 대상 한국에서 증점 한국어 교육 과정 운영
 - 정부 주도의 한국 대학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선진국/개도국 대상 맞춤형 유학생 유치정책 개발

②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확대

- 현재 관계 법령에 그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해외캠퍼스 설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 「고등교육법」 제4조에 학교를 국외로 위치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는 별도의 항을 추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도 개정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8. 거버넌스 관련 제도(1)

제도 현황
① 사립대학 법인이사회의 비리 혹은 비효율성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③ 국공립대학 통폐합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취약
문제점
① 대학재정난으로 대학 설립자 내지 경영인이 투입한 자본을 무리하게 회수하기 위해 불법·편법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③ 국립대학 간 자발적 통폐합 등 구조조정 모색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8. 거버넌스 관련 제도(2) - 정책방안

① 사립대학 법인이사회의 책무성·투명성 강화

- 현재 사립학교법에 거의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원의 책무에 관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상법 상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와 제3자 배상책임 의무를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대학 임원에게도 명시적으로 적용
- 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제척 사유에 대해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
 - 이사가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결은 물론 참석도 배제하도록 규정할 필요
- 법인의 주요 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화
 - 대학법인은 그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 행위), 기부 등에 관한 정보를 그 사유가 발생한 일정 기간 내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
 - 대학평의위원회가 그 내용에 대해 추가적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을 의무화

VI. 대학 조세제도 및 규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8. 거버넌스 관련 제도(3) - 정책방안

② 국공립대학 통폐합 촉진

- 국공립대학 통폐합 촉진을 위해 글로벌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향후 국공립대학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연하고 다양한 모형의 통폐합정책을 제시하고 통폐합을 촉진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프랑스에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 통폐합 모델로 협의체(Association), 공동체(COMUE), 통합(Fusion), 시범 공공기관(EPE)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이 이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공립대학 통폐합 모델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통폐합 모델을 제시하고 보다 명시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발표 3

고등교육 혁신과 정부의 역할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고등교육 혁신과 정부의 역할

배상훈 교수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무처장)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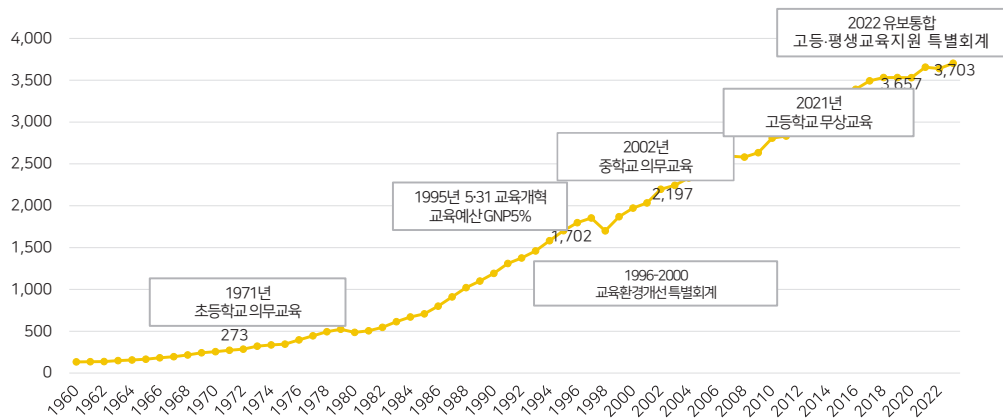
- I. 왜, 교육인가?
- II. 고등교육 혁신과 정부 역할
- III. 결론: 대학과 교육부

I. 왜, 교육인가?

3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 힘으로 발전한 나라 (Sequential investment)

실질국민총소득(GNI) 단위: 만원



4

경제 발전과 교육

	경제 체제	교육 투자
'60-'70년대	• 노동집약 경제 • 경공업	• 초등학교+중학교 확충 • 기초 문해력 → 양질의 노동력
'70-'80년대	• 산업 구조조정 • 중화학 공업 시대	• 고등학교 진학 증가 • 특성화고 직업교육 → 숙련된 노동자
'90-2010년	• 지식기반 경제 시대 • 세계화, 정보화	• 고등교육 팽창 • R&D → 지식기반사회
2010-현재	• 제4차 산업혁명시대 • 디지털 대전환	• 대학 혁신 → 창의, 융합, 문제 해결력 • 평생학습 (up-skilling, re-skilling)

5

세계가 인정한 한국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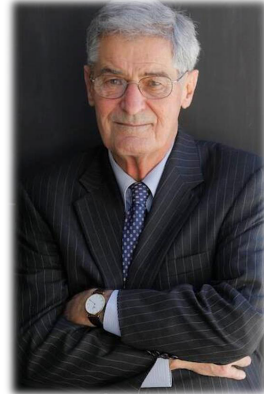
*In South Korea,
teachers are known as nation builders.*

6

경제 이론을 구현한 나라?

내생적 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

- 경제성장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결정적 역할
- 인적자본의 질적 성장 : 기술 발전과 생산의 효율성을 촉진
- 인적자본의 축적은 교육(*schooling*)을 통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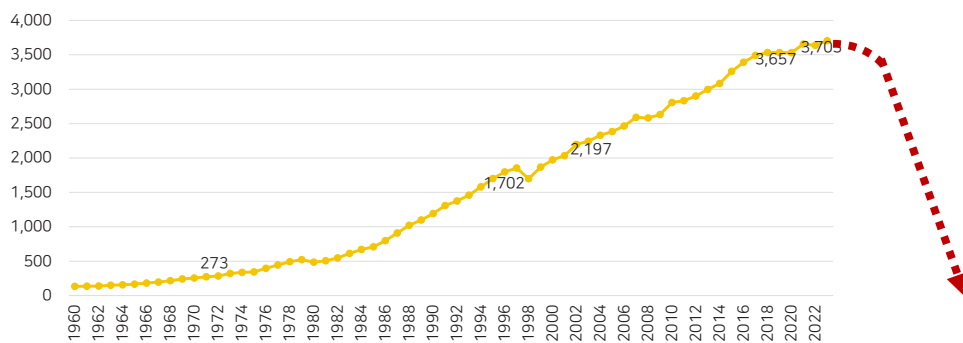


Robert E. Lucas, Jr.
1995 Nobel Prize for Economics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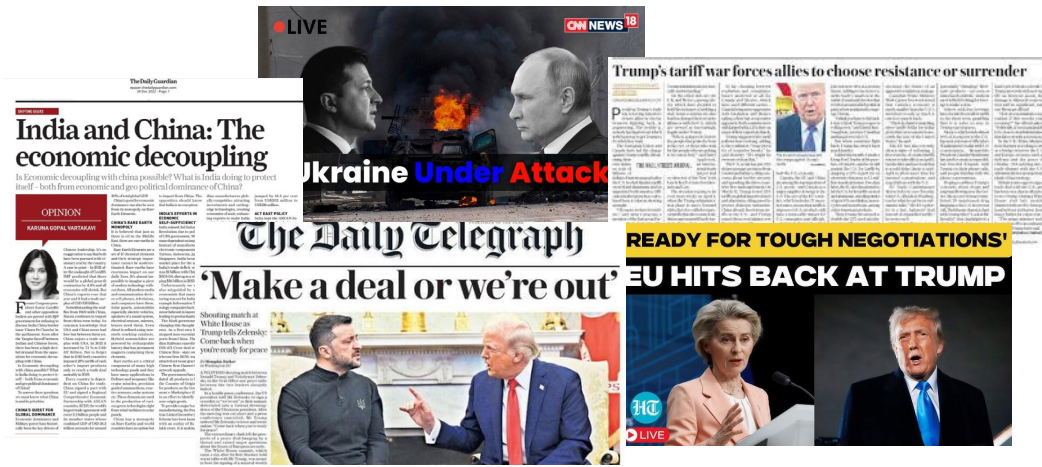
하지만, 이대로 가다 가는 후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실질국민총소득(GNI) 단위: 만원



8

세계 질서: 공존에서 경쟁으로 resistance or surrender?



초저출생과 인구충격

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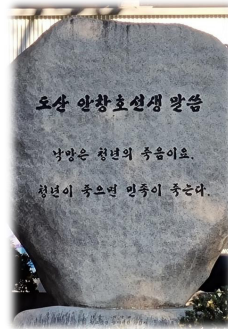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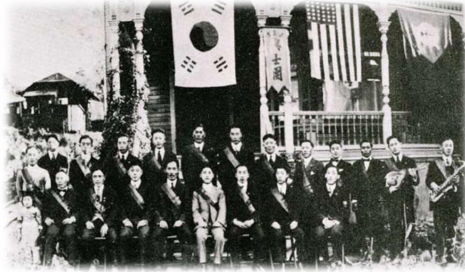


출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2020). 2024 인구보고서.



110년 前 교훈: 도산 안창호 “실력양성론, 무실역행”

흥사단 창립과 교육운동 (1913. 5. 13. 미국 샌프란시스코)



나라는 결코 말로써 독립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국민 각자의 실력을 길러서, 실력으로써 독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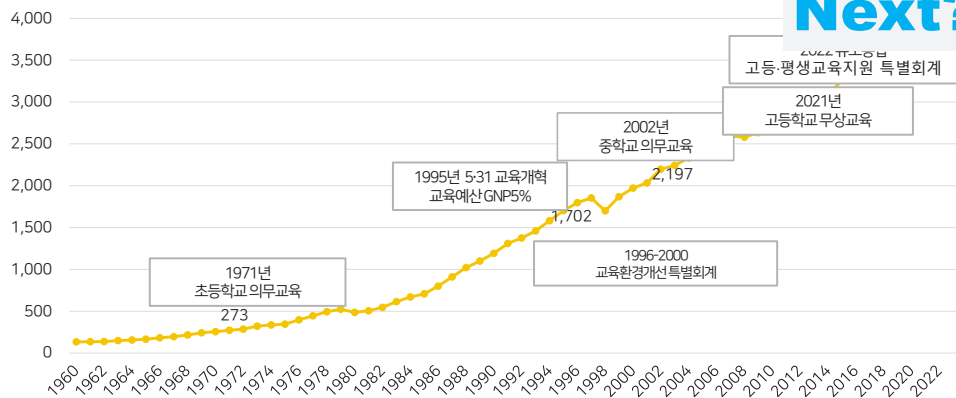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힘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고 만일 힘이 없으면 도무지 일은 하나도 이를 수가 없다.

11

무엇을 할 것인가?

실질국민총소득(GNI) 단위: 만원



Next?

12

II. 고등교육 혁신과 정부 역할

13

II. 고등교육 혁신과 정부 역할

1. 고등교육에 대한 관점 전환

14

30년 前, 5.31 교육개혁

김영삼 대통령 (1995.5.31)

- 교육이 전부입니다.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나라가 절대 잘될 방법이 없습니다.
- 우리가 21세기 세계 중심 국가로 다가가기 위한 세계화는 교육개혁으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5

30년 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



16

초·중등교육보다 낮은 대학생 교육비

- OECD 37개국 中
-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

	초등	중등		고등
한국 ★	\$12,535	\$14,978	>	\$11,290
OECD	\$9,550	\$11,192	<	\$17,065
EU 평균	\$9,601	\$11,404	<	\$16,986
최상위국	\$21,143	\$25,412	<	\$47,694

출처: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19

선진국(세계 10대 경제력) 답지 않은 고등교육 투자

- 학생 1인당 교육비 : OECD 평균 66% 수준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 OECD 평균보다 낮은 0.6% 수준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 (단위: %)

★	한국	OECD
정부재원	0.6	1.0
민간재원	1.0	0.4
합계	1.6	1.4

출처: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 OECD 평균 1.0% 수준 : 추가 10조원 규모
 - 2025년 지방교육재정: 70조원 규모
 - 법적 근거 마련: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국세분 교육세 활용

20

'개발시대'에 머문 한국 대학

	개발 시대 대학	선진형 대학
교육관	- 엘리트 교육관 - 공급자 중심	- 고등교육 대중화 - 학생성공(student success)
교육내용	지식과 기술	- 대학경험 (Total college experiences)
교육방식	평균(average) 시대 (획일, 표준)	개성(Individuality) 시대
대학역할	수업 중심	- High Impact Practices - 진로, 글로벌, 건강, 스포츠, 공동체
캠퍼스	네모난 교실, 공장형 대학	다양한 학생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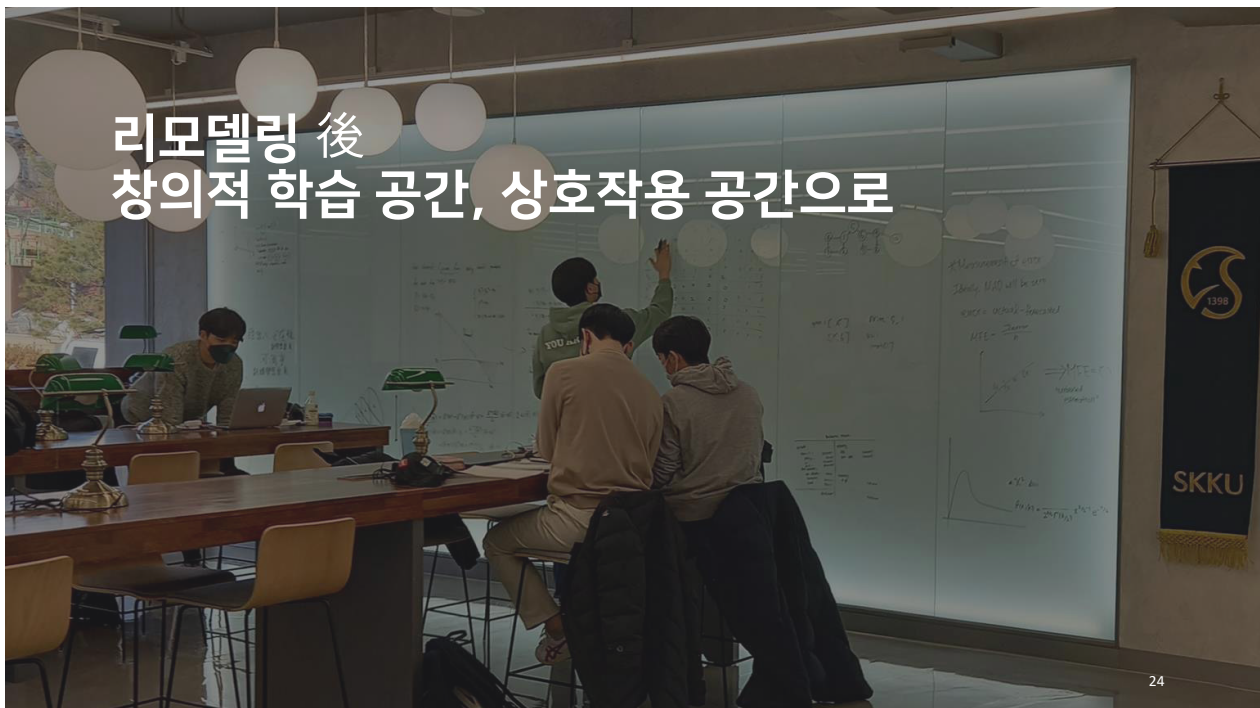
21

선진형 대학: 학생성공(Student Success)

- 다양한 학생 서비스, 전용 공간 (독립 빌딩)
- (독립 건물) 교수학습센터, 학생 건강증진 센터, 장애학생 이동 서비스, 야간 스포츠 활동 등



22





국가 교육재정 재구조화

- 교육단계별 : 초·중등교육 → 고등교육, 유아, 평생학습으로 확대
 - 학교와 대학 : 원-원 모델 (예: 지방교육재정의 일부 → 입학사정관 지원 예산 활용)
- 주체별 분담
 - 중앙정부, 학부모 → **인재 수요자 (기업, 지자체)**
- 부처 간 시너지
 - 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부) + 폴리텍 대학 (고용노동부)
 - 평생직업훈련: 평생학습 바우처(교육부) + 직업훈련 바우처(고용노동부)
- 대상별 투자 전략
 - **수도권 대학, 연구중심대학 : 자율 확대** (등록금, 자립대학)
 - **지역 대학, 교육중심대학, 전문대학 : 정부지원 확대**

인재양성과 기업의 책임

첨단 산업인력은 누가 더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나

삼성 SW 아카데미



27

II. 고등교육 혁신과 정부 역할

1. 고등교육에 대한 관점 전환
2. 국가 교육재정 재구조화
3. 대학 구조개혁

28

앞으로, 대학이 맞이할 세상: 100만 → 20만 수험생 시대

2023년 출생인구	X	평균 대학진학률	=	2041년 고3 (입학자원)
230,000명		70%		161,000명 (+N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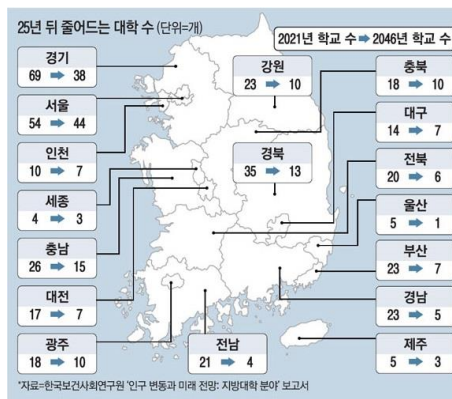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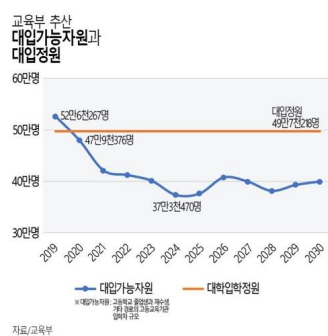
* 수도권 대학 정원('21년 기준): 190,066명

• 두 가지 시나리오

- **대학**: 대학이 학생을 뽑던 시대 →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로
- **국가**: 충원 위기 → 재정 압박 → 대학 경쟁력 상실 → 기업, 지역, 국가 경쟁력은?

29

고등교육의 판도가 바뀐다



30

정부 역할: 대학 구조개혁

- (중앙정부) 특성화 유도과 한계 대학 정리: 단계적 회생 or 퇴출 방안 마련
 - (1단계) 혁신의지 있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마중물 펀드' 지원
 - (2단계) 회생 불가능 대학: 평생학습기관 등으로 전환
 - (3단계) 한계 대학: 재정 기여자에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 지역대학에 대한 역할과 책무 강화
 - 지역의 산업특성에 부응하는 대학 특성화
 - 지역정주에 초점: 전문대학과 중견기술 인력 양성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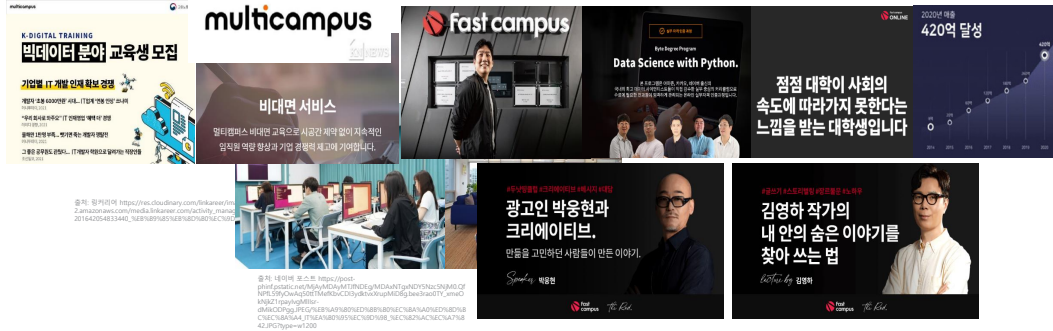
II. 고등교육 혁신과 정부 역할

1. 고등교육에 대한 관점 전환
2. 국가 교육재정 재구조화
3. 대학 구조개혁
4.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과 규제개혁

32

새로운 교육 생태계의 등장

다양한 교육 공급자 : 학습사회 (Learning society)



33

국경 없는 학습 시대

- 서울에서 듣는 UCLA 교수 강의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저자)
- Zoom으로 연결된 해외대학과 공동강의, 공동 프로젝트



34

MOOCs 시대 : University of Everywhere

Building the digital higher education platform to rule them(colleges & Universities) all.



매년 5만 달러를 내고 받는 학점을 무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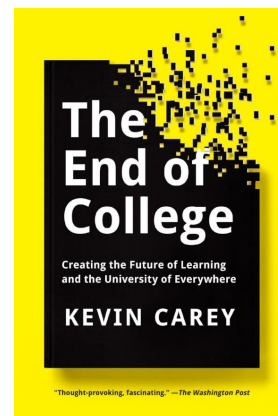
누구나 어디서든 모든 분야의 교육을

35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가 펼쳐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대학만이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는 문화적 신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대학들은 관행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경쟁자가 비효율을 파고들며
위기에 빠뜨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화도 꾀하지 않는다.



36

정부 역할 1.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과 규제 혁신

- 법령을 바꾸지 않는 규제혁신은 지속가능성 없는 말잔치
- 규제방식의 전환: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
 - 일괄 규제/선택적 허용 → **일괄허용/선택적 규제**
-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완화
 - 대학 설립·운영 규정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개선
 - 창의로운 대학 혁신모델 창출 (캠퍼스없는 대학, 찾아가는 대학)
 - **민간 교육 공급자와 공정한 경쟁 구도** 제공
- 일정 요건, 책무성을 갖춘 대학 → **자립대학** 지정
 - 첨단 분야에 대한 학과 개설 및 (한시적) 정원 확대 허용

37

정부 역할 1.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과 규제 혁신

- 유연한 고등교육 체제를 허용하는 법 체제
 - 학생 : 재직자, 성인학습자 학점 등록제 등 학생의 정의가 바뀐다
 - 교수와 수업 : 온라인 수업 확대, 학습장 규제 등
 - 학사, 대학경영 : 학기제, 4년 총장 임기, 대학 시설 활용
-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정립
 -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책무성
 - 부실대학 회생, 퇴출 관련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새로운 교육 생태계에 부응하는 규범 창출
 - 학교 밖 학습경험과 성취의 인증과 유통 체제 (디지털 배지, 포트폴리오)
 - AI 활용 관련 연구 윤리와 규범

38

II. 고등교육 혁신과 정부 역할

1. 고등교육에 대한 관점 전환
2. 국가 교육재정 재구조화
3. 대학 구조개혁
4.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과 규제개혁
5. 대학평가 혁신

39

오히려, 경쟁력을 낮추는 대학 평가

- 획일적, 빈번한 대학 평가: 대학 특성화 발전 저해, 피로도 누적
- 의미 없는 컨설팅, 과도한 비용 지출: 정작 도움되는 컨설팅은 부족

뉴스 ONESHOT

“몇억 주고 정부돈 수백억 받자” 퇴출 위기
대학 '몰래 컨설팅'[뉴스원샷]

중앙일보 | 일제 2023.06.12 05:00

교육 ▾ | **원판승부** +

"교육부의 대학 평가, 컨설팅 업체만 신났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 2016-02-20 06:00

뉴스원샷

0 0 0 0 0

시사 > 경제기사

1년 8900억 '머니게임'... 대학구조개혁 컨설팅업체들 신났다

| 대학들, 정부 평가때마다 거액 주고 '속집게 과외'

입력 : 2016-02-19 04:10

16 원위

- 컨설팅 업체 관계자로 확인

40

정부의 역할: 맞춤형 평가로 전환

- 획일적 대학평가 → 맞춤형 대학평가
 - 대학의 여건, 목표, 발전전략을 고려한 평가: 연구중심 vs. 교육중심, 국립 vs. 사립
 - 다양한 평가의 통합 및 간소화
 - 일정 요건과 책무성을 갖춘 대학 → 자립대학 지정, 평가 제외 및 자율성 부여
- 대학 컨설팅 센터 설립
 - 혁신 사례 아카이브 구축 및 공유
 - 퇴직 교수, 고등교육 전문가, 산업체 인사 등을 컨설턴트로 활용

41

II. 고등교육 혁신과 정부 역할

1. 고등교육에 대한 관점 전환
2. 국가 교육재정 재구조화
3. 대학 구조개혁
4.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과 규제개혁
5. 대학평가 혁신
6. 대학원과 기초학문 경쟁력 강화

42

경제는 세계 10위권 vs. 대학 경쟁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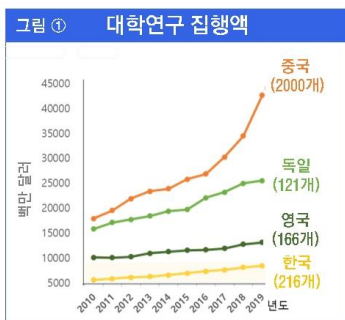
순위	대학	국가	점수
1	메사추세츠공과대(MIT)	미국	100
2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영국	98.5
3	옥스퍼드대	영국	96.9
4	하버드대	미국	96.8
5	케임브리지대	영국	96.7
8	싱가포르국립대	싱가포르	93.7
14	베이징대	중국	88.5
31	서울대	한국	82.3
32	도쿄대	일본	82.1
53	카이스트	한국	75.7
56	연세대	한국	72.9
67	고려대	한국	69.0
98	포항공대	한국	60.3

순위	국가	학교명	종합 점수
1	영국	옥스퍼드대	98.5
2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MIT)	98.1
3	미국	하버드대	97.7
4	미국	프린스턴대	97.5
5	영국	케임브리지대	97.4
...	...	...	...
12	중국	칭화대	92.5
13	중국	베이징대	92.0
...	...	...	...
28	일본	도쿄대	83.3
...	...	...	...
62	한국	서울대	73.5
...	...	...	...
82	한국	카이스트	69.5
...	...	...	...
102	한국	성균관대	66.1
102	한국	연세대	66.1

*자료: 영국 대학평가 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

43

저조한 대학 R&D 투자



*대학에서 집행된 R&D비용, OECD(MSTI) 통계
*괄호 안 숫자는 해당 국가의 4년제 대학 수

출처: 동아사이언스 2021. 6.16,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444444>

순위	국가	연구자 수		증가율 (%)	증감 수 (명)
		2023	2022		
1	미국	81,155	78,014	4	3,141
2	영국	18,694	18,166	3	528
3	독일	10,989	10,746	2	243
4	중국	9,013	7,795	16	1,218
5	캐나다	8,815	8,360	5	455
6	일본	8,126	7,556	8	570
7	호주	7,003	6,562	7	441
8	프랑스	6,522	6,393	2	129
9	이탈리아	5,722	5,397	6	325
10	네덜란드	4,259	4,095	4	164
11	스위스	3,261	3,075	6	186
12	스페인	3,230	2,998	8	232
13	스웨덴	3,200	3,033	6	167
14	인도	2,578	2,273	13	305
15	한국	2,119	1,881	13	238
16	이스라엘	2,037	1,932	5	105
17	덴마크	2,034	1,929	5	105
18	벨기에	1,861	1,792	4	69
19	대만	1,669	1,592	5	77
20	핀란드	1,364	1,278	7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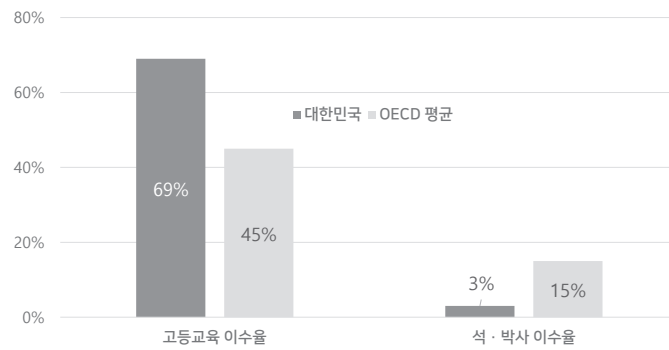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의 국가별 분포도

출처: ZDNET, 2023.12.27 <https://zdnet.co.kr/view/?no=20231227101457>

44

부실한 학문후속세대

- **고등교육 이수율**: OECD 2위 vs. **대학원 이수율** 33위 (OECD,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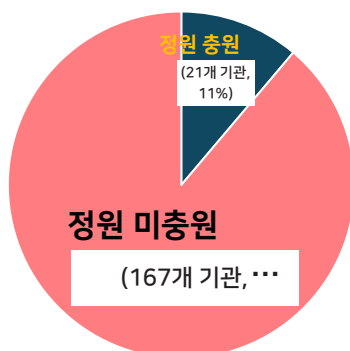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21)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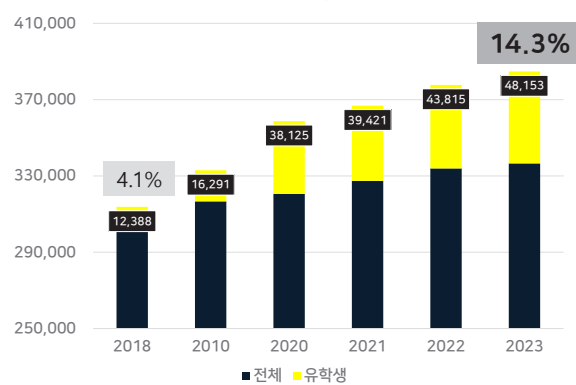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

일반대학원 신입학 정원 현황(2023)



출처: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실(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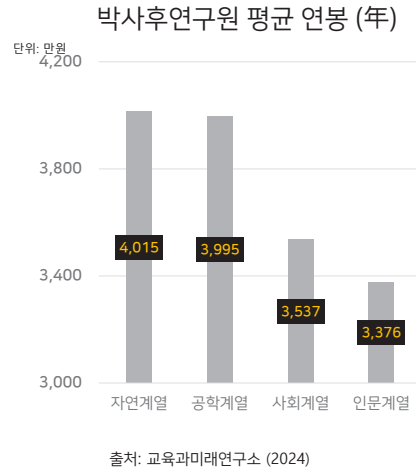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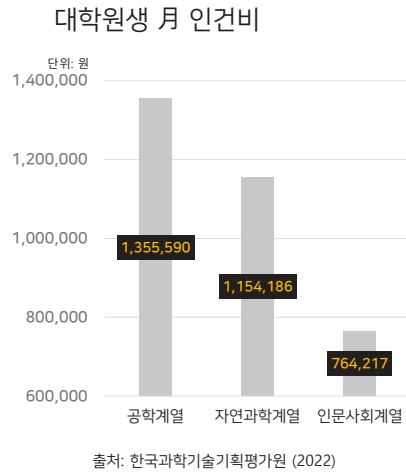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비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3)

46

붕괴 직전의 기초학문



47

정부 역할 : 선진국다운 대학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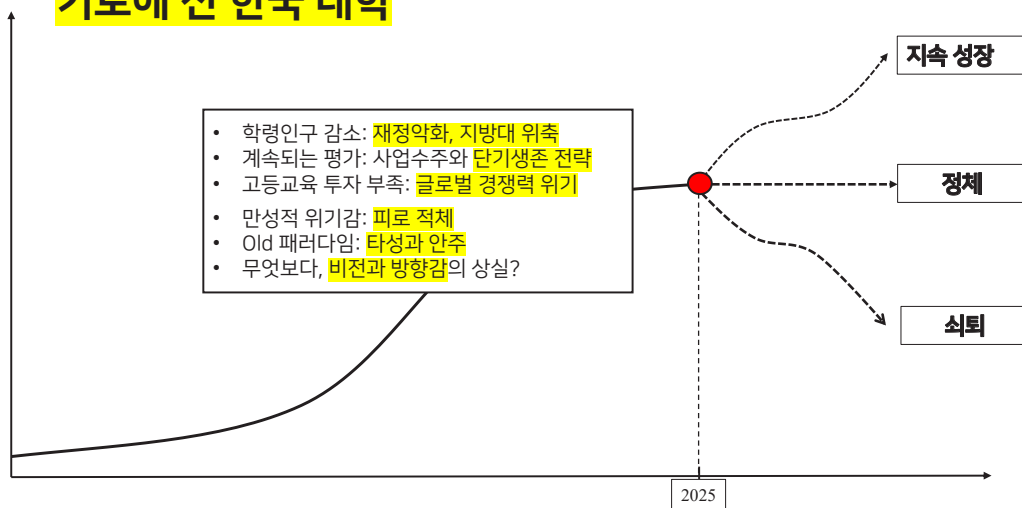
- 대학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와 지원
 - 기업에서 일할 인재 → 학부교육
 - 세상을 바꾸는 지식과 기술 → 대학원: 박사 및 박사후연구원
- 박사후 연구원 관련 제도 정비
 - 처우 개선 (특히, 인문사회계열)
 - 법적 지위 명문화
- 시혜적 보호가 아닌 전략적 투자
 - 기초학문 : 우리 역사, 문화를 지키는 힘
 - 기초과학 : 초격차 과학기술, 기업 경쟁력

48

III. 제언: 대학과 교육부

49

기रो에 선 한국 대학



50

혁신하는 대학: 단기생존 → 체질 개선

- ✓ 첫째, 열린 대학 (Open university): 폐쇄, 고립, 단절 → 개방형 플랫폼, 벽허물기
- ✓ 둘째, 학습하는 대학 (Learning university): 고등교육 동향, 정책, 타 대학 사례
- ✓ 셋째, 심심하는 대학 (University community): 비전공유 → 혁신 동력, 공동체 대학
- ✓ 넷째, 잘 가르치는 대학 (Student success): 공급자 중심 → 학생성공
- ✓ 다섯째, 꿈을 가진 대학 (Mission-centered university): 대학의 비전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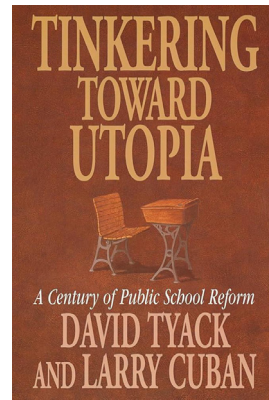
교육부 혁신이 가능한가

- 교육부에 대한 오랜 인식
 - 힘 센 부처 / 규제 부처 (오해와 진실?)
 - 주어진 과제 / 문제의 뒷수습에 급급한 부처
 - 정책 역량에 대한 의구심 + 가부장적/시혜적 행정 문화
 - 포괄적 지도 감독권, 행정지도 만능주의?
- 교육부의 정책 역량과 정책 주도력
 - 정통 관료의 정책 집산화 필요 : 교육부에는 정책 전통이 없다는 비판
 - 미래를 내다보는 부처로서 자리매김: 타 부처와 차별화 필요 (교육 = 미래)
- 사회 부총리 역할
 - 가장 진취적이어야 할 부처가 가장 보수적인 부처로 인식
 - 총괄/조정 → 지원/갈등 해소의 플랫폼 기능 강화

52

교육개혁의 어려움

- 교육은 본래 쉽게 변하려 하지 않는 속성
- Grammar of Schooling
- 변한다 해도 점진적으로 변화 (황소걸음)
- 그러나, 지금의 환경 변화는
- 교육의 새 판 짜기가 필요한 상황



53

감사합니다
(sbae@skku.edu)

54

발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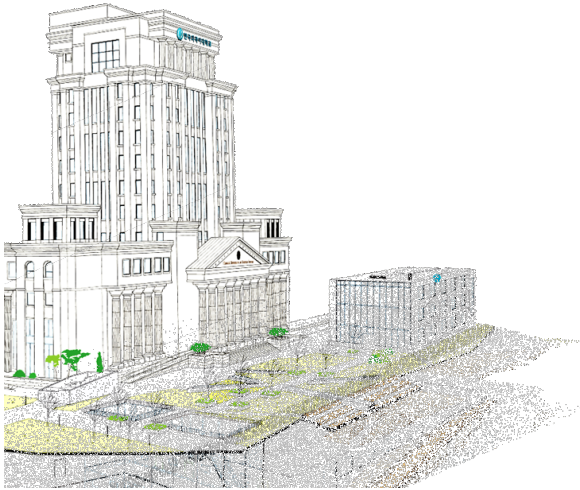
대학 국제화 필요성 대두에 따른 현황과 전망

이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학 국제화 필요성 대두에 따른 현황과 전망



2025. 4. 17(목)
11:30-12:30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 2024.4.1. 자료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8,962명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
- 주요 유치국은 중국(72,020명), 베트남(56,003명), 몽골(12,317명), 우즈베키스탄(12,025명), 일본(5,250명), 미국(3,179명) 순임.
- 대학별로 보면(5,000명 이상), 한양대(8,264명), 경희대(6,929명), 연세대(6,621명), 고려대(5,520명), 중앙대(5,355명), ... , 성균관대(4,381명), 한국외대(3,586명), 서강대(2,692명), 이화여대(2,541명), 서울대(2,471명)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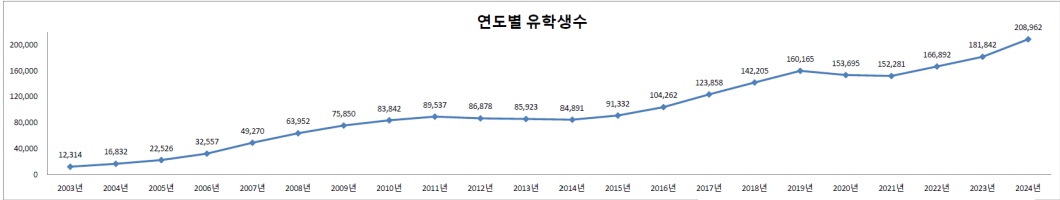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2024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1. 총괄
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24. 4. 1기준 집계)
1) 연도별 유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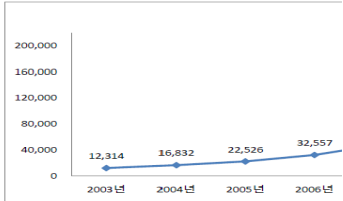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학생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91,332	104,262	123,858	142,205	160,165	153,695	152,281	166,892	181,842	208,962

※ '03년도까지는 일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04년도부터 일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거리대학, 2중학교제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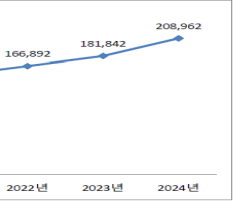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유학생수	12,314	16,832	22,526	32,557

※ '03년도까지는 일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중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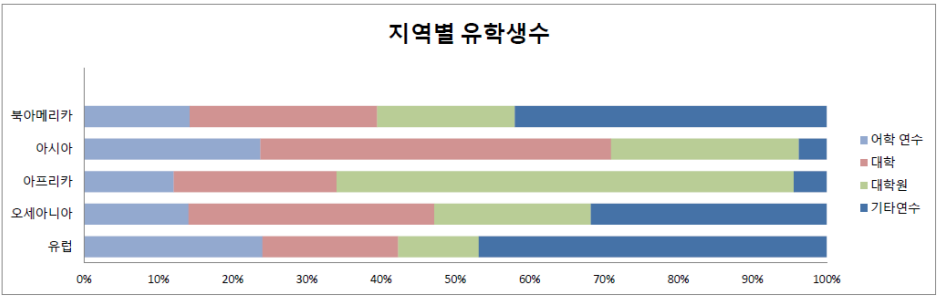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	152,281	166,892	181,842	208,962



3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4) 주요 국가별 현황

국 가	중국	베트남	우즈베크	몽골	일본	미국	기타	계
2018	68,537	27,061	5,496	6,768	3,977	2,746	27,620	142,205
비율(%)	48.2%	19.0%	3.9%	4.8%	2.8%	1.9%	19.4%	100.0%
2019	71,067	37,426	7,492	7,381	4,392	2,915	29,492	160,165
비율(%)	44.4%	23.4%	4.7%	4.6%	2.7%	1.8%	18.4%	100.0%
2020	67,030	38,337	9,104	6,842	3,174	1,827	27,381	153,695
비율(%)	43.6%	24.9%	5.9%	4.5%	2.1%	1.2%	17.8%	100.0%
2021	67,348	35,849	8,242	6,028	3,818	2,218	28,784	152,281
비율(%)	44.2%	23.5%	5.4%	4.0%	2.5%	1.5%	18.9%	100.0%
2022	67,439	37,940	8,608	7,348	5,733	3,369	36,455	166,892
비율(%)	40.4%	22.7%	5.2%	4.4%	3.4%	2.0%	21.8%	100.0%
2023	68,065	43,361	10,409	10,375	5,850	3,214	40,568	181,842
비율(%)	37.4%	23.8%	5.7%	5.7%	3.2%	1.8%	22.3%	100.0%
2024	72,020	56,003	12,025	12,317	5,250	3,179	48,168	208,962
비율(%)	34.5%	26.8%	5.8%	5.9%	2.5%	1.5%	23.1%	100.0%

4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학문적 동기 = 한국에서 발전된 특정 학문 분야를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함
 2. 한국 언어 및 문화 학습 = 한국어 습득 및 한류의 영향
 3. 경제적 동기 =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현지 국가의 수요, 즉 취업 경쟁력 제고
 4. 우수한 교육 및 생활 환경 =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5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한국인 유학생 현황과의 비교

2024년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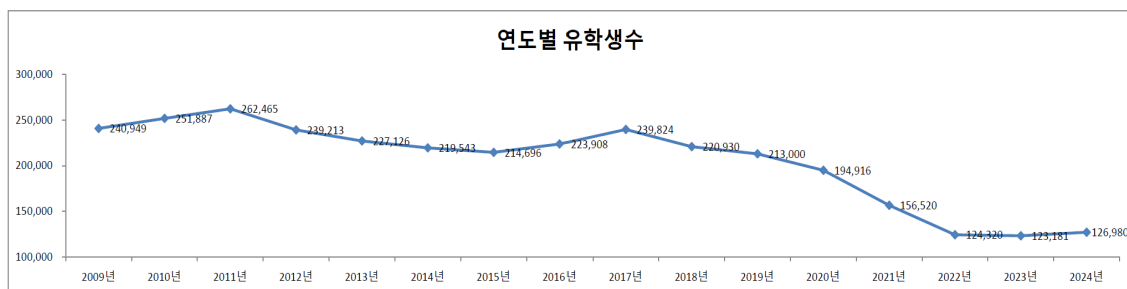
※ 조사방법 : 해당국 재외공관에서 관할국가 한국인 유학생 조사 (4.1 기준 가장 최신 자료활용)

1. 총괄

가. 연도별 유학생수

(매년 4.1 기준, 단위: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학생수	240,949	251,887	262,465	239,213	227,126	219,543	214,696	223,908	239,824	220,930	213,000	194,916	156,520	124,320	123,181	126,980



6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한국인 유학생 현황과의 비교

나. 지역별 유학생수

(2024.4.1 기준, 단위: 명)

지역	학위과정			어학연수 등 기타연수	합계
	대학	대학원	소계		
아시아	24,225	3,602	27,827	10,465	38,292
북미	27,993	15,715	43,708	11,264	54,972
유럽	10,254	7,629	17,883	6,856	24,739
오세아니아	4,587	1,163	5,750	2,204	7,954
아프리카	22	2	24	633	657
중남미	271	64	335	31	366
합계	67,352	28,175	95,527	31,453	126,980

다. 주요 국가별 현황

(매년 4.1 기준, 단위: 명)

연도	미국	중국	호주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기타	계
2022	39,491	16,968	10,119	14,247	10,885	6,466	4,507	21,637	124,320
비율(%)	31.8%	13.6%	8.1%	11.5%	8.8%	5.2%	3.6%	17.4%	100.0%
2023	40,755	15,857	9,309	13,701	11,480	6,998	4,464	20,617	123,181
비율(%)	33.1%	12.9%	7.6%	11.1%	9.3%	5.7%	3.6%	16.7%	100.0%
2024	43,847	14,512	5,764	15,930	11,075	7,340	5,216	23,296	126,980
비율(%)	34.5%	11.4%	4.5%	12.5%	8.7%	5.8%	4.1%	18.3%	100.0%

7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교육수지

(해외유학생 유치로 인한 교육 수입과 자국민의 해외유학으로 인한 교육 지출간의 차이)

- 교육수지 통계(추정) ... 2010년 = -36.6억 달러, 사상 최대 적자 기록 / 2015년 = -25.1억 달러, 유학생 감소 추세 시작 / 2020년 = -14.6억 달러, COVID-19으로 유학생 수 감소 / 2022년 = -25.8억 달러, 유학생 수 회복세와 함께 적자 확대 / 2023년 = -30억 달러(약 4조원)
- 주요 유학 대상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 문제점: 국부 유출 / 브레인 유출 심화 / 국내 고등교육 신뢰도 저하
- 대응방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국내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 교육의 질 제고

8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송도국제도시 외국대학교의 영향

- 한국의 교육 국제화에 대한 긍정적 요인: 송도에 설립된 외국 대학교들은 국내학생들에게 해외 유학 없이도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외국대학교의 국내 진출은 국내 대학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한국의 교육 국제화에 대한 부정적 요인: 지역 간 교육 불균형 초래 / 외국대학교를 유치하기위한 재정 지원이 과도 / 외국대학교의 지나친 수익 추구는 장기적으로 국내 고등교육 체제 혼란 초래

9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해외 대학과의 교류 및 공동 학위

- 학생 교환 프로그램: 협력 대학 간 학점 인정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학생을 교환하여 학업 경험을 쌓는 제도 [예, 서울대 2025-2학기 38개국 234개교 636명 내외 국외파견교환학생 후보자 선발]
- 단기 연수 및 인턴십: 여름학기나 방학동안 해외대학에서 연수 또는 인턴십 수행
- 공동학위(Joint Degree): 두 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학위 수여 [예, KAIST AI 대학원+NYU 뉴욕대학교 / 인공지능 분야 석사·박사 과정 /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운영, 공동 학위 수여 예정 / 2024년 9월 MOU 체결 / AI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협력 기반 마련]
- 복수학위(Dual Degree): 일정 조건 충족 시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 취득

10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해외 대학과의 교류 및 공동 학위

- CAMPUS Asia 한일중 확장사업

한일중 3국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 대학생들의 상호이해 촉진
및 국제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아시아 미래인재
양성 / 아시아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아시아의
차세대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업 지속 추진

교류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프로그램 : 공동·복수학위 등 특화된 공동 커리큘럼 개발·운영

참여 사업단 : (CAMPUS Asia 한일중) 한국, 일본, 중국 / (CAMPUS Asia
한일중 Plus)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국가

기존 12개 사업단, 신규 8개 사업단 총 20개 사업단

11

한국 대학 국제화의 현황: 국제 연구 협력

- 공동연구 프로젝트: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예, 한국연구재단_국제협력사업_국제화기반조성사업 =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 동북아 R&D 허브 기반구축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 +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 /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 과학기술 ODA =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 WFL 과학기술지원단파견사업 +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지원사업]

- 학술교류 프로그램: 교수진과 연구원들의 상호 방문, 공동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예, 한국연구재단_국제협력사업_글로벌연구협력지원 = 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 + 양자 연구교류지원사업 / NRF 특별협력사업 = 한중일 + 한-독 + 한-스웨덴 + 한미 인문분야 / 국제교육협력증진사업 = 한-EU 교육협력사업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12

한국 대학 국제화의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 대응: 대학 정원 미달 문제 대응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를 통한 재정 안정화와 캠퍼스 다문화화 가능
- 교육 및 연구 질 제고: 글로벌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성과 확보 / 우수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교수법, 커리큘럼의 질 개선 유도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졸업생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마
인드 및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기업과의 산학 협력 확대 가능성
- 소프트 파워 확보: 외국인 유학생은 귀국 후 친한 인재로서 외교 및 경
제적 자산이 될 수 있음 / 한류 확산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 수출 가능
성

13

한국 대학 국제화의 문제점

- 유학생의 학력, 국적 편중
- 국내 대학의 국제화 역량 및 인센티브 미흡
- 외국대학 분교 운영 관련 성과 미진
- 외국인 학생과의 상호작용 빈약
- 영어강의 및 국제 커리큘럼 비중 낮음(상위권 대학일수록 영어강좌
비율 높음; KAIST, POSTECH, 한동대 등)
- 국제화가 미국화(서구화)에 편중

14

한국 대학 국제화의 주요 과제

- 질적 국제화 미흡: 단순 유학생 수 증가보다 교육 질 및 지원체계의 향상이 시급 /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언어 및 문화 적응 문제 방치
- 제도적 유연성 부족: 복수학위, 해외 자매대학 연계 과정 등에서 학사 행정의 유연성 부족 / 외국인 교원 초빙 관련 행정절차와 정착지원 미흡
- 재정 및 인프라의 지역 격차: 국제화 전략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한계 / 소규모 지방 대학의 경우 국제화 인력과 시스템 부족

15

해외 사례 비교

- 싱가포르: 글로벌 교육 허브 전략을 통해 세계 우수 대학 유치 및 협력 강화 /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브랜드화와 영어 중심 교육 시스템 정착
- 독일: 'DAAD'와 같은 국립 장학재단의 유학생 지원과 대학 간 협력 시스템 운영 / 학비 무료 정책 및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통한 유학생 유입
- 일본: "Super Global University" 정책으로 30개 대학 국제화 집중 투자 / 영어 전용 과정 확대, 외국인 교수 임용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16

향후 전망

- 디지털 전환과 결합한 국제화(예: 온라인 공동학위, 교류 프로그램 등) 확산 예상
- 인구감소 및 지방대 위기로 인해 국제화는 생존전략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
- 국제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특화 분야, 지역 전략 등)이 요구됨

17

정책 제언

- 질 중심의 국제화 정책 전환(단순 유학생 수 확대보다 이들의 학업성과, 만족도, 졸업 후 진로 추적 체계화)
- 다문화 캠퍼스 환경 조성(외국인 학생·교원을 위한 언어, 생활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확대)
- 국가 차원의 통합 국제화 전략 수립(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협력 기반 플랫폼 필요)
- 지방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지역 특성화 전략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모델 개발, 외국인 유학생의 지방 정착을 위한 일자리·생활 지원 정책 병행)
- 디지털 국제화 인프라 구축(원격교육, 온라인 공동강의 플랫폼, 메타버스 활용 국제교류 등 혁신적 방식 도입)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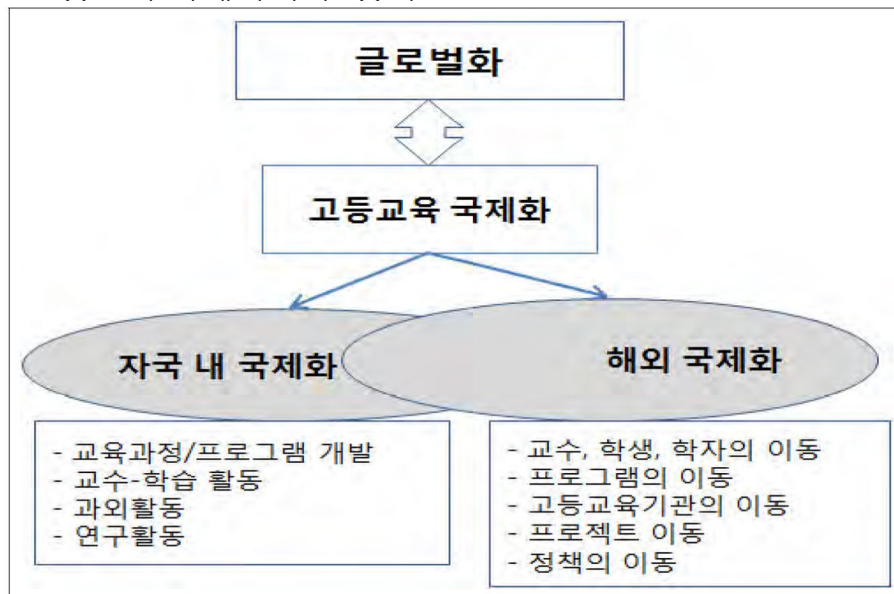
정책 제언

- 외국인 교수 및 학생 수 대폭 확대
- 영어 강의 및 국제공동교육 프로그램 확충
- 내국인과 외국인의 실질적 상호작용 강화
- 통합 기숙사, 문화교류 프로그램, 공동 프로젝트 운영
- IT, 바이오, K-컬처 등 한국 강점 분야 기반 유학 프로그램 개발
- 국가별 전략적 유치 계획 수립
- 지나친 중국 의존 탈피, 전략적 타겟 국가 다변화 필요
- 트위닝(Twinning)과 프랜차이즈(Franchise)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인적 교류 중심에서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함]

19

정책 제언

- 고등교육 국제화의 두 영역



자료: Knight(2012).

20

결론

- 한국 대학의 국제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국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
-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규제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발표 5

대학 국제 서열화

서의호

aSSIST/포스텍 교수

대학 국제 서열화



Why world rankings ?

Globalization of Education

- Students no longer just apply to local universities — they apply *globally*.
- Not unidirectional ,but **multi-directional**
- Rankings help students (and parents) compare **schools across countries**.
- Especial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rankings offer a *quick snapshot* of quality and reputation.

Brand Power & Prestige

- Like it or not, being **“top 100”** or **“top 50”** carries huge symbolic value.
- High rankings are used in marketing, recruitment,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 Students often feel more **confident choosing** a school with a strong global ranking.



NEWS > EDUCATION

UF president's resignation was a mystery. Was it all about rankings?



MOST POPULAR

- 1 8 Central Florida res shut down last week
- 2 Orlando weekend: V Sidewalk Art Festival 'Dogtoberfest' and e
- 3 Woman drowns dog airport bathroom b couldn't take it on fl



🎓 Why Are Rankings Stressful for University Presidents?

1.External Pressure

1. Government agencies and boards often use rankings to judge performance.
2. Alumni, donors, and the media may expect the president to "improve the numbers."

2.Internal Expectations

1. Faculty and staff look to the president for leadership in reputation and growth.
2. Declining rankings can harm morale and lead to criticism of leadership.

3.High-Stakes Consequences

1. Rankings affect 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s, grant opportunities, and collaborations.
2. Presidents may fear that stagnation or decline in rankings will be seen as leadership failure.





Rosenthal Effect



My teacher says,
I'll pass.

Pygmalion Effect:
People are
influenced by the
expectations built
upon them.



나 A대 다녀
^^

와우 !! 뜨는 대학 이잖아 !!



**Effect of Brand Value,
one's pride by %**



상지대학교



Effect of Brand Value,
one's pride by %



장성광대학교

World Leading Rankings – Comprehensive

Title	Agency	Descriptions
 THE-Thomson Reuters World University Rankings (THE WUR)	THE (Times Higher Education) & Thomson Reuters, UK	2004년부터 QS와 함께 세계랭킹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독자적인 랭킹을 발표하기 시작 (Times Good University Guide 1993) - Fact-base data를 중심으로 한 13개의 지표 선정 - Normalization 및 modifier 등을 활용하여 indicator, region, subject별로 평가 - Platform Group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 방법론 연구 및 개선 - 중앙일보와 연계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QS WUR)	QS (Quacquarelli Symonds Limited), UK	2004년부터 THE와 함께 세계랭킹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독자적인 랭킹을 발표하기 시작 6개 지표 선정 - Reputation이 50%(Peer 40%, Employer 10%)를 차지 - 조선일보와 연계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CHINA	2003년부터 세계랭킹을 발표하기 시작 - 노벨상/Fields상과 전체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평가 - 한국대학에 불리하며 per capita 환산을 이용하지 않아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유리함
 US News & World Report	US News & World Report, USA	1983년부터 미국대학 중심의 다양한 가이드와 랭킹을 발표 - 엔지니어링, MBA, Law School 등의 랭킹 발표 2004년 이후 QS-THE 랭킹을 인용하여 세계랭킹 발표



Diverse Rank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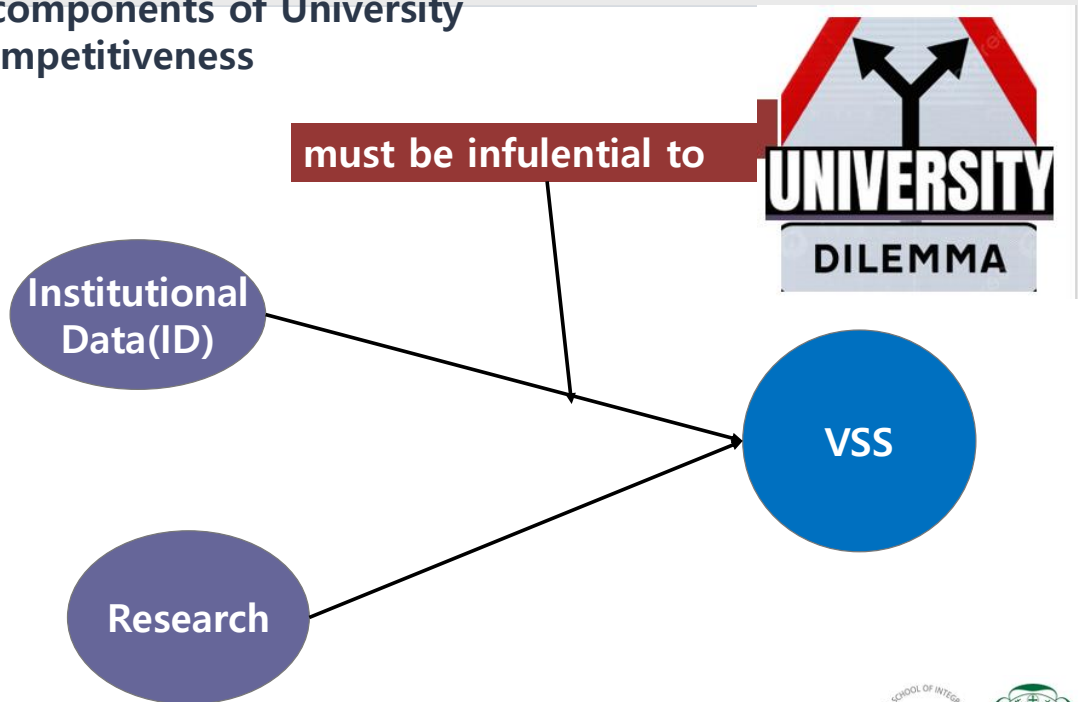
■ 50 + Rankings are published annually

Title	Agency	Descriptions
Webometrics Rankings of World's Universities	Cybermetrics Lab in CSIC, Spain	- Promote web publication of world universities - Support open access initiatives
Nature Ranking	Nature, UK	Evaluate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in Nature and Nature Sister Journals
Leiden Ranking	Leiden U's Centre for Science and Tech, Netherlands	Provide ranking list based exclusively on bibliometric indicators, focusing on all universities worldwide with more than 400 Web of Science indexed publications per year
CHE University Ranking	Centre for Higher Education, Germany	Provide information for student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Germany and some neighboring countries. Ranking by subject
Financial Times Rankings	The Financial Times, UK	Publish business school rankings for the business schools that are producing the global managers for the 21st century
4icu.Org University Web Rankings	4 International Colleges & Universities	Provide popularity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nd colleges based upon the popularity of their websites
International Professional Ranking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Mines ParisTech, France	Measure the quality of training provid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ased on the number of alumni listed among CEOs in the 500 largest worldwide companies
SCImago Institutions Rankings(SIR)	SCImago Research Group, Scopus-based	The goal of the report is to characterize research outcomes of organizations so as to provide useful scientometric information to institutions and research managers so they are able to analyze, evaluate and improve their research results.
High Impact Universities Ranking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Benchmark the research output or performance of the world on research productivity indices (g and h)

9



3 components of University Competitiveness



10



3 components of University Competitiveness



11

Ranking !!!!

Nobody likes it !!

But,

Everybody checks it !!

"PRIDE"

대학 구성원에게 Pride를 갖도록 하는 방법들

13



1.Absolute TOP – Premier Club

A banner for the Premier Club (PC) featuring a collection of university pennants. The pennants include logos for Brown, Columbia, Cornell, Dartmouth, Harvard, Penn, Princeton, Yale, MIT, Stanford, and Chic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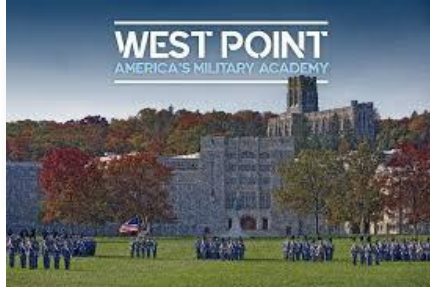
Premier Club (PC)

A collection of logos for the Premier Club (PC) members, including th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Korea University, and Konkuk University.

The Public Ivies

A collection of logos for 'The Public Ivies', which are public universities known for their high academic standards. The logos include Georgia Tech,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Virginia,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Wisconsin, and others.

2. Specialized Elite (IST)



3. Regional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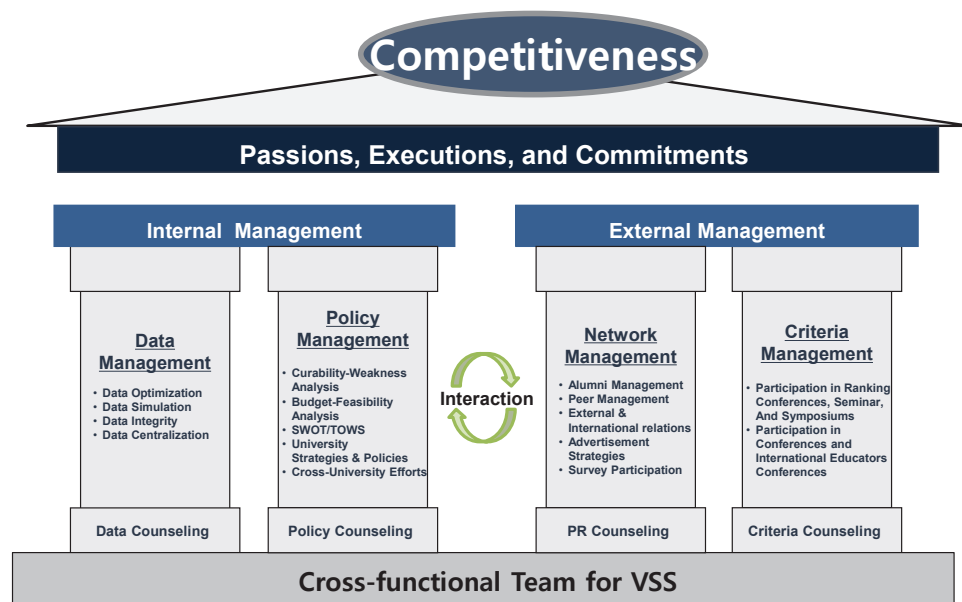
4. Tier TOP



5. Rising Star



6. Area/Subject TOP



✓ Pros of University Rankings

1. Transparency & Benchmarking

- Provide a standardized method to compare institutions across countries.
- Help students, faculty, and policymakers evaluate performance and reputation.

2. Global Visibility

- High rankings enhance a university's international prestige.
- Boosts attractiveness to global students, faculty, and research partnerships.

3. Strategic Focus

- Encourage universities to set measurable goals in areas like research output, internationalization, and teaching quality.
- Helps universities identify and address weaknesses.

4. Funding and Investment

- Higher-ranked universities often attract more government and private funding.
- Donors and partners may view rankings as a proxy for quality and impact.

5. Student Recruitment

- Many students use rankings to decide where to apply, especially international students.
-



✗ Cons of University Rankings

1. Over-Simplification

- Reduce complex institutions to a single number or rank.
- Ignore contextual differences (e.g., regional missions, teaching-focused universities).

2. Methodological Limitations

- Rankings often rely on reputational surveys, which can be subjective.
- Emphasis on research metrics may disadvantage teaching-intensive or newer universities.

3. Pressure on Universities

- Universities may chase rankings at the expense of core values (e.g., academic freedom, equity, teaching quality).
- Can create a "race to the top" that overlooks local or societal needs.

4. Inequality Ampl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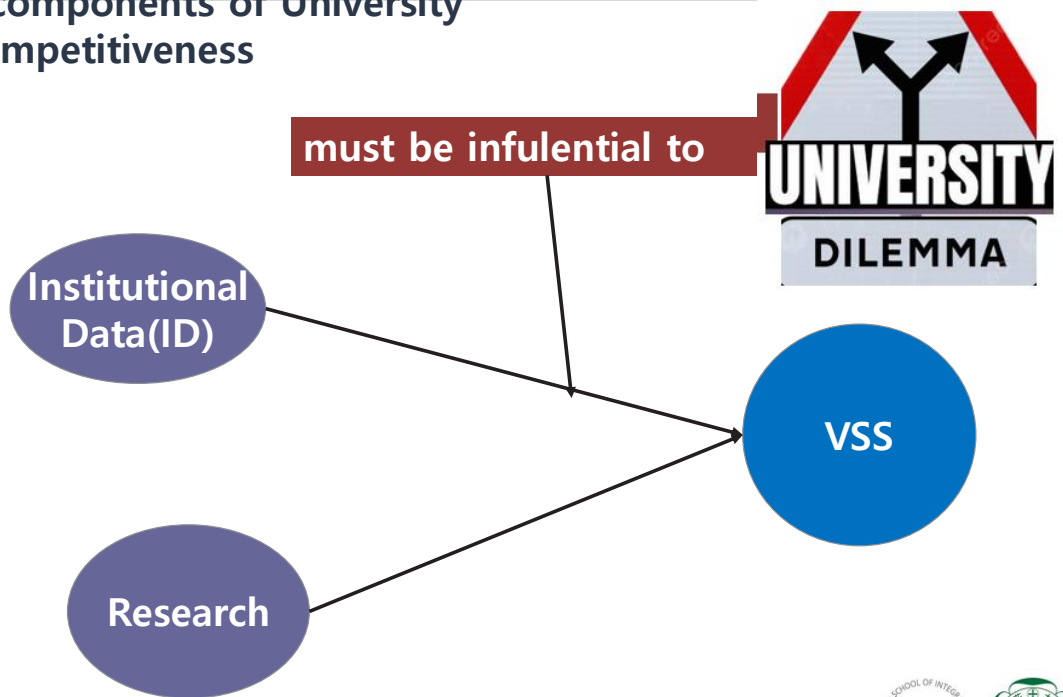
- Favor well-resourced institutions with global reputations.
- May marginalize smaller, innovative, or regionally-focused universities.

5. Data Gaming

- Some institutions may manipulate or over-report data to boost rankings.
- Creates an arms race of branding, rather than sub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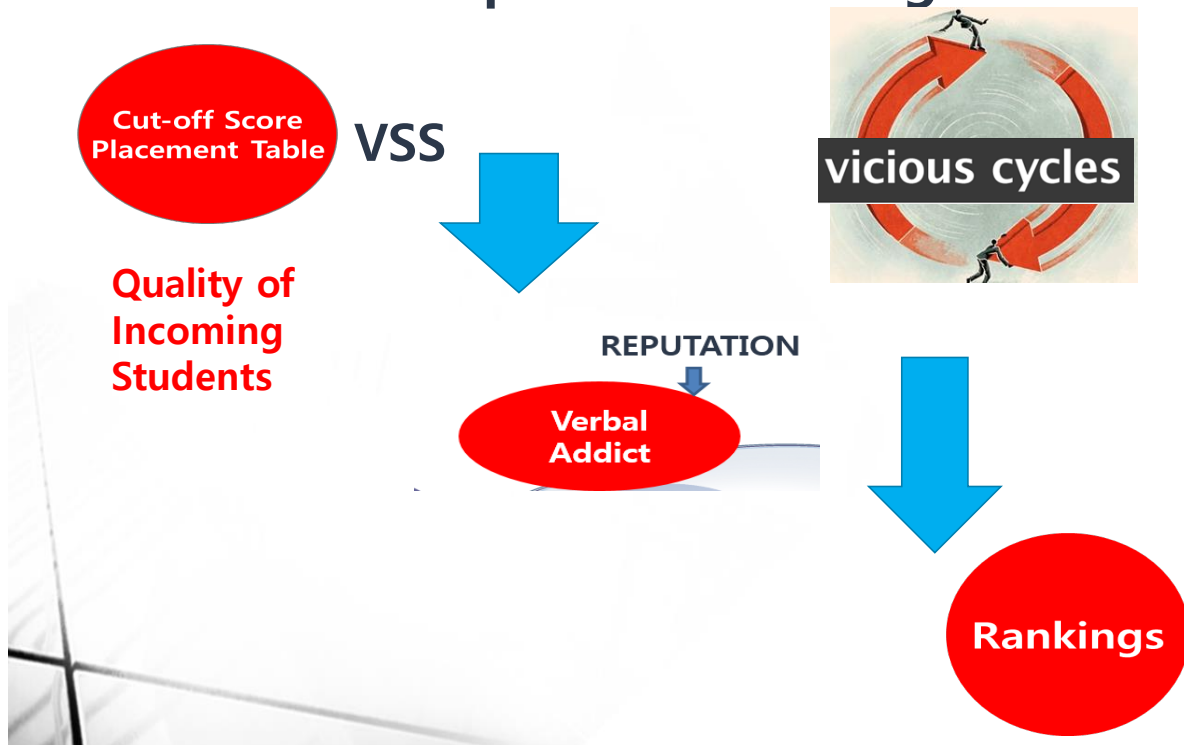
3 components of University Competit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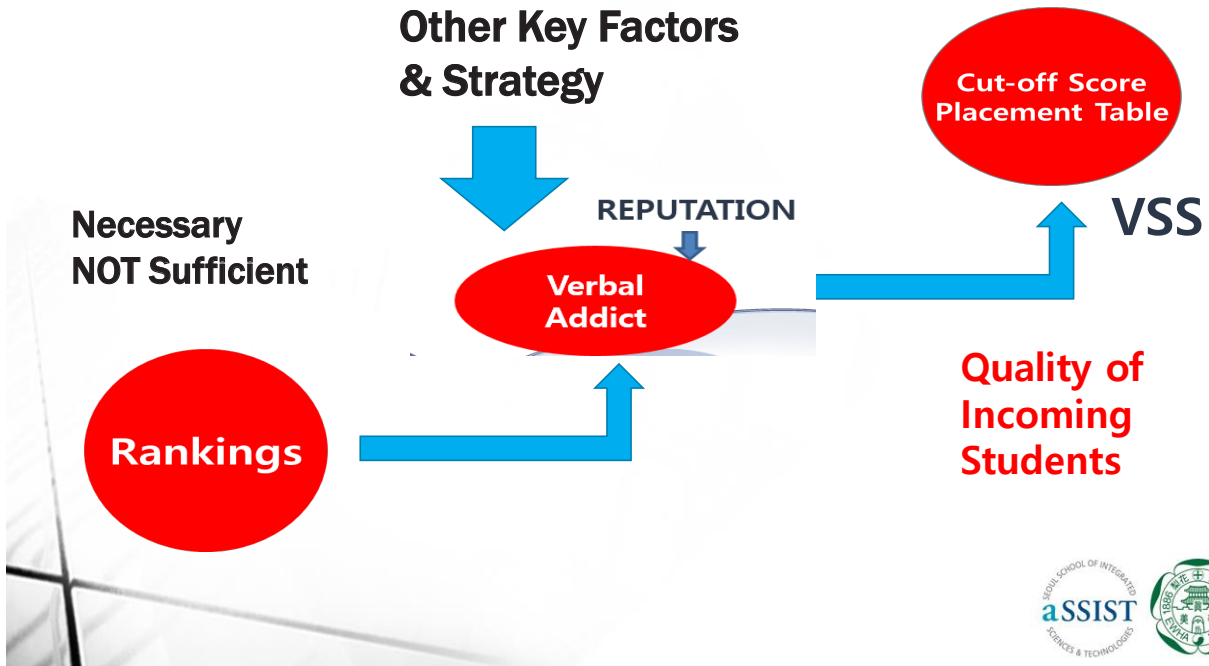
23



3 Steps of VSS falling



3 Steps to raise VSS



한국 대학들은 왜 세계 대학 랭킹에 민감한가?

- 문화적, 제도적, 전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대학의 평판은 사회적 신뢰, 학생 유치, 예산에 직결



1. 교육 = 성공이라는 사회적 인식

- • 좋은 대학 = 좋은 직장 = 안정된 인생
- • 랭킹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절대적 기준
- • 평판 → 경쟁력, 취업률, 신뢰도에 영향



2. 정부 정책 및 재정지원과 연계

- • BK21, LINC 등 주요 국책사업 평가 기준에 랭킹 포함
- • 높은 랭킹 → 예산 확대, 자율성 확보
- • 낮은 랭킹 → 예산 삭감, 평가 불이익 가능



3. 국제화 전략과 랭킹의 연결

- • QS, THE 랭킹은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
- • 외국인 교수·학생 유치 시 랭킹이 신뢰 기반
- • 공동연구, 복수학위 협약 시 랭킹 요구



4. 국내 대학 간 치열한 위상 경쟁

- • 서울대, 연고대, KAIST, POSTECH 등 간 랭킹 경쟁
- • 랭킹은 브랜드, 신입생 유치, 교수 채용에 영향
- • 내부 구성원과 동문도 민감하게 반응



5. 언론 보도와 대중의 주목

- • 매년 랭킹 발표 시 언론 집중 조명
- • 총장 및 경영진은 결과에 대해 보고·해명 필요
- • 랭킹은 외부 평가이자 내부 압박 도구



요약

- • 랭킹은 단순 수치가 아닌 대학 생존 전략
- • 정체성·재정·채용·브랜드 모두에 영향
- •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대응 필요



Ranking !!!!

Nobody likes it !!

But,

Everybody checks it !!



발표 6

대학 국제화의 패러다임 전환:
질적 성장과 다층적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중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대학 국제화의 패러다임 전환: 질적 성장과 다층적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김종화

2025.04.17

목차

1 현황 및 문제점

- 양적 성장 중심 접근
- 외형적 성과 달성
- 실질적 협력 부족
- 글로벌 역량 미흡

2 패러다임 전환

- 학령 인구 감소, 국제경쟁 심화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 근본적인 변화 요구
- 질적 성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 한국 대학의 국제화 특징

- 인바운드/아웃바운드
- 국내 해외 유학생 국가별 현황
- 국외 한국인 유학생 국가별 현황
- 교수 및 교직원 현황

4 국제화 목표와 현황

- Study Korea 300K Project
- 세계 대학 평가에서의 한국 대학
- 외국인 유학생 전공 및 현황

5 대학 국제화의 패러다임 전환

- 과거 패러다임
- 현재 패러다임
- 미래 패러다임

현황 및 문제점

양적 성장 중심 표면적, 단기적인 교류 방식 실질적 협력 부족

- 지금까지의 주된 흐름은 외형적인 성과 달성과 양적 성장 중심의 접근
- 한국 대학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한계에 도달하였음
- 과거 한국 대학의 국제화 전략은 국제화 지표 상승을 위해 교환학생 수 증가나 MOU 체결과 같은 외형적 성과 달성에 집중함
-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보다는 수자와 지표에 집중하는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교류 방식이 주류를 이룸
- 특히,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그로벌 랭킹 상승과 정부의 성과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 성과 목표 달성에 집중해 왔고, 이로 인해 학생과 교수진의 실질적 글로벌 역량 강화나 국제 협력의 내실 있는 발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졌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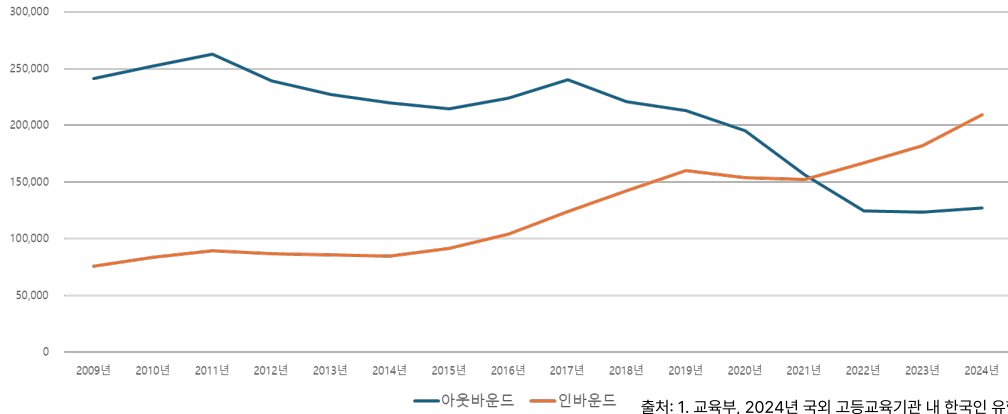
패러다임 전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한국대학의 현실은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국제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도전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국제화가 아니라 **질적 성장을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혁신적으로 활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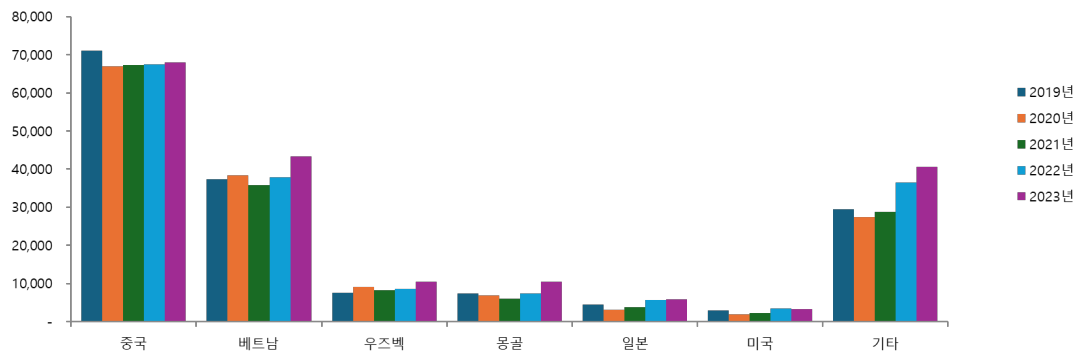


해외 유학생 추이(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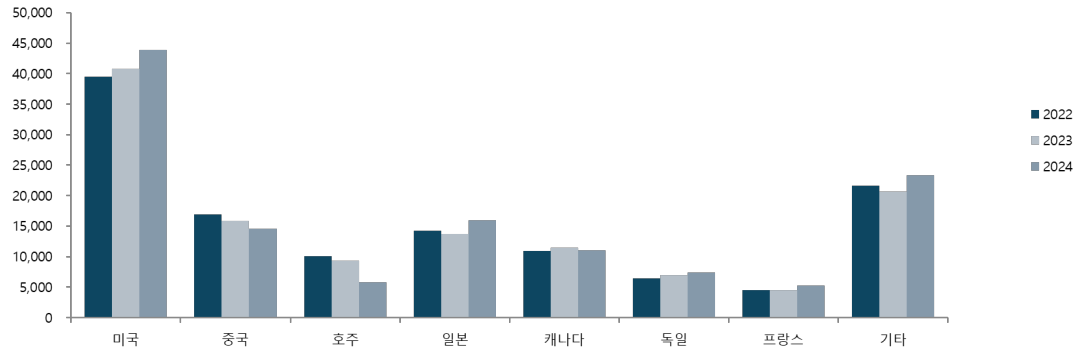
국내 해외 유학생 국가별 현황

주요 국가별 현황



국외 한국인 유학생 국가별 현황

주요 국가별 현황



한국대학의 국제화 특징



인바운드
소수 나라 의존도 높음



아웃바운드 감소



유학시장 내
한국 비중 미미
(2022년 2%)



외국인 정규직
교수 비율 감소

한국 대학의 국제화 특징

인바운드

- 인바운드(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 등 소수의 나라 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전체 유학생 중 약 65% 이상
- 양적 성장에 집중한 결과, 학업성취도와 한국어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교육의질 저하, 문화적 갈등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아웃바운드

- 아웃바운드(한국 학생 해외 진출)의 경우 해외 유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2024년 기준 126,980명이고, 인바운드는 208,962명임
- 주로 단기 프로그램(어학연수, 교환학생) 중심으로 학위취득 비중이 낮고 선진국(미국, 유럽) 중심의 편중 현상을 보이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부족함

한국 대학의 국제화 특징

아웃바운드의 유학생 수 감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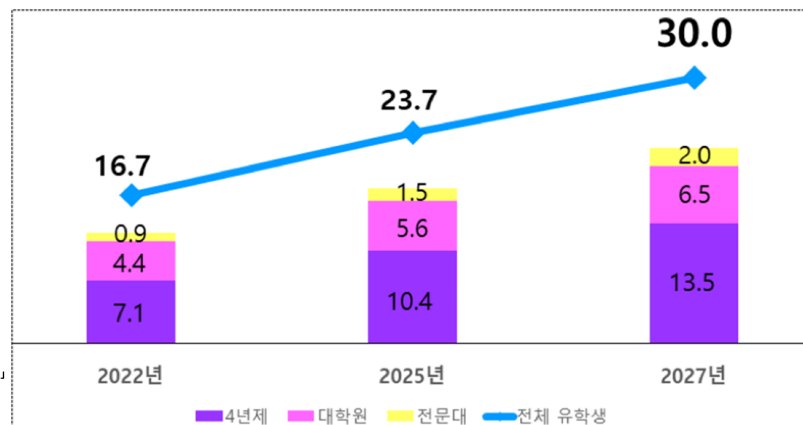
1.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
2020년 이후 가장 큰 요인으로 출입국 제한, 비자 발급 지연, 온라인 수업 전환 등으로 인해 유학 수요가 급감
2. 경제 상황 변화
환율 상승, 등록금·생활비 부담 증가, 가계 소득 감소 등이 유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
3. 해외 취업 및 이민 정책 변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유학 국가의 취업 비자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 강화되어 유학에 대한 매력도 감소
4. 국내 대학의 국제화 확대
한국 대학들에서 영어 강의, 외국인 교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해외로 가지 않고도 국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 개선
5. 온라인 교육 확산
팬데믹 이후 온라인 학위과정 등으로 물리적 이동 없이도 해외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전통적인 유학의 필요성 감소

한국 대학의 국제화 특징

- 전 세계 유학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2022년 2%)
하며 유학생 출신국은 아시아 국가에 편중
- 교수 및 교직원 국제화 현황
 - 외국인 정규직 교수의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020년 5.7%, 2024년 4.2%)
 - 또한 외국인 교수의 임용이 비정규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경영학을 포함하여 인문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담당할 외국인 교수의 숫자와 층이 부족함.
 - 교수 연구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교직원의 국제화도 필수적이어서 향후 외국어 교육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국제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행사 주최 및 참여를 확대 해야 할 것으로 보임.

Study Korea 300K

2027년 유학생 유치 목표



출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
2023, 관계부처 합동

Study Korea 300K

고등교육기관 내 유학생 비율 (OECD 2022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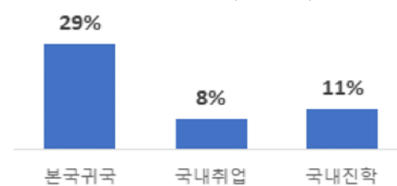
국가별 순위 (2020 기준)	국가명	2015년				2020년			
		학사	석사	박사	전체	학사	석사	박사	전체
	OECD - 전체	4.0	11.2	25.1	5.3	4.9	14.3	24.3	6.6
1	룩셈부르크	25.5	71.1	87.0	45.9	24.4	74.6	89.0	48.4
2	호주	13.3	42.6	33.8	15.5	15.5	49.8	33.4	26.0
3	영국	14.0	36.9	42.9	18.5	16.1	39.9	41.2	20.1
4	캐나다	9.9	13.6	29.9	11.0	14.4	20.1	35.8	18.2
6	오스트리아	18.4	19.0	27.0	15.9	18.6	23.4	36.8	18.0
7	뉴질랜드	16.0	24.3	46.2	21.1	14.5	33.8	49.3	17.5
8	체코	9.4	11.9	14.8	10.5	12.5	18.2	22.3	15.0
14	독일	4.7	12.9	9.1	7.7	7.0	17.1	23.1	11.2
19	프랑스	7.3	13.3	40.1	9.9	7.0	13.0	37.9	9.2
25	일본	2.4	6.8	18.2	3.4	3.2	10.5	20.9	5.7
26	미국	3.8	9.5	37.8	4.6	4.5	12.4	25.7	5.1
29	스페인	0.8	7.1	0.0	2.7	1.6	10.6	19.2	3.8
30	한국	1.4	6.4	8.7	1.7	3.3	10.6	16.7	3.7

Study Korea 300K

대학에서 유치한 인재의 국내 취업 및 정착 저조

- 국내 유학 후 정착비율 저조
- 석·박사 급 해외인재의 높은 취업 의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력의 정착 유인이 크지 않아 실제 **국내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음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22.KEDI)



국내 박사취득 후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비중(22.KRIVET)



Study Korea 300K

비전: 글로벌 교육 선도국가로 도약

유학생의 K-Drama 실현

목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

- 유학활동과 취업·정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우수 인재와 **학술 다양성** 확보를 통해 대학경쟁력 제고
- **국내·외 학생 간 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학생 역량 강화
- **국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

결국, **글로벌 교육허브(Hub)**로의 도약



세계 대학 평가에서의 한국 대학

1

주요 세계대학평가* 내 국제화지표 비중이 적지 않음

- 유학생 유치, 외국인 교원 확대, 국제연구 교류·협력 등 대학의 글로벌화 요구

- 평가항목(비중) : THE $\angle$ 외국인학생비율(2.5%), 외국인교수비율(2.5%), 국제공동연구논문 발표 비율(2.5%), QS랭킹 $\angle$ 외국인학생비율(5%), 외국인교수비율(5%), 국제연구네트워크(5%)

2

한국 대학들이 국제경쟁력 하락

- QS랭킹 등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대학의 순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제화 경쟁력 미흡에서 기인

- QS랭킹3000위 내 국내 대학(8개교) 순위 하락('22→'23) : 유학생 비율(269~692위), 외국인교수비율(399~694위), 국제연구네트워크(8교 모두 400위 이하) 저조가 주요 원인

세계 대학 평가에서의 한국 대학

3

글로벌 역량 향상

-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문화간 이해, 유연성, 글로벌화 이해** 등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 간 교류·소통** 필요성 증대

4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

-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은 한국인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다문화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연구 결과

외국인 유학생 전공 및 현황



-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선진화된 교육 환경에서의 학위취득과 더불어 진로 및 취업**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임



- 이는 2023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약 70%가 인문사회계열을 선택하고 이중 **50% 이상이 경영학 및 경영학 관련 전공**을 선택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강화 될 것으로 예상



- 유학생 유치와 전공 및 출신 국가의 다양성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관련 기능과 정보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유기적 연계부족**
- 학업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현지어 강의**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강의 중 영어강의는 13%, 현지어 강의는 1.2%임
- 지역 소재 산업과 첨단 이공계 관련 전공으로 유학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음
- 유학생 유치가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되지 않고, 개별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대학은 해외 정보 및 채널 부족**

대학 국제화의 패러다임 전환

구분	과거	현재	미래
패러다임	양적 확장과 일차원적 접근	질적 성장과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다층적 네트워크와 융복합적 글로벌 생태계 구축
목표	유학생 수 증가, 해외 진출	글로벌 역량 강화, 브랜드 구축	질적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제화
주요 전략	영어 강의 확대, 단기 교류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다문화 수용성 강화, 교육 인증 확보와 유지	공동학위, 다층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학생	외국인 유학생 유치 중심	내·외국인 학생 간 교류 증가	글로벌 시민 양성, 학문·문화 간 융합 학습
교수 및 연구	외국인 교수 채용 확대, SCI급 논문 중심 국제 공동 연구	교수진의 국제 연구 협력 증가, 학제적 접근, 지역사회/산업과 협력	지역사회-세계 연계형 문제 해결 연구, 글로벌 교육자 양성
특징	단순 유학생 수 증대, 수치 중심 지표, 자매대학 협정	수치+질적 균형 시도	글로벌 파트너십과 가치 기반 국제화
기대 효과 및 한계	대학의 외연 확대, 내실 및 지속가능성 부족, 구성원과 문화적·사회적 통합 미흡	국제적 위상 향상, 구성원 글로벌 역량 및 인지도 향상, 대학 내부 혁신 및 지속가능성 요구 증가	국제화의 대학 생태계의 일상화, 대학의 책임성 강화, 혁신적 글로벌 교육·연구 생태계 형성

과거 패러다임: 양적 확장과 일차원적 접근

1

중심 개념

학생 및 교수진 교류 증가, 외국인 학생 수 확대, 해외 캠퍼스 설립 등 양적 성장이 국제화의 주요 척도

2

전략적 특징

- 수치 중심의 국제화 지표 활용 (예: 외국인 유학생 수, 파견 학생 수 등).
- 단편적·일회성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 국가 간 양자 협정 중심의 제한적 네트워크 구축.

3

성과 및 한계점

- 대학의 외연 확대
- 양적 지표에만 치중해 내실과 지속가능성 미흡
- 문화적, 사회적 통합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구성원의 분리현상

현재 패러다임: 전환기

1

중심 개념

질적 국제화, 다문화적 역량 강화, 글로벌 시민교육과 통합

2

전략적 특징

- 다양한 계층(학생, 교수진, 직원)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 및 산업과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접근을 통한 다문화 환경 구축 및 글로벌 역량 강화

3

성과 및 개선점

- 구성원의 글로벌 역량 향상과 국제적 인지도 강화
- 질적 성장 지표 개발과 적용의 필요성 증가
- 국제화로 인한 대학의 내부 혁신 촉진 및 지속가능성 강조

미래 패러다임: 다층적 네트워크와 융복합적 글로벌 생태계 구축

1

중심 개념

질적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글로벌화

2

전략적 특징

- 사회 각 분야와 지역, 해외를 통합하여 가능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대학과 국가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
- 다층적(multilayered)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화가 대학 운영의 전반적 요소에 융합된 형태로 발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초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3

미래 기대효과

- 국제화가 대학 생태계의 일상적이고 통합된 일부로 정착
- 다양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국제적 책임성 제고
- 전 세계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 증대를 통한 혁신적 글로벌 솔루션 개발

맺는 말

-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국제화를 통한 외국인 학생의 증가는 대학이 당면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
 - 과거에 협정 체결과 유학생 유치 같은 양적 성장 위주의 국제화가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이고, 선택·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질적 성장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
 - 다가올 미래에는 **다층적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을 바탕으로 대학·산업·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및 포용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화로 나아갈 것을 제안함
-

발표 7

지방대학과 지방,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성경륜

상지대학교 총장

지방대학과 지방, 어떻게 살릴 것인가?

2025.4

성경륜 (상지대학교 총장)

순서

I. 지방대학과 지방의 현실

II. 두 가지 대학모델

III. 교육부의 접근

IV. 상지대학교의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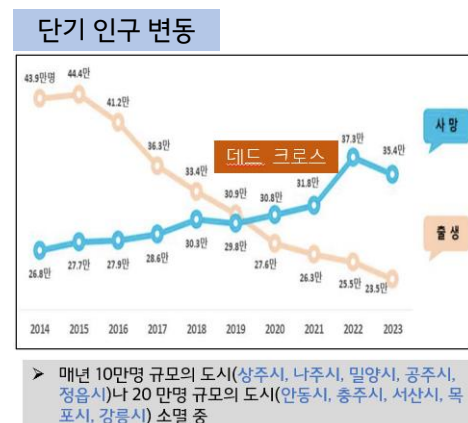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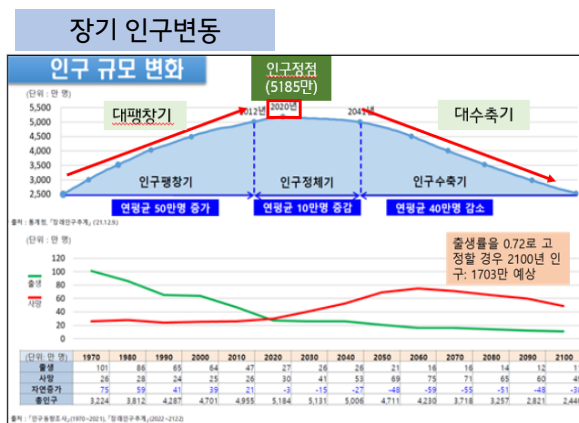
V. 맺는 말

I. 지방대학과 지방의 현실

2025-04-1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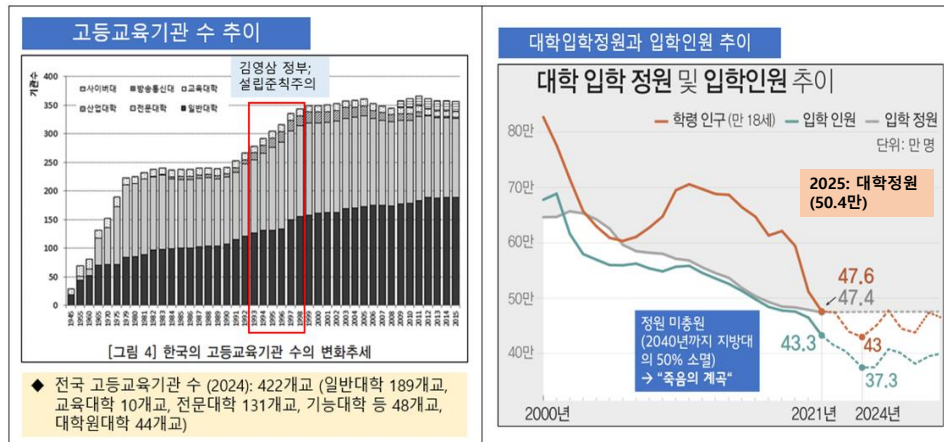
1. 초저출생의 진행과 대학의 운명 2020년(인구정점), 데드 크로스 발생, 인구 대축소기 시작



2025-04-14

4

2. 대학소멸의 구조적 조건: 공급과잉과 수요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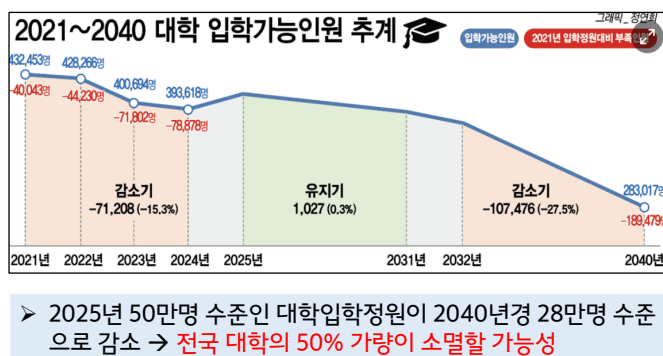


2025-04-14

5

3. 초저출생의 진행에 따른 대학의 운명

- 초저출산과 구형 대학모델의 결과
→ **레드 오션 경쟁(제로섬 경쟁)** 돌입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 **죽음의 행진**: 지방대에 집중
 - 2000년 이후 22개 대학 폐교
- 대학진학 인구 감소와 대학 폐교 증가
→ 대학소멸/지방소멸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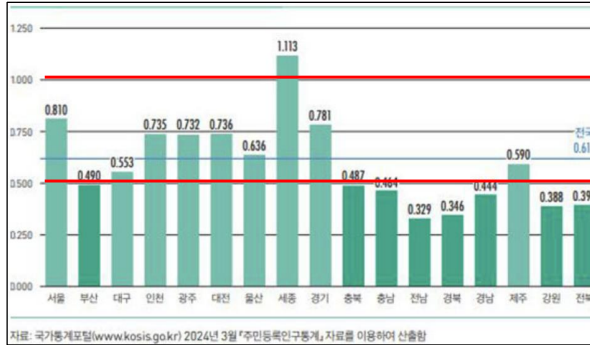
2025-04-14

6

4.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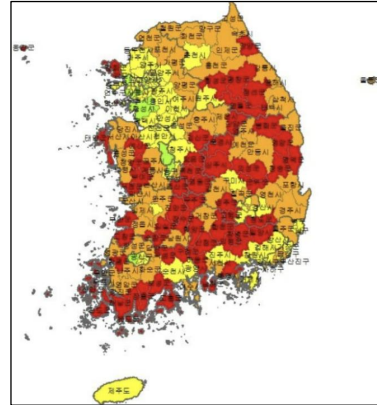
소멸위험지수 (20~39세 여성 / 65세 이상 인구): 0.2 이하(소멸고위험), 0.2~0.5(소멸위험진입), 0.5~1.0(소멸주의 단계)

광역자치단체의 소멸위험 지수 (2024)



2025-0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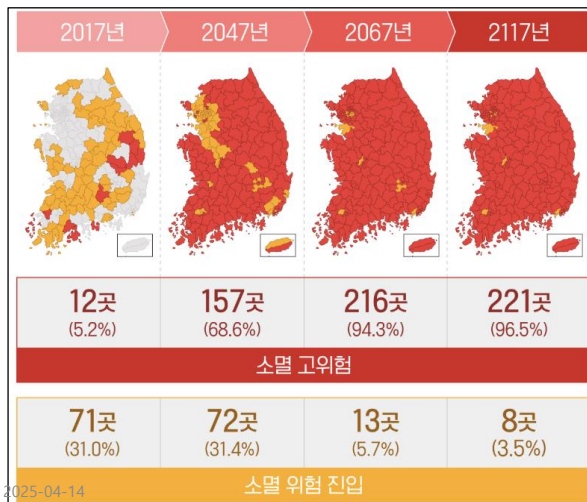
시군구의 소멸위험 지수 (2024): 228개 시군구 중 57%(130개)가 소멸위험진입



7

5. 감사원 보고서 (2021)

2047년 229개 시·군·구의 100% 소멸위험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김시덕 박사의 견해 (2024)

3대 메가시티



➢ 향후 30년 이내에 3대 메가시티에 집중, 나머지 지역은 인구소멸 직면

8

II. 두 가지 대학 모델

2025-04-14

9

1. 구형 대학 모델

- (1) 학생 범위: 만 18~21세
- (2) 국적: 한국인
- (3) 수업 방식: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강의실 수업 위주
- 수업 일수: 주 5일
- (4) 단일 수익모델: 등록금 수입

2025-04-14

10

2. 신형 대학 모델

- (1) 학생의 범위: 0~100세 전연령대
- (2) 국적: 내국인 외에 **외국인**도 적극 총원
- (3) 교육방식: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방식** 적극 도입 (사이버 교육, 특정 공간에 구속받지 않는 수업)
- (4) **수익모델의 다원화**: 등록금 수입 외에 기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고객을 위한 연구개발/컨설팅/교육 수입 확대

2025-04-14

11

신형 대학 모델의 주요 특징

- 신형 대학모델의 본질은 '**확장적 하이브리드**' 대학
- 학생: 청년학생 + 그 외 모든 연령대 → **평생교육** 확대
- 국적: **내국인+외국인** → **하이브리드 캠퍼스**
- 교육방법: 오프라인+온라인 혼합 → **미네르바 모델**
- **수익 모델 다원화**: 학생 고객 이외에 국내기업 고객, 해외/한상 기업 고객, 지자체 고객, 정부 및 공공기관 고객 등으로부터의 수익 확대 → **Entrepreneurial University**

2025-04-14

12

III. 교육부의 접근

2025-04-14

13

1. 대학에 대한 양면적 접근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정원 구조조정
 - 대학평가인증과 재정진단평가
 - 대학지원 보조금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구조조정과 연계
 - 대학정원 조정, 학과 및 전공 구조의 융복합화 유도
-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육성
 - 라이즈 사업
 - 글로컬 대학 사업

2025-04-14

14

2. 교육부 대학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 **RISE 사업 추진**

-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증진

- **Study Korea 300K 사업**

- 입학정원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2022년 16.6만명 수준인 외국인 학생을 2027년까지 30만명으로 확대
-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 육성 지원
-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유학생 유치

- **글로벌대학 30 사업**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육성
- 지역의 전략적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2025-04-14

15

3. 교육부 대학정책에서 보완할 요소

-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관점 필요**

- 글로벌 사업의 경우에도 내부 역량 증진에 초점 (구조조정과 연계)
-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한류와 한국의 스마트 파워를 활용하는 대학교육 사업 부족
- ※ 전세계 한류 팬의 수: 2억 2500만 (2023)

- 구조조정 위주의 접근은 해방 이후 전국 대학(193개 4년제 및 교육대학과 130개 전문대학)이 축적해온 방대한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멸실을 초래할 가능성**

- 한국과 개도국 사이의 **‘환상적 상호보완 관계’** 미고려

- 풍부하게 축적된 우리나라의 교육자산을 잘 활용하여 개도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이와 함께 **한국의 미래 인구/인재기반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개방적/포용적 접근 필요

2025-04-14

16

(참고) 한국과 개도국의 환상적 보완관계

한국의 고등교육 여건

- **최고의 교육 여건: 공급과잉**
 - 좋은 캠퍼스
 - 우수한 교수요원
 - 좋은 실험장비
- **최악의 학생 자원: 수요 부족**
 - 초저출생율에 따른 학생인구 급감
 - 고등교육기관 폐교시 엄청난 물적·인적 자산 손실, 공동체 붕괴
- 공급과잉 / 수요 부족

2025-04-14

개도국의 고등교육 여건

- **열악한 교육 여건: 공급 부족**
 - 캠퍼스 등 고등교육 투자 미흡
 - 부족한 교수자원
- **급증하는 학생 인구: 수요 확대**
 - 인구급증, 고등교육 수요 급증
 - 평균 연령: 30세 내외 (한국 42세)
- 빠른 경제성장에 상응하여 노동
 - 생산성 향상 요구 급증
- 공급부족 / 수요 과잉

17

4. 축소사회와 축소경제 시대 대비 글로벌 인재·교육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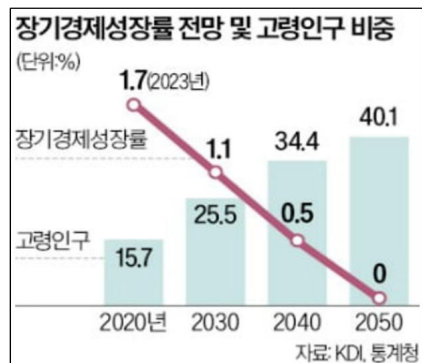
축소사회/축소인구 대비

국가명	신생아 수 (2023, 만명)
인도	2,322
중국	902
미국	366
러시아	130
일본	75
독일	72
영국	69
프랑스	64
캐나다	36
한국	24

➢ AI는 누가 개발하나?

2025-04-14

축소경제 대비



18

5. 교육부 대학정책 평가 종합

- 구조조정 중심의 대학정책 추진
- 장래의 인구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인식 미흡
- 대학들이 구형모델을 벗어나 신형모델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 미흡
- 여전히 '일국적' 대학정책에 집중
- 글로벌 인구·인재·교육 정책의 차원에서 더 큰 포용적 정책 추진해야 (예: 아시아판 미네소타 프로젝트)

2025-04-14

19

IV. 상지대학교의 실험

상지대의 7대 발전전략 (새로운 학생과 수익모델)

- (1) AI 선도대학: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학” “AI 특급인재 육성”
- (2)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University): 대학기반 시니어 주거/돌봄/학습 공동체 → 초고령사회 대비
- (3) 5대 중점 연구분야 육성
- (4) 전국민 평생교육
- (5) 지역특화형 기후변화 대응: 산불 예방(감지), 대응, 교육 (산림공학과)
- (6) AI/로봇/드론 신국방산업단지 및 신형군대 교육훈련 허브 조성: 군사학과 + 군사도시
- (7) 대외발전 전략: 세계한류·한상·(한인)대학 설립 → 글로벌 전략

21

IV. 대내 발전 전략

22

1. AI 선도대학

- 목표
 -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학”
 - “AI 특급인재 육성”
- 내부 교육
 - 학생 교육: 교양 교육(필수화), 전공교육(AI+전공 융합 교육)
 - 교직원 교육: 교육혁신·연구혁신·행정혁신 촉진
 - AI 역량과 팀 역량 증진 교육 → Open Innovation과 Team Genius 활성화
- 지역소재 기업/지자체/공공기관 대상의 교육: 수익사업화
- AI 서비스 확산 시대 대비: ‘AI 교육 및 AI Agent 개발 연구원’ 설립

23

2. 고령친화대학과 대학기반 ‘은퇴자생활공동체’(UBRC)

- 우리나라는 최근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1천만 62명, 2024.7.10)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
 - 그러나 노인주거와 돌봄 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그것도 양극화된 상태: 단순 돌봄 vs 고가 실버타운
- 상지대의 강점
 - 넓고 쾌적한 캠퍼스 공간과 인근 부지 활용: ‘대학기반 시니어 주거/돌봄/학습 공동체’의 최적지
 -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의대/한방병원과 다수의 돌봄 관련 전공 보유: 한의학, 간호학, 보건의료경영, 물리치료학, 식품영양학, 사회복지학, 체육학, 생활체육학 등
 - 생활 돌봄과 의료 돌봄 제공: smart healthcare 기술을 적용하여 심장마비와 뇌경색 등 사전 대비
 - 입주자: 대학의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 도서관/체육관/문화시설/식당 등 개방, 대학이 제공하는 교양교육/전공교육 참여 (치매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전시/공연/행사 참여
 - 다양한 老老케어(훈련받은 65~75세 노인들이 더 연로한 노인들을 돌봄, 老靑협력 가능: 노인들의 청년 멘토링(창업, 사회진출, 갈등관리), 청년들의 노인돌봄(장학금)
 - 청년/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창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 기회: 로컬 푸드 공급, 노인돌봄, 교통 서비스

2025-04-14

24

3. 5대 중점 연구분야 육성

- 5대 중점 분야 (안)

- ① 문화콘텐츠/예술/한국어교육/미디어영상광고/시각영상디자인/만화애니메이션/산업디자인/경영/국제경영 (문화/디자인/한류/경영 부문)
- ② 한의학/간호학/보건의료경영/물리치료학/임상병리학/작업치료학/소방안전학과/식품영양/언어치료/체육학/레저레크레이션/사회복지 (한의학/의료/건강/복지 부문)
- ③ 스마트생명과학/제약바이오/동물자원학/조경산림학 (생명과학/지속가능발전 부문)
- ④ 디지털/AI/전기전자융합공학/컴퓨터공학 (디지털/AI/전자공학 부문)
- ⑤ 평생교육/평생교육상담/영어학/유아교육/생활체육/식음료외식산업/호텔항공관광경영/사회적 경제/경찰법학/공공인재/군사학/도시계획부동산/법률행정학 (지자체/공공부문/기업체/평생교육 부문)

- 국책사업 참여, 기업과 연계하여 적극적 산학협력 추진, 지역 산업클러스터 조성
에 참여, 연구기금 조성, 상지학술원 설립
- 중장기적 과제: 학내/외에 연구-창업-투자-생산이 융합되는 기업도시나 Science
Park 조성

25

4. 평생교육 확대

- 평생교육의 필요성 (줄어드는 대학진학 인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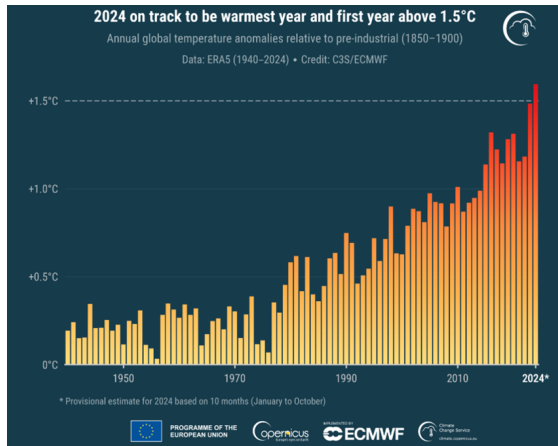
- 신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산업 및 직업구조의 급속한 변동 진행
- 지식과 기술의 빠른 무용화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사회적 교류, 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교육기회 필요

- 급속한 기술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 증가

- 아동과 청소년: 미래 직업 탐색 교육
- 여성/가정주부: 경력단절 극복 교육, 취업교육, 가정경제 관리, 기후변화 대응 교육
- 직장인/중장년: 직무 역량 증진 교육, 신기술 교육, 직무 전환 교육
- 노인: 건강관리, 사회적 교류 기회 제공,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능동적 노인 (active senior) 교육

26

5. 지역특화형 기후변화 대응 (강원도)



• 2024년은 산업혁명(1780년대) 이후 연평균 지구 기온이 가장 더운 해 (1.60도 상승)
→ 파국적 결과 초래

- 산불화재 예방/감지/조기경보/대응 체계 구축
- 전통시장 화재 예방/감지/조기경보/대응 체계 구축
- 건물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 ESG 경영 확산

27

V. 글로벌 발전 전략

28

1. 왜 한류·한상·한인에 주목해야 하나?

- 현황: 전세계 한류 팬(2억 2500만), 한상기업(11만개)과 종사자(500만 이상), 한인동포(708만) → 새로운 학생인구 확보 (새로운 등록금 수입 확보)
-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상호협력 용이
 - 문화적 상호이해와 교류협력, 경제협력과 상호이익의 추구
 - 세계평화와 세계공익(빈곤해소, 교육기회 확대, 공동번영,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글로벌 한류 문화·경제공동체(또는 글로벌 한류 문화·경제네트워크) 형성
- 한류·한상(종사자 포함)·한인을 초저출생·인구소멸 시대 지방대학과 한국사회를 위한 미래의 **신인구동력** 및 **신성장동력**으로 이해하고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글로벌 인구·인재정책** 추진

2025-04-14

29

2. 해외 한류·한상·한인과 한국의 관계: “세계와 연결하고 협력”

- (소통) 세계와의 연결선
- (협력) 세계를 움직이는 지렛대
- (희망) 대한민국의 붕괴를 예방할 희망의 버팀목
 -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5184만의 ‘민족’ 국가 vs. 3억의 ‘문화’ 네트워크 국가(5184만 한국민 + 2억 2500만 한류 팬 + 500만 한상기업 종사자 + 708만 한인동포)
- (평화)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2025-04-1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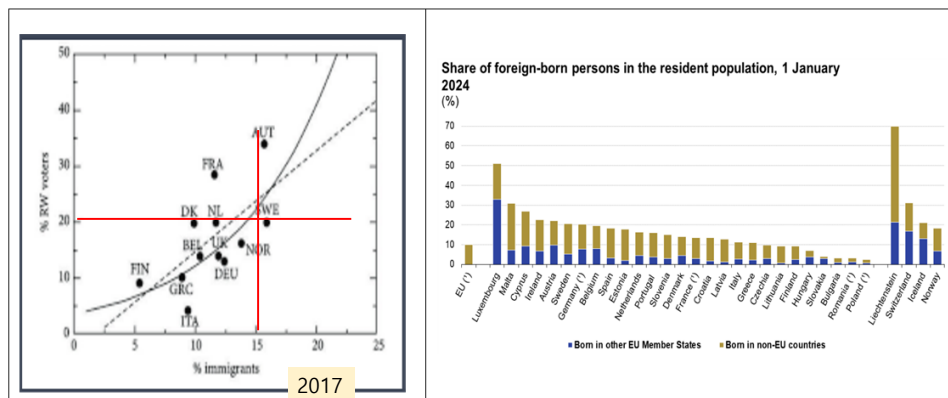
3. 글로벌 인구/인재정책

- 현재 한국에 이민온 246만명(2023)의 대부분이 low-end job 종사
 - 향후 저학력·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반이민과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극우주의·포퓰리즘(파시즘)**이 확산될 수도 있음
 - 최근 스웨덴에서 빈발하고 있는 마약 범죄 및 총기 난동 사건 (이민자 비율 20%)
- 글로벌 인구·인재정책의 설계
 - (1) 한국의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이민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구성을 조정
 - (2) 이민자의 교육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고학력/전문역량/창업역량/투자역량을 보유한 이민자의 비중을 최대화** (장기 체류/귀화 허용): (참고) “인도천재”
 - (3) 중간 수준의 학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직종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이민을 허용 (장기체류)
 - (4) 학력이 낮고 저숙련 노동에 종사할 사람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 (단기 체류)

2025-04-14

31

(참고) 이민자 비율과 극우 정당 지지율의 관계



- ◆ **최근 스웨덴 상황:** 이민자 비율 20% 상회 (2022년 우파연합 승리, 신자유주의 정책과 반이민 정책 추진, 시리아 난민 급증, 마약사건과 총기난동 급증) → 더 이상 안정된 과거의 복지천국이 아닙니다!

2025-04-14

32

4. 상지대 세계한류·한상·한인 교육의 중점

- 한국인의 가치와 한국문화의 진수를 연구하고 교육
- 한국과 상대국 사이의 ‘환상적 보완관계’를 최대한 활용
- AI 교육과 한류/전공 교육의 접목: AI교육 + 한류문화 교육 + 전공교육
- 한국인과 외국 유학생 사이의 평등과 호혜적 관계 형성 및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통합적 접근
- 외국인 학생의 취업·생업·창업에 역점

2025-04-14

33

5.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1): 지역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도와의 협력

- 2018 스포츠 위주의 ‘평창 올림픽’을 한류·한상·한인이 두루 참여하는 ‘글로벌 한류 문화올림픽’(인적·문화적 교류 올림픽)으로 계승 (매 2년 단위로 개최) → 춘천에서 발원한 한류(겨울연가, 2002년)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레거시 살리기
- 스포츠 올림픽이 국가간 ‘경쟁’ 위주로 진행되는 데 반해 글로벌 한류문화올림픽은 국가간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 (예, 한-중-일 합동의 합창이나 K-pop 공연,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오징어 게임 등)
- 문화올림픽 마지막 날 ‘세계 한류·한상·한인의 날’ 개최 및 ‘공동선언문’ 선포(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공헌하는 공동선언문 채택) → 포용주의와 호혜주의 천명
- 18개 시군과의 협력: ‘한류·한상·한인동포의 고향’ 사업(한류 빌리지, 한류문화체험센터, 대학연계형 UBRC) 추진

2025-04-14

34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2): 지역 인구회복을 위한 글로벌 인구·인재정책

• 인구 Stock과 인구 Flow

- 초저출생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Stock**(정착인구/주민등록인구)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다양한 한류·한상·한인 유치 사업을 통해 '**인구 Flow**'(유동/방문/단기거주 인구)를 확대하는 것임 → Flow 인구의 확대를 통해 국내 인구의 하향붕괴(downward spiral)를 막아 인구재생산의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 인구 Flow 중 상당 수를 장기 정착인구로 유도 (인구 stock + 인구 flow = 생활인구)
- low-end job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비율을 적정선 아래로 관리하고 high-end job에 종사할 우수 인재의 비율을 확대: 아시아판 '**K-미네소타 프로젝트**' 추진 (예, 우수한 한류 팬과 한상기업 종사자, 그리고 한인 자제들의 한국 유학을 위해 **정부 ODA 사업을 최대한 투입, 최대 1조**, 이들을 지방대에 우선 배정하여 지방대 육성 지원)
-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력: 외교부, 재외동포청, 문화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협력과 지원 요청

2025-04-14

35

VI. 상지대의 실험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36

1. 세계한류·한상·한인대학의 비전

- 보편적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의 추구
- 글로벌 한류 문화·경제공동체 구축
 - 한류 문화를 향유하는 개인과 나라 사이의 (느슨한) 문화·경제공동체 형성
 - 상호교류와 호혜적 공동번영 추구
- 세계공헌국가 지향
 - 어려운 나라의 빈곤해소, 건강증진, 역량향상에 기여
 - 세계평화와 안정, 국제협력에 기여

2025-04-14

37

2. 상지대의 실험: “노아의 방주?”

- 지방대학이 학생을 못 채우고 폐교하면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된다는
- 지방대학이 해외의 젊은 학생들을 포용하면 지방은 인구재생산에 성공하고 회복력을 발휘하게 된다
- 지금 한국에는 공장과 농장 등에서 일할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들 이민대열의 중심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들 low-end job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과도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포퓰리즘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한류 팬, 한상기업 종사자, 재외동포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수인재를 최대한 많이 유지하여 미래 한국사회의 인구/인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38

(참고) 인도천재, 인도를 품은 미국의 힘

- high-end job에 종사하는 고 능력자들은 기술혁신과 창업, 지속적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아마존의 베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Zuckerber그 등 미국 500대 기업회 43%가 이민자에 의해 설립).
- 따라서 지방대학은 우수한 외국학생을 유치하여 대학과 지방을 살리고, 미래의 한국경제를 살릴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
- KBS가 2023년 5/4, 11일에 방영한 <인도천재>는 인도의 천재급 엘리트들이 미국의 빅테크들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개방된 세계에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한국이 해외의 천재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험이 있다 (2023년 한국의 신생아 수 23만명, 인도의 신생아 2320만명)



발표 8

미래사회 변화와 대학의 발전방향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미래사회 변화와 대학의 발전방향

2025. 4. 17.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향숙

목 차

- I. 미래사회의 변화
- II. 대응의 한계
- III. 대학의 여건
- IV. 발전방향

I. 미래사회의 변화



미래 사회의 변화

I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계산 등 첨단 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도래

- 디지털 대전환(DX) 등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글로벌 산업·경제 지형이 급변
- 미래기술 선점과 신산업 발전이 미래 국가경쟁력 좌우
- 기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역할 재정립



미래 사회의 변화

I 사회·문화적 변화

-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축소
- 글로벌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 가치관 변화: 지속가능성, 환경 문제, 윤리적 소비 증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및 고령인구 비중



5

무엇을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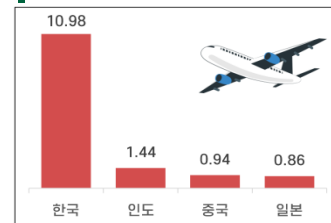
II 디지털 대전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핵심 인재 확보가 관건

- 기술혁신은 핵심인재로부터 시작, 양질의 인재 양성이 시급
- 전 세계는 이미 첨단 산업 인재확보 총력전에 돌입, 향후 인재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우리나라는 낮은 인재유치 매력도, 고급인재 유출 등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확보에 난항 → 총력대응 필요
- 기술패권 시대, 급증하는 인력수요 + 인적자원 질적 제고 요구 → 국내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전략 마련 필요

AI 전문인재 국가별 분포 비율 · AI 인재 급여 수준



미국 고급인력 취업·이민비자 (EB-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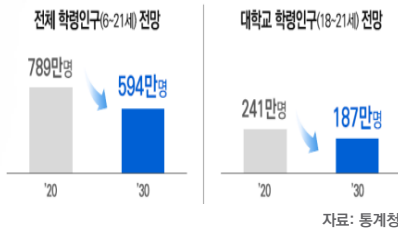
6

우리의 현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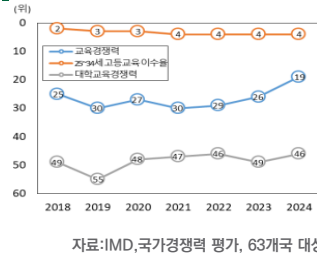
I 미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창의·혁신 인재양성 체계 미흡

- 학령인구(6~21세)감소, 이공계 기피·유출 현상, 초·중등 교육의 낮은 생산성 → 미래인재양성에 한계
- 각종 대학 규제와 낮은 수준의 대학 구조 조정 →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상위권이나, 대학경쟁력은 최하위수준
-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력의 수요와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력 공급간 미스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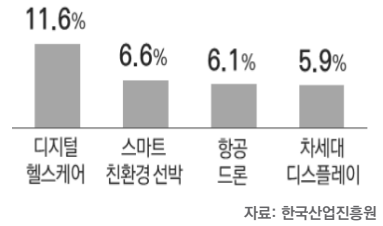
신규인력 유입 급감



교육경쟁력 순위



신산업분야 석박사인력 부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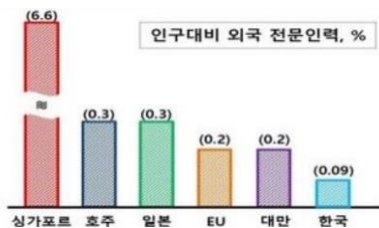
7

우리의 현 주소

I 전문인재유치·활용 저조로,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연계·협력 부족

- 그동안 비전문인력의 단기·양적 공급확대에 치중, 전문인재 유치 위한 체계적 전략 부재
- 글로벌 인재·기업간 연계·협력은 낮은 수준이며 핵심인재의 두뇌 유출 심화

인구대비 외국 전문인력 비중('16~'20)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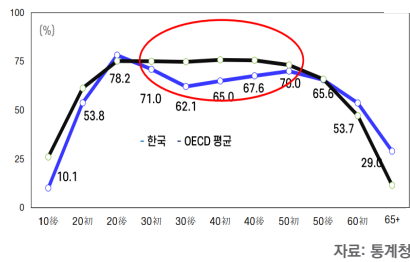
8

우리의 현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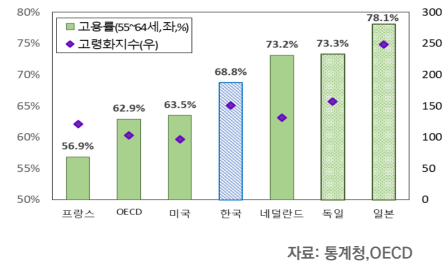
I 여성·新고령층 활용 불충분

- 여성 경제활동이 남성 및 OECD여성보다 현저히 낮고, 일·가정 양립 어려움 → 30·40대 여성 경력단절 (M-커브)
- 이전세대보다 학력 수준이 높고 계속고용 의사가 강한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05만명) 노년기에 진입
→ 향후 10년내 고령인구 진입할 예비고령층(55~64세)역대 최대(840만명) + 獨, 日 등 선진국 대비 낮은 고용률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주요국 55~64세 고용률 및 고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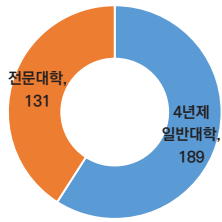


II. 대응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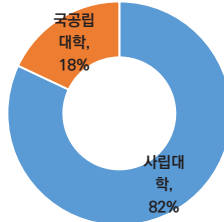
대학의 현황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1995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 후, 2010년대 이후 감소
- 현재 4년제 일반대학 189개교, 전문대학 131개교 = 총 **320개교** 수준 유지
-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전체대학 중 약 **82%**가 사립대학
- 4년제 일반대학의 비수도권 비중은 1995년 **58.0%** → 2024년 **62.4%**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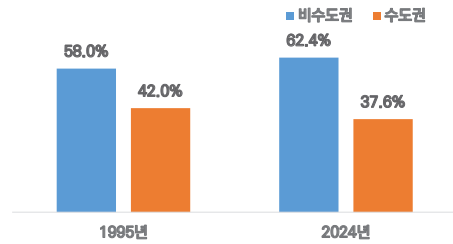
대학유형별 현황



설립유형별 현황 (4년제 일반대학)



대학소재지별 (4년제 일반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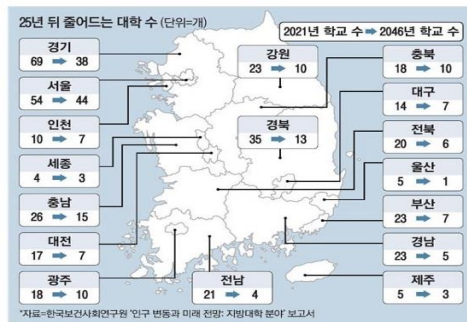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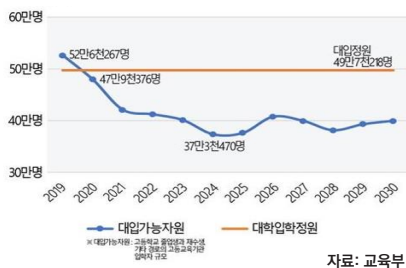


11

대학의 현황

- 대학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는 **입학정원 및 입학자 수**는 모두 감소
- 최근 10년간, 2013년 대비 2023년 입학정원 수는 약 34,800명, 입학자 수 또한 35,000명 이상 감소
-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 단위에서 입학정원 수가 감소하였고, **학교 수는 변동이 거의 없음**

대입가능자원과 대입정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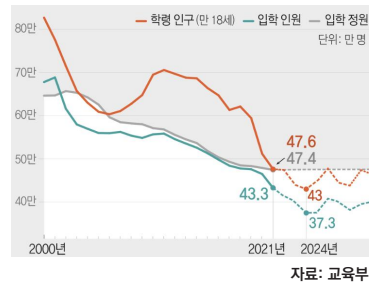


12

대학의 현황

- 외국인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
-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등록금 수입 확대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부족한 부분인 **국제화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대학입학정원 및 입학 인원 현황



■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Ⅲ. 대학의 여건

대학의 재정 현황

연도별 교육단계별 1인당 공교육비 추이

(단위: USD/PPP,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초등학교	7,453	8,040	8,811	9,341	9,656	11,047	11,029	11,702	12,535	13,341	13,278	14,873
중학교	7,460	7,678	8,358	8,623	8,932	11,025	11,477	12,597	13,775	15,216	14,805	16,337
고등학교	10,370	10,746	11,047	11,144	11,610	13,247	13,113	14,394	16,024	18,790	19,293	22,383
대학교	한국(A)	9,998	9,953	9,896	9,353	9,570	10,109	10,486	10,633	11,290	11,287	12,225
	OECD(B)	13,528	13,958	15,028	15,772	16,143	15,656	16,327	17,065	17,559	18,105	20,499
	A/B*100	73.9	71.3	65.9	59.3	59.3	64.6	67.4	65.1	66.2	64.3	66.2

주: 1) 2015년(EAG 2018)부터 공교육비 산출 기준이 (교육기관 직접 지출/학생수)/PPP로 변경됨.
 2) 기준연도는 발표연도보다 3년 전 자료를 공시하고 있음. 예컨대 2020년 자료는 2023년 12월 발표된 자료임.
 자료: OECD(각 연도). OECD Education at a Glance.

15

대학의 재정 현황

주요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 추이

(단위: USD/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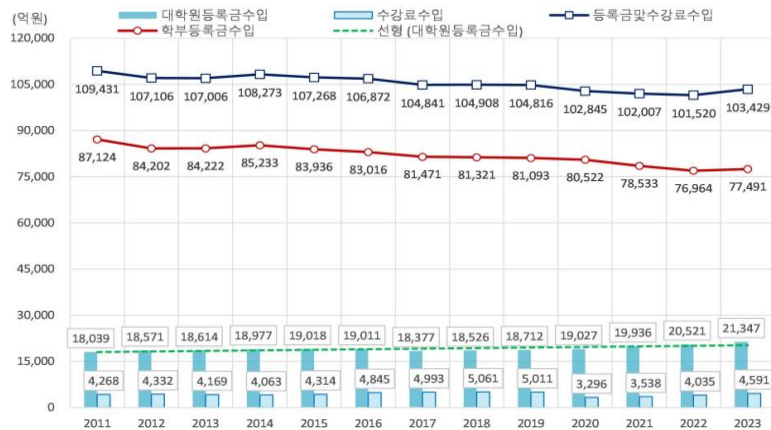
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OECD 평균	11,512	13,528	15,656	15,556	16,327	17,065	17,559	18,105	20,499
시장지향형 (고등교육 정부지출 50% 미만)	한국	7,606	9,972	10,109	10,486	10,633	11,290	11,287	12,225
	미국	24,370	25,576	30,003	30,165	33,063	34,036	35,347	36,274
	호주	14,579	15,142	20,344	16,170	20,436	20,647	20,625	22,204
	일본	12,326	16,015	19,289	19,191	18,839	19,309	19,504	19,676
	영국	13,506	15,862	26,320	23,771	28,144	29,911	29,688	29,534
정부책임형 (고등교육 정부지출 70% 초과)	프랑스	10,995	15,067	16,145	16,173	16,952	17,420	18,136	18,880
	독일	12,446	-	17,036	17,429	18,486	19,324	19,608	20,760
	노르웨이	15,552	18,512	20,973	21,993	23,439	25,428	25,019	24,374
	핀란드	12,285	16,714	17,591	17,541	17,730	18,170	18,129	19,583
	스웨덴	15,946	19,562	24,417	24,341	25,584	26,147	26,046	26,215
혼합형 (고등교육 정부지출 50%~70% 사이)	덴마크	14,959	18,977	-	-	18,062	19,684	21,658	23,432
	캐나다	-	22,475	-	23,700	24,671	24,496	22,335	24,363
	스페인	10,089	13,373	12,605	12,614	13,446	13,800	14,237	14,361
	이탈리아	8,026	9,580	11,257	11,589	12,226	12,305	12,177	12,663
	네덜란드	13,883	17,161	19,286	19,513	20,445	20,898	20,889	21,642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공교육지출액 ÷ 학생수, 기준연도는 발표연도보다 3년 전 자료를 공시함.
 2) 덴마크는 2014년 국공립 기관만 포함되며 이탈리아는 2005년 국공립 기관만 포함함. 캐나다는 2005~2014년 국공립 기관만 포함되며 2013년까지 기준연도보다 1년 이전 자료임.
 자료: OECD(각 연도). OECD Education at a Glance.

16

대학의 재정 현황

사립대학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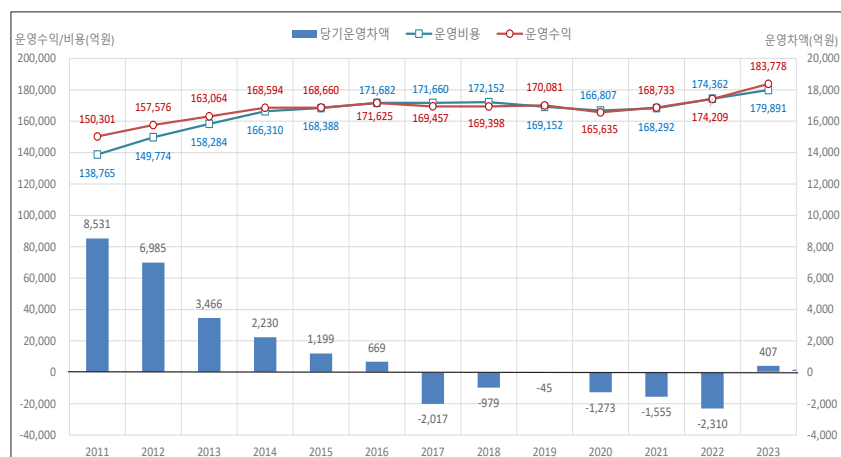
자료: 대학재정 알리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학부 등록금:
2014년까지 소폭 증가 후 지속적 감소
- 대학원 등록금:
외국유학생 등록금 인상 등으로 지속적 증가
- 수강료 수입:
코로나19 이전까지 지속적 증가,
2020년 급감 후 증가세

17

대학의 재정 현황

사립대학 교비회계 당기운영차액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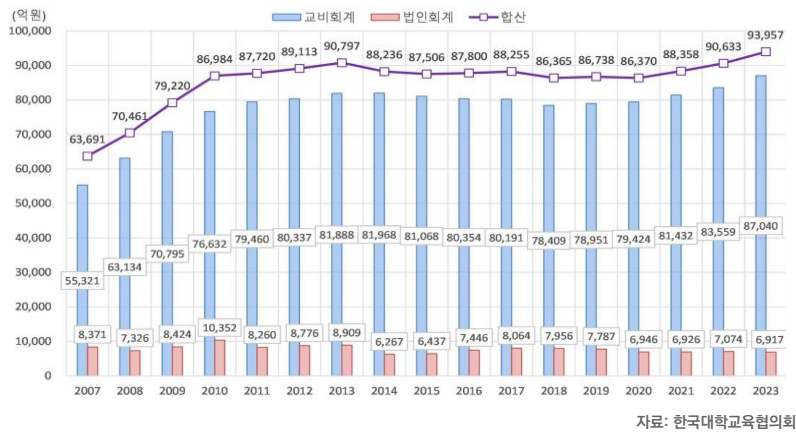


자료: 대학재정 알리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8

대학의 재정 현황

사립대학 적립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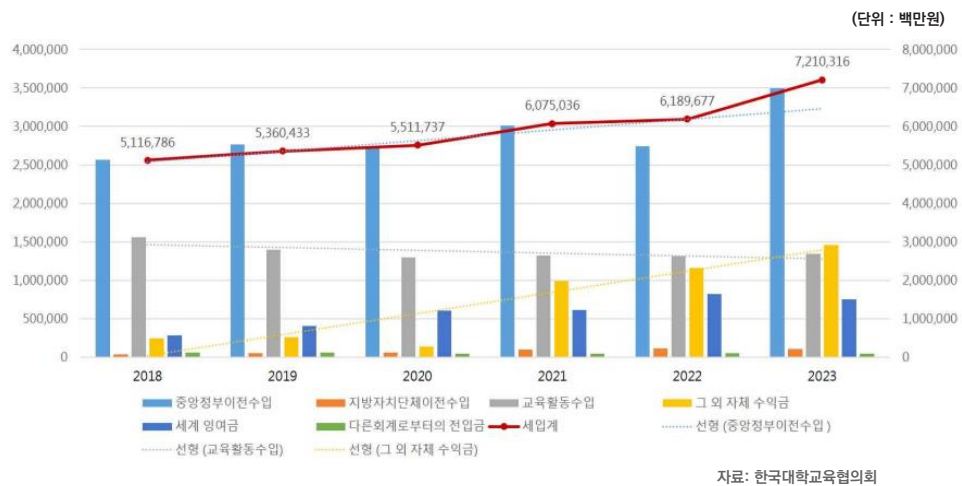


- 교비회계 적립금:
2014년 이후 감소, 2019년 이후 소폭 증가
- 법인회계 적립금:
전반적 감소 추세 지속

19

대학의 재정

국립대학 대학회계 세입결산 추이 (2018~2023)



20

고등교육 발전방안 6대 핵심의제

지향가치	고등교육 핵심의제	주요국의 고등교육 발전계획의 목표 관련성
충분성	1.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품질 확보	(미국) 고수요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주정부 지원 확대
		(일본) 10조원 규모 대학펀드로 장기적 안정적 연구기반 지원
		(호주) 양질의 교육과 지속가능성, 새로운 재정지원 모델
		(프랑스) 교육시스템 강화로 미래 인재 양성
자율성	2. 성과기반 대학자율 교육혁신	(캐나다) 고등교육 시스템의 품질 관리와 혁신 지원
		(프랑스) 기관별 특성화와 파트나십 기반의 연구 및 혁신 생태계 구축
		(핀란드) 세계 최고의 학습 성과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고등교육 공동체 구성
		(일본) 디지털, 첨단산업 분야 인재 키우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대학 키우기
수월성	3.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원 및 대학연구소 육성	(호주) 기술 수요의 충족, 지식의 생산과 활용
		(프랑스) 인프라 구축과 첨단 분야 교육 강화, 파트나십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글로벌 입지 강화, 디지털 교육 선도 등 기반으로)
		(핀란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환경 조성, 연구와 혁신을 이끄는 협력
		(미국) 국가교육정책 우선순위 "전략목표4" 학업 지속 및 학위 취득, 학업 부담 경감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 개선, 고등교육 투명성 및 선택권 확대
형평성	4. 고등교육 기회 보장	(일본) 고등교육 수확(학업) 지원 신제도 정비
		(호주) 공평한 기회의 제공, 학생 중심의 재정지원
		(캐나다) 형평성, 경제성, 평생학습 기회 제공(효과적인 재학 및 졸업 지원
		(프랑스) 형평성과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
확장성	5.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대학연계 평생·직업교육 강화	(미국) 직업·교육기회 확대
		(일본) 성인계속교육 내실화
		(캐나다) 노동시장과의 연계성 강화(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훈련 제공)
		(프랑스) 실무중심교육, 평생학습 강화
연계성	6. 지역성장을 선도하는 지식학연 내실화	(핀란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노동연구 양성 (성인계속교육 서비스 모델 및 개념 도입,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자 유치 확대, 이민 정책 개선)
		(일본) 지역연계 플랫폼 구축
		(프랑스) 산학협력 강화, 대학과 지역 기관간의 협력
		(핀란드) 핀란드 최고의 일자리로서의 대학 (고등교육기관들의 고용 중대 및 고용 환경 개선)

Ⅳ. 발전방향



대학의 환경

핵심 키워드



23

대학의 대응 키워드

대학의 대응 키워드



교육 혁신 교육, 직업훈련, 재교육

- ① 새 직업군 & 첨단산업 인력 대비 학사구조 유연화
- ② 인구구조 변화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연구 혁신 연구, 산학협력, 지역문제해결

- ① 글로벌 네트워킹 기반 연구력 확장
- ② 지역(공공기관, 연구소, 산업체) 연대 강화

24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미래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5

대학 R&D 지원 방향전환

- 현황**
 - 2000대 이후 대다수의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을 지향, 연구역량을 기준으로 교원확보
 - 하지만 실제 대학의 연구여건은 대학별 매우 큰 차이 → **대학의 획일화 & 서열화**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상황**
 - 수도권-지역 격차 심화로 지역 대학원은 우수 학생의 이탈
 - 수도권으로의 취업 및 진학 집중으로 양적·질적 심각한 위기상황
- 미래전망**
 - 2040년대부터 우수연구중심대학과 수도권의 일부 대형 사립대학, 그리고 지역거점국립대학 등 약 20여개 내외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대학원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개선방향**
 - 과학기술인력의 역량 및 사회적 수요에 따른 체계적 육성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여건과 역량을 갖춘 대학원을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26

결론

| 핵심과제

- 창의적 미래교육과정 정착
- 교육행정 및 재정지원시스템 재구조화
- 대학 연구력 제고 중심으로 대학전략 전환

| 실행방안

- 일관성 있는 대학 혁신 추진
-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
- 자율과 경쟁, 포용적 혁신 원칙 준수

| 기대효과

-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조 및 확산으로 미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창의·혁신 인재 양성

27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EWHHA WOMAN'S UNIVERSITY

발표 9

대학원 중심 대학의 현황과 과제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총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학원 중심 대학의 현황과 과제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총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4월 17일

목차

- ☞ • 대학(원)의 위기와 기회
 - 기회를 만드는 전략
 - 공급: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
 - 수요: 새로운 수요
 - 융합: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융합
 - 국제화: 심도있는 양방향 국제화 전략
- 결론



기고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혁신을 한자로 표현하면 '革新'으로, '가죽을 벗겨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영어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은 '새롭게(nov)'한다는 의미로, 한자식의 혁신에 비해 변화의 정도가 작다.

그러나 혁신보다 더 강력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환골탈태(換骨脫胎)'이다. 이는 '뼈를 바꾸고 태를 뱉는다'는 의미로, 실행하기에 너무 어렵다. 변화가 필요할 때 지나치게 강한 주장을 하면 실행이 힘들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골탈태는 매우 비현실적인 개념이고, 가죽을 벗기는 정도의 혁신이나 단순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노베이션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혁신과 이노베이션, 변화의 길을 찾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혁신을 해야 하고, 언제 이노베이션을 선택해야 하는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조직이나 개인의 경쟁력을 모두 A, B, C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A등급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호황을 누리고, B등급은 외부 환경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오가며, C등급은 언제나 불황이다. B등급이 A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만으로 충분할 수 있겠지만, C등급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새로운 진입자가 A등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대학의 사례를 들어보자.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가 대학들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A급 명문 대학들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반면, B급과 C급 대학들은 정원 미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원생들이 줄어들어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근본적 문제는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와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은 대학 졸업 후에도 석박사 과정을 이수해야 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다양한 과정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500여년전 공자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품었고 30세에 완성했다'고 했는데 요즈음과 같은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공자도 오늘날 태어났으면 15년이 아니라 평생 공부를 해도 학문을 완성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제대로 제공한다면, B급이나 C급도 A급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론 A급도 지속적인 혁신과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 혁신대학 랭킹(WURI)'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다. 전 세계에서 대학총장 등이 참석해 대학의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를 들어보면 혁신과 이노베이션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 대학이라도 장기적으로는 혁신, 단기적으로는 이노베이션을 해야 한다. 물론 아주 어려운 상황을 단시일 내 돌파하려면 혁신을 먼저 할 수 있다. 혁신과 이노베이션은 변화의 비중을 말하고 적절한 실행 순서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학의 역할이 과거보다 미흡하고 대학은 사양산업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대학의 문제는 수요 측면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과 이노베이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들의 노력이 결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168488>

3

대학의 위기

한국경제, 2024.11.10

사라지는 대학들: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학과폐지 및 구조조정이 가속화

동아일보, 2024.08.07

16년째 등록금 동결
대학교육 생태계 붕괴, 대학들 발전 의지 꺾어

동아일보, 2025.04.07

대학 등록금·유치원 다 올랐다... 교육물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

U.S. News & World Report, 2024.02.29

Higher Education on the Edge
A shrinking pool of students and a skeptical public perception.

Forbes, 2024.02.03

The Cliffs of Higher Ed
Headwinds and cliffs: enrollment and finance

WSJ, 2025.04.04

Funding Threat: Trump admin plans to cut \$9B (Harvard) & \$510M (Brown) over antisemitism & DEI issues

4

대학의 위기와 기회

위기

- 학령인구 감소
- 재정문제 악화

기회

-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 Fast and First Mover
- 평생학습의 새로운 수요
 - 孔子曰：「吾十有五而志於學 三十而立」
- 연구와 교육의 효율적 융합
 - Tri-vergence 전략
- 국제화
 - Global Frontier Initiative

5

대학원 중심대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중심 대학원

- 일반 대학교의 대학원, KAIST, POSTECH

직장인을 위한 실무중심 대학원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SSIST)

aSSIST의 전략적 포지셔닝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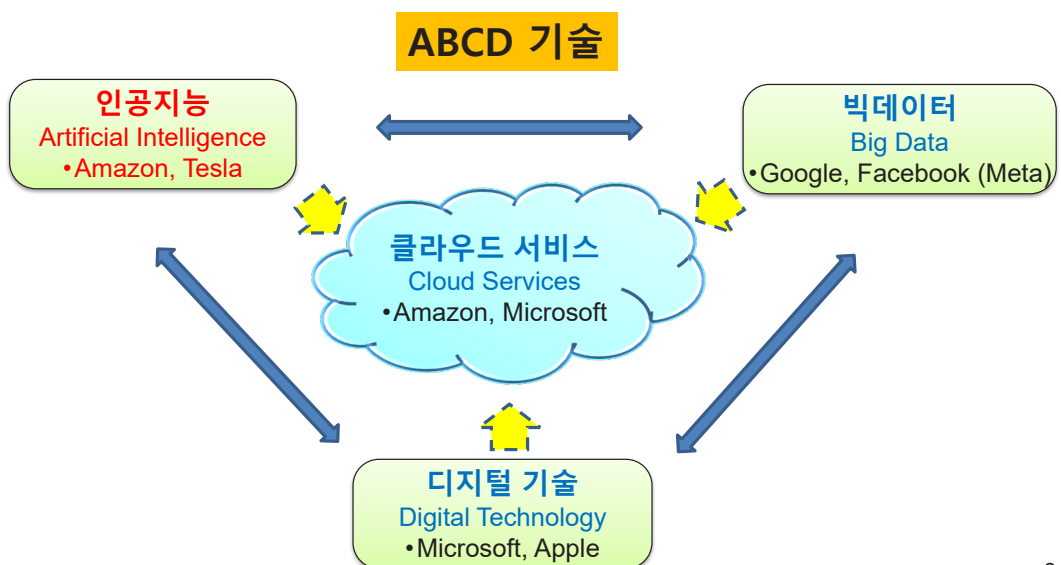
목차

- 대학(원)의 위기와 기회
- 기회를 만드는 전략
 - 공급: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
 - 수요: 새로운 수요
 - 융합: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융합
 - 국제화: 심도있는 양방향 국제화 전략
- 결론

7

급격한 기술변화

1차 산업혁명(기계화 혁명), 2차 산업혁명(대량생산 혁명), 3차 산업혁명(지식정보 혁명)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신기술이 빠르고 복잡하게 연결**되는 새로운 혁명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거의 불가능함



8

Cho, Dong-Sung and Hwy-Chang Moon (2024).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3: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급격한 지정학적 변화

동아일보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제32216호 Opinion A29

기고

트럼프 관세정책은 '무역 전쟁' 아닌 '투자 전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면 오히려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행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기본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첫째,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점진적인 산업정책이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성이 높은 관세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를 수단으

로 다국적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흔히 트럼프 정책을 '무역 전쟁'으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투자 전쟁'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정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자율 정책이 아니라 기업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를 잡으려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국 경제를 조절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자율 조정 등 거시 금융정책을 활용했

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아닌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다국적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 경영환경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네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미국의 관세정책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사실 한국 기업은 국제화

전략 중에서 수출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의 구성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외국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 기업뿐 아니라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진출도 늘릴 것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을 더 매력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전 세계 총수입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다. 이는 87%의 다른 시장이 있다는 뜻이다. 현재 상황에

서 오히려 더욱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의 생산 효율성을 높여 가격을 낮추면 관세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기술력과 품질을 높이면 한국 제품의 가격이 높아도 한국 제품을 선호할 것이다. 이 전략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 불확실성만 강조하면 제대로 답을 찾을 수 없다. 성공 사례는 어려운 상황에서 남들과 다른 통찰력을 가질 때 생겨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파로 인한 위기는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문 위 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서울대 명예교수·한국 투자홍보대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6890?sid=110>

9

목차

- 대학(원)의 위기와 기회
- 기회를 만드는 전략
 - 공급: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
 - 수요: 새로운 수요
 - 융합: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융합
 - 국제화: 심도있는 양방향 국제화 전략
- 결론



10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

- 산업 변화 속 지속적 재교육(Re-/Up-skilling) 필요 증가
- 맞춤형·유연한 실무 중심 교육 필요 증가

기업 내 대학원 설립 사례

- 미국 사례:
 - Google, Microsoft, Amazon 등은 자체 교육 academy 설립
 - Google의 Grow with Google, Microsoft Learn 등
- 한국 사례:
 - 2024년 LG가 'LG커넥트대학원' 설립.
 - aSSIST 사례

11

aSSIST: AI Business School 및 전 과목에 AI 도입



12

(직장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일반 대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과정 기간	학기	모듈
강의 일정	주중	주중 또는 주말
강의 교수	대부분 내부 교수진	<u>오픈 플랫폼</u>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
이수 학점	수업당 3학점 (총 45시간)	수업당 1.5학점 (총 22.5시간)
강의 평가	일반적 평가	엄격한 평가

13

(직장인을 위한) 학생지도

- **빠른 트랙**
 - 가능한 가장 빠른 졸업
 - 교육의 품질 유지
- **학생 지도**
 - 두 명의 지도교수와 함께 유연한 지도
 - 학생을 지원하는 연구 랩실 운영
- **졸업 논문**
 - 전통적인 박사학위 논문 대신 SSCI 등 출간된 논문
 - 윤리,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논문 심사
- **융합혁신세미나(IIS)**
 - 교수와 함께하는 동문을 위한 협력 세미나
 - 평생 학습과 혁신을 위한 학계와 실무의 통합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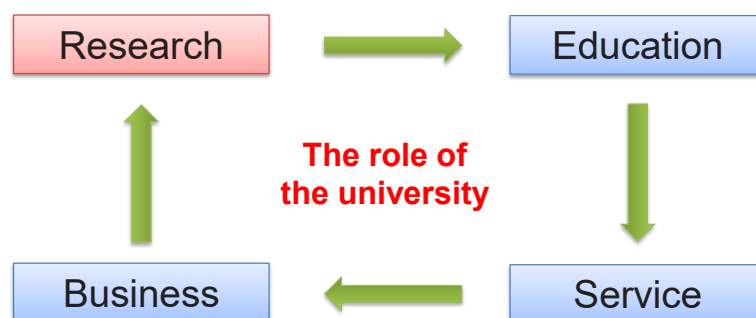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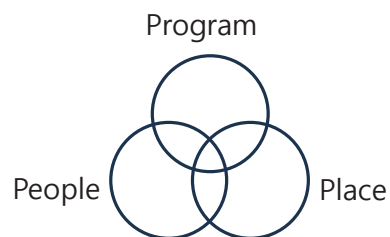
- 대학(원)의 위기와 기회
- 기회를 만드는 전략
 - 공급: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
 - 수요: 새로운 수요
 - 융합: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융합
 - 국제화: 심도있는 양방향 국제화 전략
- 결론

15

융합: 연구와 교육

Tri-vergence

- Program: 강의-연구
- People: 교수-학생
- Place: 강의실-연구실



16

연구주도형 선순환 발전전략



17

외국의 사례: 미국의 고등교육 모델 (California 주립대학)

Key Differences Between the Systems

Fe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UC)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Community Colleges (CCC)
Mission	Research and academia	Practical, career-focused	Accessibility and transfer
Degrees Offered	BA, BS, MA, Ph.D., MD	BA, BS, MA, limited doctoral	AA, AS, certificates
Campuses	10	23	116+
Tuition	Highest	Moderate	Lowest
Admission Selectivity	Highly selective	Less selective	Open enrollment

최근에는 연구와 교육이 통합되는 추세

18

외국 사례: 북경대학교와 북경사범대학교의 관계 및 강점

- **북경대학교(1898년 설립)**
 - 중국 최초의 근대적 국립 대학교
- **북경사범대학교(1902년 설립)**
 - 중국 최초의 사범대학교로 북경대에서 분리되어 교사양성에 특화

북경대학교의 강점

- **연구 중심**
 - 다방면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
- **다양한 학문 분야**
 - 정치학, 경제학, 법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두각

북경사범대학교의 강점

- **교육 중심**
 - 중국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학 연구 선도
- **교육 정책 개발과 실행**
 - 국가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실행을 주도

최근에는 연구와 교육이 통합되는 추세

19

외국 사례: 일본 및 유럽

일본

- 도쿄대, 교토대 등은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및 '사회 구현형 연구'를 강조
- 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등에서 산학연계 연구교육 통합 지원

유럽

-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는 응용연구와 교육 연계 대표 사례
- 스위스 EPFL, ETH Zurich 등은 산업계 프로젝트와 대학원 과정을 통합 운영

최근에는 연구와 교육이 통합되는 추세

20

목차

- 대학(원)의 위기와 기회
- 기회를 만드는 전략
 - 공급: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
 - 수요: 새로운 수요
 - 융합: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융합
 - 국제화: 심도있는 양방향 국제화 전략
- 결론

21

세계화 전략: *Foreign Affairs*와 인터뷰

aSSIST University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FOREIGN AFFAIRS' magazine website. The main headline is 'South Korea: A Model for the World' dated January/February 2024. Below this, it says 'Foreign Affairs & Opinion Leaders'. A sidebar lists 'THE MOST INFLUENTIAL:' publications, with 'Foreign Affairs' at the top. The main article text discusse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and educational system, mentioning 'aSSIST University' and its 'first-mover strategy emphasizing globalization'. It quotes 'aSSIST University President Moon Hwy-Chang, Ph.D.'.

Source: <https://www.foreignaffairs.com/sponsored-gmi-south-korea>

Note: 'aSSIST' stands for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22

글로벌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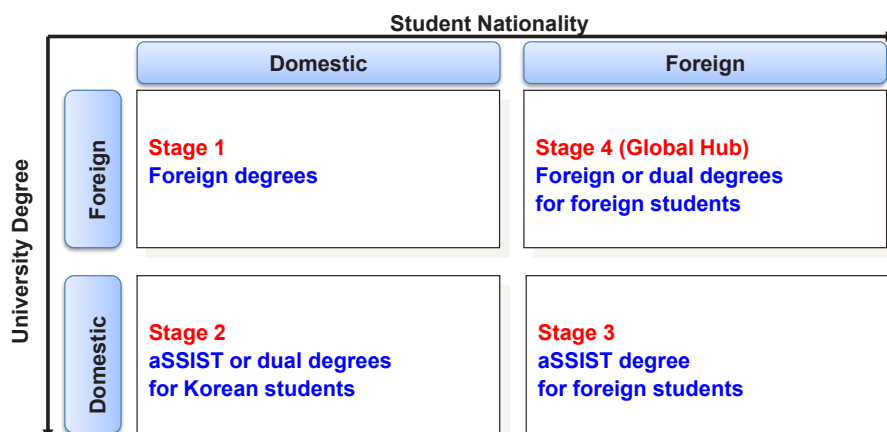


From inbound to outbound (K-교육)

23

Globalization

Weight: Exchange → Degree; Single → Dual Degree
Sequence: Four Stages of University Globalization



Source: <https://gmipost.com/south-korean-university-pioneers-global-education-in-business-and-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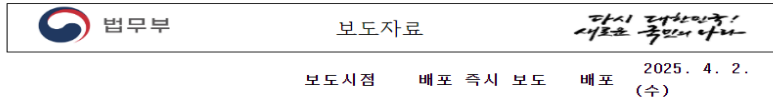
Note: The second interview report of *Foreign Affairs* forthcoming

24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과제

- 행정·비자 절차 간소화
- 영어 기반 학위과정 확대
- 기업 연계형 인턴십 및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 정주여건(주거, 생활 편의 등) 개선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 ① 14개 광역지자체와 협업,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 시행
- ② 세계 최고 수준 최우수인재 대상 “탑티어(Top-Tier) 비자” 도입
- ③ 비자·체류정책 제언제 관련 민관합동 심의를 거쳐 일반기능인력(E-7-3)·전문인력 비자(E-5) 범위 확대 및 주력산업 비자 요건 완화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743559225926100

25

광역 지자체별 광역형 비자 주요 맞춤형 요건

대상 지역	광역 지자체	대상 분야	주요 맞춤형 요건
유학 (D-2)	서울	• 시 핵심산업분야 이공계 (로봇·바이오·판테크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 허용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부산	•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 학과	• 부산광역시 지정 장학생 등에 대한 재정요건 1/2 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인천	• 외국대학교 국내캠퍼스	• 외국대학 국내캠퍼스 유학생 대상 체류기간 상한 확대(1년→2년)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광주	• AI 미래자동차과	• AI 미래 자동차 관련 학과 재정요건 1/2 완화
	강원	•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 유관 학과	• 등록금/생활비를 분할하여 재정요건 입증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충북	• 항공·화장품·식품·바이오, 뿌리산업, 복지인력,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학과	• 충북형 일학습병행 참여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1/2 완화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충남	• 농어촌지역 및 충남5대산업(전공학과/자동차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 농어촌지역, 충남 5대 산업 전공, 충남형 일학습병행 참여 유학생에 대한 재정요건 1/2 완화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전북	• 외국 인천용 계약학과, 지역특화학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중심	• 지역산업 관련 대학 재정요건 1/2 완화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전남	• 지역 핵심산업(바이오, 에너지, 조선, 화학, 철강, 복지, 관광 등) 연계 학과	•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학과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1/2 완화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 일부 전문직종 시간제 취업 허용(요양보호사, 주방장 및 조리사)
	제주	• 관광산업 RISE 산업 연계 학과	• 관광 분야 학과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완화(연간 1,000만 원 이상)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26

- 대학(원)의 위기와 기회
- 기회를 만드는 전략
 - 공급: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
 - 수요: 새로운 수요
 - 융합: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융합
 - 국제화: 심도있는 양방향 국제화 전략
-  • 결론

27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 전략

- **민첩(Agility): First Mover**
 -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예: 기술 및 지정학적 변화)
 -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
- **학습(Benchmarking): Global Initiative**
 - 글로벌 스탠다드를 벤치마킹 (Inbound Globalization)
 - 한국 교육의 글로벌화 (Outbound Globalization)
- **융합(Convergence): Integrated Approach**
 - 교수진의 융합: 국내외 최고 교수진
 - 연구 및 교육의 효율적 융합
- **전념(Dedication): Student Care**
 -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빠른 졸업
 - 연구 랩실 운영, 논문 출간

Should vs Must

비중과 순서

28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한국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안

발행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일 2025년 4월 17일

제 작 한국사회과학협의회